보이차
www.hongdawon.com
紅茶園 02)744-3311

현대불교

부모와 조상님께
등불을 밝힙시다
천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8월 9일(음력 7월 16일) 수요일 (주간) 제 590 호

행복·건강의 지혜 절에서 배워요

'피부에 와 닿는 강좌' 인기 상한가… 타종교인도 대거 참여

'사찰에서 발급하는 행복면허증, 받아 보셨어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견인하는 '지혜 배움터' 사찰이 늘고 있다. '지혜 배움터' 역할을 하는 사찰의 강좌는 실생활에 밀접하면서도 유익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혜 배움터' 1호는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원혜)다. 봉은사는 '참살림 행복 프로그램'이라는 생활강좌를 연이어 마련해 불자들은 물론 무종교인·이웃종교인까지 사찰로 끌어들이고 있다. '좋은 아버지' '행복한 부부' '웰다잉' '예비부부' '부모와 자녀 관계' 등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가 효과를 발휘한 것.

'참살림 행복 프로그램'은 3월부터 6월까지 행복한 부부교실과 좋은 아버지교실이 열렸고, 웰다잉교실은 현재 진행되고 있다. 모두 조기에 모집정원을 넘어설 만큼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웰다잉교실의 경우 100명 모집에 250명이 몰려, 높은 인기를 증명했다. 신청자 가운데 무종교인과 이웃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앞서 진행된 생활강좌 인기로 한층 고무된 봉은사는 8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진행하는 예비부부교실로 '지혜 배움터' 사찰의 입지를 굳힐 태세다.

'행복한 결혼, 건강한 가족문화'를 주제로 한 예비부부교실은 끝까지 수료한 사람에게는 '행복면허증'까지 준다. '이성교제·내짝 찾기' '성·사랑·결혼' '결혼 준비 및 혼인 예절' '재정관리·가족여가문화' 등 총 7회에 걸쳐 진행되며, 김외숙 방송통신대 교수, 이미선 21세기 가족문화연구소장, 김연화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수석팀장, 송말희 가족상담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등 가정전문가들이 진행자로 나선다.

봉은사 '참살림 행복 프로그램'
결혼·재정관리 등 다뤄 '정원초과'

갑사 '아토피 Zero 산사학교'
친환경적 생활로 건강지키기 안내

실상사·수효사
응급처치법·따주기 등 주민들 호응

조계사 수험생 클리닉·학부모 자세 특강

'참살림 행복 프로그램'의 바통은 9월 부모와 자녀 교실, 2차 웰다잉교실로 넘겨진다.

봉은사는 '놀토'인 9월 9일과 23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강좌를 개최하고, 1차 웰다잉교실 신청자들의 요청에 따라 2차 웰다잉교실을 준비중이다. (02)3218-4821

학업성취기도가 대세를 이뤘던 입시관련 프로그램도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생활강좌로 새롭게 선보였다. 수험생이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차원에서 부모와 당사자에게 지혜를 제공한다는 취지.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는 8월 4일 이석록 메가스터디교육연구소장을 초청해 '입시 마무리 100일 전략'에 대해 첫 강의를 연데 이어, 8월 10일과 10월 20일 김수현 식생활상담소장과 이만기 UA 중앙교육 평가이사의 진행으로 '수험생 클리닉' '수능 직전, 직후 학부모의 자세' 특강을 진행한다. (02)732-2187

봉은사도 8월 9~12일 송종건 맑은샘심리상담소장, 김윤희 경희대 교수, 이인수 한의학 박사를 초청해 '자녀의 마음을 읽는 대화법' '수험생의 스트레스 관리와 부모의 역할' '수험생의 바른 생활과 건강음식'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산사의 자연친화적인 생활문화에서 현대사회의 환경성 질환을 치유하는 지혜를 배우는 프로그램도 처음으로 시도된다. 불교환경연대와 생태지평, 공주갑사(주지 장곡)가 주관해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갑사에서 개최하는 아토피성 질환 예방과 치유를 위한 '아토피 Zero 산사학교'가 그 것.

산사학교는 어린이 스스로 질환을 치유하기 위한 생활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실천의 지혜를 준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도 한의학 건강검진, 건강음료·천연비누·치약 만들기, 천연염색, 유기농 식단 배우기, 아토피를 이기기 위한 실천법, 숲 체험 놀이 등 산사의 환경과 순응하는 생활문화를 치료제로 삼았다.

불교환경연대와 생태지평은 이번 산사학교를 전국의 산사로 확대, 아토피 Zero 산사치유센터를 설치할 계획도 세워둔 상태다. (02)338-9572

남원 실상사(주지 종고)와 서울 수효사 효림원의 건강강좌도 인기다.

실상사는 '내 몸 내 이웃을 내 손으로 치료하는' 지리산자연의학교실로 예방의학적 차원의 가족건강법을 전한다.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실상사 지리산교육원에서 열리는 이 강좌는 일상적인 병치료법과 응급처치법을 생활건강의 길을 제시한다. (063)636-3776

수효사 효림원(원장 무구)은 성훈 스님이 개발한 생활의학 '성훈 따주기 강좌'로 생활의 지혜를 전하고 있다. 9월 12일부터 3개월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체하거나 소화불량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 수효불교복지대학 수강생들과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02)313-5124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에 맞추어 불교계의 포교와 신행 전략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찰은 기존의 프로그램을 답습하는데 그치지 말고 보다 다양하고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지역분쟁·종교 과격주의 대응방안 모색

세계종교인평화회의 총회 25일 日 교토서… 한국선 22명 참가

세계 종교지도자들이 8월 25일 한자리에 모인다.

세계 100개국 종교지도자들이 지역분쟁과 종교 과격주의 등의 대처를 논의하는 '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 총회'가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일본 교토에서 열린다. 8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불교와 개신교는 물론 종교갈등이 계속돼온 이라크 이슬람교 시아파와 수니파 지도자, 레바논의 종교지도자들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회의 대주제는 '평화를 염원하는 종교: 폭력과 당당히 맞서고 인류 평화를 구현하자'이다. 이 대주제를 가지고 전체토의와 분임토의를 거쳐 선언문 형식의 문건을 발표하는 순으로 이번 대회는 진행된다.

3천여명의 전세계 종교지도자들이 참가할 이 대회에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백도웅 회장(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을 단장으로 조계종 사회부장 지원 스님,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 등 22명이 참석한다.

백도웅 회장은 "이라크, 레바논 등 중동지역에서 폭력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평화를 염원하는 종교지도자들의 일치된 목소리를 얼마나 크게 낼 수 있을지가 이번 총회의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10년 뒤인 제 10차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 위해 이번 대회기간중 대회본부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종교인평화회의 총회는 71년 교토에서 창립 총회를 가진 이후 5년마다 열리고 있으며 총회에서는 각국의 종교지도자들이 모여 중요한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한편 이번 총회기간중인 8월 24·25일에는 세계여성지도자 1백여명이 모여 '진실된 여성: 화합을 위한 행동'을 주제로 회의를 갖는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병술년 하안거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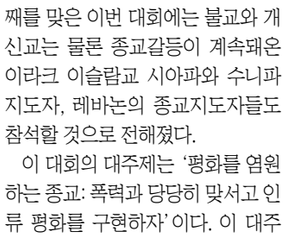
8일 전국선원서 법회

불기 2550년 병술년 하안거 해제 법회가 8월 8일(음력 7월 15일) 해인총림 해인사를 비롯해 조계종 5대 총림과 태고종 태고총림 선암사 등 전국의 선원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는 <병술년 하안거 선사방함록>을 통해 올해 하안거에는 전국 94개 선원, 총 2319명의 대중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비구선원은 해인총림선원 등 59곳과 비구니선원 견성암선원 등 35곳에서 큰방 대중 1,883명이, 외호 대중은 342명이 용맹정진을 마쳤다.

총림방장법어 4면

조용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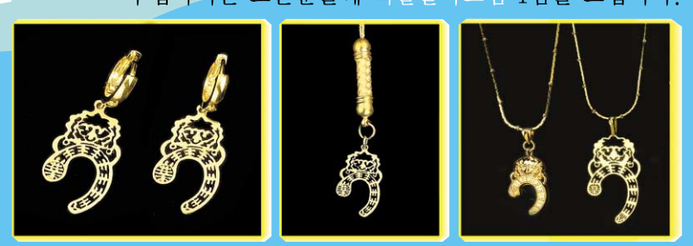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 스님
산문밖의 禪 17면
패션디자이너 이상봉씨
와이브로 시대 불교계는? 10면
선수행과 심리치료 18면



수능-100일, 간절한 모정불심

장마 이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기도 열기는 뜨겁기만 하다. 수학능력시험 100일기도가 8월 8일부터 시작됐다. 수능생을 둔 부모들이 사찰을 찾아 아들·딸의 사진을 앞에 놓고 108배를 하고, 염주를 돌리는 모정불심이 간절하다. **봉은사=고영배 기자**


달마의 氣
외출과 여행이 잦아지는 노출의 계절 여름!
그만큼 갖가지 나쁜 기운과 마주칠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제 달마의 기로 자칫 닥쳐올지 모를 나쁜 기운을 미리 예방하세요!
www.shmall.net
2006 베스트브랜드 인기상품!
名家인터내셔날
고객상담전화 1588-3278
수험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물!
행운충전
대리점 및 총판모집 1588-3278
무점포, 소자본으로 고소득 사업하실 분을 모습니다.
• 제조원 : 名家인터내셔날 • 판매원 : (주)S.H상사

예부터 병귀(病鬼)와 사귀(邪鬼)를 물리치는 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달마!
수맥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달마의 기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걸이와 귀고리, 핸드폰 고리를 몸에 지니는 순간 행운이 찾아옵니다.
(주)S.H상사 –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14 벽산미라지타워 410호
호국불교효예종 법진스님 외
여러종단 스님들께서 추천한 인기 상품!!
고객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하는 뜻으로 달마의 氣 14K를
구입하시는 모든분들께 백팔달마그림 1점을 드립니다.

귀고리 핸드폰줄 목걸이 (목걸이줄은 별매)

■ 조계종 종헌종법개정기초위원회의 '막판 화두' 풀기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이 '관건'

종책모임간 이견 조율이 관건…임시종회 무산땐 '헛고생'
사설사암법 등 10여 법안 개정도 임기내 처리해야

추대제냐 직선제냐를 놓고 뜨거운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 조계종 종헌종법개정기초위원회(위원장 향적 · 이하 기초위원회).

기초위원회 활동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종단 안팎의 관심사로 떠오른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이라는 화두 풀기에 진력하고 있다.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에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현재의 선거방식에 대한 종단적 회의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똑부러진 답'을 구하기도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이다.

조계종 13대 중앙종회는 기존의 종헌종법특위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종법개정에 걸림돌만 됐다는 지적에 따라 해체를 결의하고 3월 제170차 임시종회에서 기초위원회를 구성했었다. 총무원장 선거법 등 종헌종법개정의 쟁점사항들을 다뤄온 기초위원회가 5개월여 동안 활동을 계속해 왔지만 중앙종회 내 각 종책모임들의 입장차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13대 중앙종회가 10월로 임기를 마무리하게 됨에 따라 사설사암법(대체법안)처럼 일선 스님들의 수행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종헌종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7월 20일 열린 의원연수에서 3선인 종광 스님은 "밀린 종헌종법 개정마저 못한다면, 13대 종회는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것이 없다는 종도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헌종법 개정에 대한 현 중앙종회의 부담감이 적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간 11차례나 거듭된 회의과정에서 다뤄온 법안들에 대한 기초위원회 차원의 의견서 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초위원회는 7월 26~28일 마라톤회의를 통해 일부 쟁점법안들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의 개정안을 검토를 끝마쳤다. 지금까지 기초위원회가 검토를 마친 법안은 △중앙종회법 △종무원법 △지방종정법 △종립학교관리법 △총무원법 △총림법 △산중총회법 △교육법 △호계원법 개정안 등이다.

기초위원회는 이들 법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9월로 예정된 171차 임시종회에서 법안의 수정 및 폐지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일선 스님들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사설사암법 제정은 사설사암특위가 제출한 내용을 기초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지원과 관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승랍계산에 일부 불이익을 당해온 95년 이후 출가자들의 승려법 개정 청원은 원안을 일부 보완해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기초위원회의 실질적인 마지막 법안검토가 될 8월 10일 12차회에서는 △총무원장 선거법 △예산회계법 △법인관리법 △사찰부동산관리법 등을 다룰 예정. 특히, 총무원장 선거법은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상태에서 추대제와 직선제 두 안을 본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게 될 전망이다.

기초위원회 위원 덕문 스님은 "기초위원회 활동에 대한 관심이 총무원장선거법에 집중된 것이 사실"라면서도 "선거법외 나머지 종헌종법 개정안도 임기 내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종책모임들 간의 조정이 불발될 경우 171차 임시종회 자체가 무산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기초위원회의 종헌종법 개정과 관련한 행보가 '유종의 미'를 거둘지, 애만 쓰고 열매는 따지 못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용수 기자

은해사에 대학사회복지과정 개설

성덕대학과 협약, 본말사 스님 등 복지전문가 양성 '눈앞'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과 성덕대학 윤지현 학장은 8월 3일 사회복지학 특별과정 개설 협약에 조인했다.

영천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과 성덕대학 윤지현 학장은 8월 3일 은해사 보화루에서 불학협약 조인식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07학년도부터 2년 과정의 사회복지학과 특별과정이 은해사에 개설된다.

은해사교육관에서는 내년 3월부터 성덕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진의 출장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2년 과정의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면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 2급, 케어복지사 등의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실비노인요양원을 개관할 예정인 은해사는 이번 사회복지 특별과정 개설에 본말사 스님과 불자들이 많은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직장인들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성덕대학의 사회복지 전문과정을 이수할 수 있어 관심 있는 지역 스님과 신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글 · 사진=배지선 기자

"불안 조장하는 전쟁 용납 못해"

불교인권위, 양심수 석방 · 레바논 침공 규탄성명



불교인권위 소속 스님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규탄하며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7월 20일 출범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가 8월 1일, 광복 61주년을 앞두고 양심수 전원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성명서에서 "현재 양심수로 분류된 사람들은 900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사회권 확립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사회 화합과 분배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실현을 위해 양심수 전원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또 불교인권회위원 21명은 8월 2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방문해 김근태 대표와 강재섭 대표에게 각각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하고 불교인권위원회 활동의 지원을 요청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8월 3일 조계사 설법전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레바논 침략 규탄'과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인권위원회는 "어떤 이유와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수많은 생명을 해치고 전 인류를 불안케하는 전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스라엘은 레바논 침공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어 불교계 단체들을 비롯한 여타 20여개의 시민단체들도 이날 낮 12시 서울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레바논 침략' 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며 이스라엘 대사관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김주일 기자

동대 정관개정 협의체 구성
종회소위, 재단에 요청

동국대 운영실태 파악 및 정관개정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위원장 법안)는 8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른 정관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종립학교관리위원회와 학교법인 동국대 재단측과의 협의체 구성을 위해 재단측에 공문을 발송하기로 결정했다.

또 8월 18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3차 회의 때 재단측과의 협의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남동우기자

팔만대장경 · 禪 · 원효 등
'100대 민족문화상징'에

우리나라 100대 민족문화상징에 원효 스님, 석굴암, 선(禪), 미륵, 팔만대장경, 직지심체요절, 반가사유상, 서산마애삼존불 등이 선정됐다.

문화관광부는 "민족문화의 정수를 찾기 위해 100대 민족문화상징을 선정했다"고 7월 26일 발표했다. 이 중 역사상징 인물분야에 원효 스님이, 사찰분야에 석굴암이 선정됐다. 신앙 및 사고상징 불교분야에 선과 미륵이, 언어 및 예술상징 기록분야에 팔만대장경과 직지심체요절이, 미술분야에 반가사유상과 서산마애삼존불이 각각 뽑혔다.

남동우 기자

불교중앙박물관 문제 법정에

조계종, 당시 실무자 · 예성에드컴 등 고소

조계종이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 공사 의혹건과 관련된 당시 실무를 맡았던 재무부 책임자와 종무원, 예성에드컴 관계자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8월 2일자로 형사 고소했다.

이미 7월 중순 조계종이 법원을 통해 적정공사비 감정을 의뢰한 결과, 당초 공사계약금액인 62억원(부가세포함)에 한참 못 미치는 46억 5000만원으로 나옴에 따라 당초 공사 도급 금액과 기성금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이들 관련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고발대상은 당시 재무부장 'ㅂ' 스님 종무원 '김'모, '정'모씨, 예성에드컴 '임'모 대표, '권'모 前 대표, '김'모 상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건설산업법위반 입찰방해 업무방해 사기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조계종은 예성에드컴과 2004년 9월 조계종과 공사계약을 체결했지만, 그해 중앙종회에서 영담 스님이 입찰담합, 공사비 과다계약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혼란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최근 조계종은 공사재개를 위한 신규인테리어 업체 선정을 진행중이다.

이번 고소와 관련해 총무부 관계자는 8월 2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교계 언론이 종단을 상대로 비리를 저지르고 손해를 끼친자들의 주장을 여과없이 기사화함으로써 마치 그들의 비위행위를 정당한 것인 양 보도하는데 대해 유감"이라며 "공사를 재개하고 그동안 종단이 입었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소송과정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사실이나 관련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적인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이번 소송이 1차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조용수 기자

새터민 템플스테이 실시
천태종 성문사, 71명 참여

천태종이 원주 성문사는 새터민을 위한 3번째 템플스테이를 8월 2~3일 실시했다.

'제3회 새터민 템플스테이'는 나누며 하나되기운동본부 주관으로 새터민 71명이 참가한 가운데 1박 2일 일정으로 성문사와 원주 일원에서 무궁화 식수와 다도체험, 촛불기도 등 다양한 불교문화 체험으로 진행됐다.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스님은 입제식에서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이 당당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 불교 정신"이라며 "새터민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종단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성문사 주지 경혜 스님도 "사선을 넘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새터민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 한다"며 "이번 성문사 템플스테이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이 싹트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수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한국불교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 시	수 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율.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전형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출가 수행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체교육) 참조

나란다 삼장불학원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6년 8월 1일 부터 □ 입학일 : 9월 4일(월)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불교예술대학

□ 모집인원 : 약간명
□ 수업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7시
(수시 입학 가능)
□ 강의내용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요접바라
도량게작법, 다게작법
사방요신, 법고무
사물(북, 태징, 목탁 등) 다루는법
□ 지도교수 : 대혜스님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전화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

지상파 TV 3社 음식 프로그램

생명경시 "너무해"

보리방송모니터팀 조사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 노출 빈도 높아
교양 프로그램 본래의미 잃어 … 개선 시급

채널을 돌릴 때마다 어느 채널에선가는 요리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쏟아지고 있다. 요즘 넘쳐나는 음식관련 프로그램들. 사단법인 보리방송모니터팀이 신선한 먹거리라는 미명아래 많은 생명들이 식도락거리로 전락, 희생당하고 있다는데 주목했다.

최근 '생명생태 시각에서 본 음식문화 프로그램' 모니터를 발표한 방송모니터팀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하고 맛있게 보이기만 하면 어떤 생명을 어떤 방식으로 죽이든지 상관하지 않는 음식 프로그램이 비일비재하다"며 "음식의 재료가 되는 동식물이 단순히 인간의 먹거리가 아닌 또다른 생명체임을 자각하지 않는 방송 시각은 우리 사회에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생명체를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이 빈번하게 노출됨으로 인해 생명경시에 무감각해지는 것은 자신의 생명성 또한 죽게 만드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방송모니터팀은 KBS MBC SBS 지상파 3사의 교양 프로그램 121개를 대상으로 음식 관련 소재를 다루는 빈도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체 교양 프로그램의 24%인 29개 프로그램이 음식관련 소재를 다루고 있었다. 전문 음식 프로그램이 7개, 음식을 주로 다루는 교양 프로그램이 22개다. 방송사별로는 KBS2TV가 57%로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SBS 31%, MBC 28%가 뒤를 이었다.

교양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많은 음식관련 내용을 방영한 MBC '공감! 특별한 세상'은 방송 내용의 63%가 음식관련. 이 가운데 살생장면만 10번 이상을 담고 있어 폐지돼야 할 프로그램 1순위라고 방송모니터팀은 밝혔다.

MBC '생방송 화제집중' 9회, SBS '웰빙! 맛사냥' 8회 등이 살생장면을 많이 담은 프로그램으로 드러났다.

한 회에 수차례의 살생장면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살생장면 노출 빈도수는 위의 수치보다 훨씬 높았다.

끓는 물 속에서 몸부림치는 갑오징어(KBS2TV '무한지대 큐'), 악어껍질 벗기기(KBS2TV '놀라운 아시아'), 산 가물치 반으로 가르기(KBS2TV 'VJ특공대'), 자라 등껍질 열고 다른 재료 넣기(MBC '찾아라 맛있는 TV'), 살아있는 철갑상어 척수 빼내기(MBC '생방송 화제집중'), 칼로 코브라 심장 도려내기(MBC '공감 특별한 세상'), 몸통만 남아 요동치는 갯장어(SBS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등 요리 과정에서 잔인하고 희화된 살생 장면들이 여러 차례 방송됐다.

방송모니터팀은 "KBS '무한지대 큐'를 비롯한 대다수 교양 프로그램들이 30% 이상을 음식관련 내용으로 채우고 있어 '교양'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의 통계는 월드컵과 관련하여 교양 프로그램이 3주이상 파행운영됨으로써 평균적인 수치보다 낮게 나왔음을 감안할 때, 평소 교양 프로그램의 절반 정도가 음식관련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단법인 보리는 "교양 프로그램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관련 프로그램들은 양적으로 줄어야 한다"며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모두 공유해 지상파 교양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음식이 곧 '생명'이라는 겸허한 음식문화가 우리사회에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결론맺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목탁소리

화장실은 어디에

7월 30일 해남 대흥사가 위치한 두륜산 도립공원. 4천명 정도의 대 인파가 더위를 피해 두륜산 계곡을 찾았다. 이들은 모두 2500원의 문화재관람료를 내고 두륜산에 입장한 관람객들이다. 대흥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계곡에 인파가 넘쳐도 화장실이나 식수대 같은 기본적인 시설을 찾을 수가 없었다. 화장실을 가려면 대흥사 주차장까지 30~40분을 걸어가야 한다.

가족과 함께 놀러왔다는 임경활씨는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40분 이나 걸렸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에, 그것도 관람료까지 받으면서 편의시설조차 갖춰놓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흥사에 이같은 상황을 알고 있느냐고 문의하자 대흥사 한 관계자는 "문화재관람료는 그런 시설과는 관련이 없지만, 관리 공단 측과 협의해 간이화장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피서철이다. 풍광이 뛰어난 계곡에는 으레 사찰이 자리잡고 있다. 사찰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텐데도 일부 행락객들의 무분별한 행위에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진다. 두륜산 계곡에서도 고기를 구워먹는 사람이 많았다. 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가 그들에게 '경고'를 했지만 듣는둥 마는둥 했다.

행락객들의 이러한 행위가 사찰에 직접적인 거부감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찰을 참배하려는 사람들은 이곳을 지나게 돼 행락객들의 무질서한 행위에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다. 사찰과 공원 측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마련해 주고, 조금더 적극적인 자세로 행락질서를 바로 잡는다면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는 장소로 거듭나지 않을까. 고영배 기자



조계사 선재법등 주최로 7월 31일 어린이 국악체험 법회가 열렸다.

조계사 선재법등 어린이 국악법회 열어

조계사 선재법등(회장 최미)은 어린이불자들을 위한 국악체험 행사를 7월 31일 서울 메이필드호텔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법회는 국악을 통한 우리문화 체험한마당으로 학부모와 함께하며 어린이포교의 새로운 형식으로, 오느름민족음악관현악단의 연주와 소리꾼 박애리씨의 협연으로 우리소리의 멋과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됐다.

또 이날 어린이들은 스님들과 선생님, 엄마와 함께 찬불가 동요 등을 따라 부르며 사찰 법회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문화체험을 통해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글 · 사진=조용수 기자

'세종대왕 일대기' 무료배포 미주 금강경독송회

올해 초 '이순신 장군 일대기'를 소개하는 영문판 책자를 제작, 미국 전역에 무료보급해 호평을 받았던 미주 '금강경독송회'가 이번에는 세종대왕 일대기를 제작해 무료보급한다.

'미주 금강경독송회'는 8월 말까지 영문판과 불어판으로 '세종대왕 일대기'를 제작해 보급하고, 추후 독어 · 이태리어 · 중국어판도 제작할 계획이다. 배포처는 미국 상 · 하원과 교육부를 비롯해 미국 전역의 대학과 고등학교다. 한명우 기자

청소년판 '달마야 놀자'

완주 송광사, 비행소년 대상 템플스테이
사찰 예절 배우며 자유롭게 '심성 순화'
"흥미롭고 모든 것 새롭게 느껴져"

8월 1일부터 3일까지 완주 송광사(주지 도영)에서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전국 최초로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템플스테이가 열린 것이다.

청소년판 '달마야 놀자'는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노청한)가 법원에서 수강명령이 내려진 12명의 청소년 수강명령대상자를 위해 마련한 특별 심성순화 체험프로그램이다.

질풍노도의 시기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심신을 맑게 하고 자아 성찰의 계기를 갖기 위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이색 체험행사였던 것이다.

템플스테이는 꽉 짜여진 프로그램이 아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진행됐다. 억압적인 분위기를 싫어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기본'은 배워야 했다.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던 우성 스님으로부터 사찰예절을 간단히 배운 후 곧바로 발우공양 습의를 시작했다. 이후 저녁예불과 부처님 이야기, 마음나누기, 경전공부 등이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라모군(17세)은 "TV나 영화에서만 보았던 산사체험 교육에 직접 참가하고 나니 매우 흥미롭고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진다"며 "앞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생활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박모양(18세)도 "산사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처음엔 다소 경직되고 딱딱할 줄만 알았는데 막상 마치고 나니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다는 생각이 든다"고 소감을 말했다.

우성 스님은 "참가자들이 강제로 프로그램에 참가한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싫어하는 표정이 역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해지는 모습을 봤다"며 "짧은 일정이었지만 산사에서의 수행과 성찰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참다운 나를 찾음으로써 재비행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김경복 전주보호관찰소 집행팀장은 "수강명령 집행방식의 주입식 교육보다는 다양한 체험교육을 늘려 개인의 자아성찰과 정서순화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19기 불교귀농학교

귀농과 도시에서의 자연친화 생활을 위해 열고 있는 불교귀농학교가 열아홉번째 신입생을 모집한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더불어 사는 삶, 조화로운 사회, 생명을 살리는 농업'을 주제로 8월 29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화 · 금요일 19기 불교귀농학교를 진행한다.

서울 양재동 인드라망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 불교귀농학교는 이론과 텃밭 실습, 남원 실상사 지역공동체 현장실습 등 다양하게 진행된다. 이병철 귀농운동본부장, 도법 스님, 장창호 · 최석민 농부 등이 강단에 오른다. (02)576-1886 박봉영 기자

열린선원 여름불교학교

서울 열린선원(주지 법현)이 8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린선원 및 서오능 일대에서 제2회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했다.

여름불교학교에서는 부처님 말씀 듣기, 부처님 노래 부르기, 컵등 만들기, 부처님 그리기, 엄마와 함께 하는 요가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주지 법현 스님은 "어린이들에게 불교문화와 정서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했다"고 개최 의의를 밝혔다. 남동우 기자

은평구사원련 · 인덕원, 수해현장서 봉사

'수재민에게 희망을' 나누는 불교계의 온정에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와 사회복지법인 인덕원도 힘을 실었다.

은평구사원련과 인덕원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수해현장을 찾아 7월 2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또 평창지역에서 수해복구대책위원회를 꾸려 조직적으로 대민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에게 2000만원과 250만원 상당의 선풍기 50대를 전달했다.

인덕원 대표이사 성운 스님(삼천사 주지)과 은평구 사암련 소속 스님, 15개 산하시설 시설장 및 직원으로 구성된 봉사자들은 수재민들의 가재도구 정리와 농지복구, 하수도 정비 등에 구슬땀을 흘렸다. 복귀할 때에는 복구장비 일체를 수재민들에게 기증했다.

한편 인덕원은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집중호우로 영락중학교 석축이 붕괴돼 피해를 입은 서울 응암동 수재민들에게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점심과 저녁식사를 제공했다.

박봉영 기자

문화유산 공로자 포상
문화재청 14일 추천 마감

정부가 문화유산 보존 · 관리 · 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이들에게 '문화유산보호서훈'과 '대한민국 문화유산상'을 수여한다.

문화재청은 8월 14일까지 '문화유산보호서훈'과 '대한민국문화유산상' 후보자 또는 단체, 기관을 추천받아 각 5명씩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상은 보존 · 관리, 학술 · 연구, 봉사 · 활용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선정된다.

문화유산보호서훈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 15년 이상, 표창 5년 이상의 수공실적이 있어야 하며, 문화유산상도 5년 이상의 실적이 필요하다.

수상자는 10월 중순께 선정 · 개별통지되며, 시상식 문화유산헌장 공포일인 12월 8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042)481-4811~2, www.cha.go.kr

노병철 기자

윤년 윤달의 효도 선물 대광[금물]수의로 하세요

(상표출원번호 0039174)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02)747-1760

전화✓주시면 희망 상품 삼베 견본을 보내드립니다. 미리 확인하세요!

견본과 상품이 다를 경우 100% 교환 환불 해드립니다.

- 상품은 온라인 입금 후 원하시는 일자에 배송시켜 드립니다
- 홈쇼핑이나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어떠한 상품과도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우수한 품질의 삼배로 한땀한땀 정성드려 만들었습니다.
- 상품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한국의류시험연구원(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원단 성분분석표를 첨부해드립니다.
- 모든 상품은 오동나무상자에 포장해드립니다.

수의 가격표

상품호칭	제작방법	재질(성분)	원단가공손질	원사생산	판매가격(25%할인가)
안동포	수제직	대마(삼베) 100%	천연가공 경북 안동	경북안동	3,800,000
1호	수제직	대마(삼베) 100%	천연가공 경북 안동	중국(산동)	1,250,000
2호	수제직	대마(삼베) 100%	경남 남해	중국(사천)	835,000
3호	수제직	대마(삼베) 100%	중국	중국	475,000



수의제품 품질보증업체
2002년 한국의류 시험 연구원
Q마크 획득





세시풍속〈歲時風俗〉

윤달(閏月)은 재액없이 무난하게 여기고 모든일을 거리낌없이 하는 풍속이 내려오고 있다. 특히 일년중에 한달이 덤으로 있는 윤달에는 손재 등이 없는 기간으로 모든일에 부정을 타거나 액이 끼이지 않는 달로 인식되어 왔고, 그래서 평소에 꺼려하던 이장(조상의 묘를 옮기는 일), 집을 헐고 새로 짓는 일 등을 윤달에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예이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집안어른의 수의를 마련해두면 집안어른이 무병장수하고 자손도 번창한다는 세시풍습이 있다.
그 뜻을 미루어 짐작컨데, 수의를 마련함으로 자손들은 여생이 얼마남지 않으신 집안어른을 더욱 공경하고 효심으로 받드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며 집안어른은 죽음을 다스리고 대비하면서 여생에 대한 진한 삶을 살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라 여겨집니다.

대광 금물 수의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19 광장시장(1층) TEL : 02)2279-7450, 02)2275-8075, 02)747-1761 / FAX : 02)2272-6715

앞으로 가려면 한바탕 가시밭이라

조계종 종정 · 해인총림 방장

법전 스님



안휘성(安徽省) 지주(池州) 노조산(魯祖山) 보운(寶雲) 선사는 평상시에 납자가 오기만 하면 얼른 벽을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그러자 그 납자는 바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남전보원(南泉普願) 선사가 이 말을 전해 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상시에 수행자들에게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기 이전의 경지에서 알아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납자는 아직도 한 개는커녕 반 개도 얻지 못했구나. 그래서야 나귀 해(驢年)가 되어야 한 개나 반 개를 얻으리라."

노조보운 선사는 무릇 납자들이 오기만 하면 문득 벽을 향해 앉았으나, 이는 달마가 9년 동안 앉았던 이후로는 아무도 이 영(令)을 다시 시행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조 선사가 제방에서 부처와 조사를 묻는 선지식들로 하여금 아픔과 가려움을 느낄 줄 알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이었습니다. 남전과 노조는 마조의 제자로 사형사제간입니다. 사람들이 바늘과 송곳으로 노조를 찔러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남전이 한 마디 보탠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의 지나친 도도함을 꾸짖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를 칭찬하면서 마주보고 몽땅 내어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아무리 말로 충분하게 설명한다고 해도 어찌 한 차례 직접 가보는 것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산(靈山)은 달을 그린 것과 같고 조계산(曹溪山)은 달을 가리킨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달마의 면벽과 노조의 면벽은 면벽 그대로가 바로 법문입니다. 달리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노조 선사가 납자들이 찾아오기만 하면 벽을 향해 앉았고 역시 남전이 와도 벽을 향해 앉았습니다. 대부분의 납승은 말없이 그냥 돌아갔지만 남전은 이에 대하여 한 마디 던진 것입니다. 남전 선사는 알맞은 시기를 잘 식별하고 길흉을 잘 알아차리기는 했지만 사실 노조 선사의 속뜻은 몰랐다고 할 것입니다.

하긴 금을 팔려고 한다면 금 사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선사는 납자가 오기만 하면 왜 꼭 벽을 향해 돌아앉은 것이겠습니까? 앉아있는 것이 선이겠습니까? 벽을 향한 것이 도이겠습니까? 돌아앉는 것이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들을 위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이 납자를 제접한 것입니까? 납자를 제접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현사사비(玄沙師備) 선사는 이렇게 착어(着語)를 하였습니다.

"만약 그 때 내가 남전 선사를 보았다면 등짝에다가 뜸 다섯 장을 떠주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이 노조의 면벽과 같은 도리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도리이겠습니까. 만일 이를 제대로 알아차린 납자가 이 해제대중 속에 있다면 산승은 그 납승에게 "그대의 불법이 갈 곳이 있다"고 허락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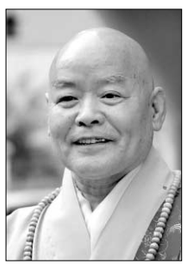
병술년 하안거 해제대중은 만약 그 뜻을 아직까지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절대로 귀신 굴속에서 알음알이로 헤아리지 말 것이며, 만행길에도 걸망 속에 꼭꼭 집어넣고 다니면서 참구하시길 바랍니다.

노조가 벽을 향함은 통하지 않는 소식이거늘(魯祖面壁不通消息이니)
발을 옮겨 앞으로 가려면 한 바탕 가시밭이라(移步進前一林荊棘이라).

한줄기 법비 중생계 적시도다

태고종 종정 · 선암사 방장

혜초 스님



다리위에 서서 흘러가는 물을 내려다보면 옛사람의 말처럼 물이 흘러가는지 물은 가만히 있고 다리위에 서있는 내가 흘러가는지를 분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인지 시간위에 서있는 내가 흘러가는 것인지 가름할 수 없습니다.

결제(結制)를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해제(解制)일이 되었습니다. 해제일이 되면 견(見), 문(聞), 의(疑), 삼사(三事)를 가지고 자자건도를 하는 날입니다. 총림대중은 그동안 공부한 것을 앞에 내놓아보시오 도(道)를 공부하는 사람이 결제 해제가 따로 있겠습니까. 불교의 요체(要諦)는 수행을 통하여 지혜를 증장(增長)하고 지혜의 힘으로 중생을 요익(饒益)케 하는 것입니다.

협산선회(夾山善會) 선사는 화정(花亭) 선사의 문하에 들어가 그 법을 잇고 협산에 들어가 밭을 일구며 수행하다가 깨달음을 얻은 중국의 고승입니다. 하루는 어떤 수행자가 협산선사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사문(沙門)이 해야 할 행(行)입니까?" 이때 선사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생기고(動則生影), 깨달으면 병이 생긴다.(覺則生病)"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동산양개 선사는 중국 회계(會稽) 사람으로 위산영우 선사의 뜻을 받들어 운암담성의 제자가 된 선승입니다. 어느날 한 스님이 동산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추위나 더위가 오면 어떻게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선사가 대답하였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면 되겠지." 그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자 선사가 대답하였습니다. "추울 때는 추위에 뛰어들고, 더울 때는 더위에 뛰어드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양선사의 번득이는 선기(禪機)와 수행자의 행이 어때야 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중략)

땅에 꽃씨를 뿌리는 것처럼 중생의 복밭에 부처의 선근종자를 뿌리는 일이야말로 수행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 해제 기간에는 폐허 속에서 연꽃을 피게하는 구도자(求道者)의 정성으로 수재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행화(行化)의 덕을 베푸는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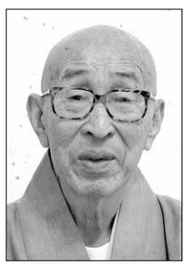
세상이 흘러흘러 나도 또한 흘러가니
스스로의 헛웃음 소리에 천지가 놀라네
사해의 향기로운 바람 이로부터 일어나서
한줄기 법비가 중생계를 적시는 도다.

世間遷流我亦流 自笑一聲天地驚
(세간천류아역류 자소일성천지경)
四海香風從此起 法雨普潤周沙界
(사해향풍종차지 법우보윤주사계)

매순간 깨달음 끊어짐이 없구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



誰知別有好思量 百十由旬一念收
(수지별유호사량 백십유순일념수)
좋은 사량 따로 있음을 그 누가 아랴 순식간에 백십유순 걷어 들이니
宿障舊殃湯沃雪 無限人天一味同
(숙장구앙탕옥설 무한인천일미동)
숙세의 그 업장을 눈같이 녹여서 끝없는 인천이 한 맛을 맛본다.
有無坐斷露眞常 一點孤明若太陽
(유무좌단로진상 일점고명약태양)
유무를 끝는 진상은 드러나서 한점의 빛나는 태양 같아라
廣場自有淸溪舌 何必嘖嘖更擧揚
(광장자유청계설 하필남남갱거양)
맑은 냇물 그대로 광장설이니 내 굳이 도에 대해 무얼 설하랴

問, 如何是眞佛眞法眞道, 乞垂開示
질문, "어떤 것이 진실된 부처, 진실된 법, 진실된 도입니까? 간절히 부탁드리오니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師云 임제 스님이 대답했다.
道者處處無礙淨光是
부처란 우리들 마음이 청정한 것이며, 법이란 우리들 마음이 지혜의 광명인 것이며, 도란 어떠한 곳에도 걸리지 않는 깨끗한 빛인 것이다. 어떠한 곳에도 걸리지 않는 깨끗한 빛인 것이다.

三卽一, 皆是空名, 而無實有.
불법도 이 셋은 바로 하나이고 모두 헛된 이름에 불과하며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如眞正學道人, 念念心佛問斷.
진정한 수행자라면 한 순간 한 순간도 마음에 깨달음의 작용이 끊어짐이 없다.
自達摩大師從西土來, 祇是覓箇不受人惑底人.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온 이래로 단지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은 사람을 찾았던 것이다.
後遇二祖, 一言便了, 始知從前虛用功夫.
뒤에 비로소 이조 혜가를 찾았을 때, 달마의 한마디에 홀연히 깨닫고, 비로소 지금까지 헛되이 공부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山僧今日見處, 與祖佛不別.
지금 산승이 설하는 불법의 견해도 조사나 부처의 지혜 작용과 다르지 않다.
若第一句中得, 與祖佛爲師.
만약 처음 한 마디(第一句)에서 깨달으면 조사나 부처의 스승이 된다.
若第二句中得, 與人天爲師.
만약 두번째 말(第二句)에 깨달으면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된다.
若第三句中得, 自求不了.
만약 세번째 말(第三句)에 깨달으면 자신도 구제하지 못할 것이다.

8월 3일 현재 발표된 해제법어입니다.
전문과 이후 나오는 총림의 법어는 buddhanews.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함양 벽송사, 禪會 전통 복원

"부처님께서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한 것(三處傳心)이 선지(禪旨)가 되고, 평생 말씀하신 것이 교문(敎門)이 되었다. 그러므로 선(禪)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敎)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말 없음으로써 말 없는 데 이르는 것은 선이요, 말로써 말 없는 데 이르는 것은 교다. 또한 마음은 선법이요 말은 교법이다. 법은 비록 한맛이라도 뜻은 하늘과 땅만큼 아득히 떨어진 것이다" <선가귀감>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조직해 누란의 위기에서 백성을 구했던 청허당 휴정 스님은 대중이 불교의 참 뜻을 모르고 헤매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선과 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1564년 <선가귀감>을 저술했다.

이런 휴정선사의 "선시불심 교시불어(禪是佛心 敎是佛語)"라는 선교겸수의 전통이 경남 함양 마천면 벽송사 벽송선원에서 500년 만에 되살아날 전망이다. 벽송사가 근래 한국불교에서 사라졌던 '선회(禪會)'를 9월 8~18일 산철 결제 기간 동안 복원하는 것.

선회는 안거가 끝난 산철결제 기간 동안에도 실참을 병행하면서 교학 강의와 논강으로 선과 교를 닦는 오랜 전통. 그러나 불립문자(不立文字), 사교입선(捨敎入禪)이 강조되면서 해방이후 한국 선원에서는 거의 사라졌다.

최근 들어 선사들의 간화선 법회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선을 주제로 강의와 논강이 함께 이뤄지는 것은 벽송선원이 유일하다.

9월 8일부터 10일간
강의 · 논강 · 선수행으로 진행

'선회'의 하루 일과는 새벽 3~5시, 오후 5~9시 잠들기 전까지도 입선에 들어 실참을 구하고, 오전 8~10시 두 시간은 강의, 오후 2~4시 논강을 벌인다. 선주(禪主)인 월암 스님이 강사를 맡아 중국 황벽선사의 <전심법요(傳心法要)>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논강은 월암 스님이 저술한 간화선 지침서인 <간화정로>를 교재로 사용한다. 선회 마지막 날에는 '간화선과 현대포교 방법론'을 주제로 안국선원 수불 스님의 특강도 진행된다.

지리산 자락의 벽송산 벽송사는 벽송지엄(碧松智嚴 · 1464~1534) 스님이 창건한 선 · 교의 중심사찰로 태고보우-환암혼수-귀곡각운-벽계정심-벽송지엄-부용영관-청허휴정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의 간화선맥을 이어왔다. 이번 병술년 하안거에는 월암 스님을 비롯해 10명의 스님이 방부를 들였고, 동국대 선학과 교수 법산 스님도 결제대중으로 정진했다.

월암 스님은 "벽송사는 조선불교에서 보기 드물게 환성지안(1664 ~1729) 선사에 의해 선원과 강원이 한곳에 존재 있던 곳으로 혜화전문 교장을 지냈던 초월동조 선사까지 약 300년간 선교겸수의 전통이 이어져 온 곳"이라고 말하고 "하안거 해제 직후 비구스님 30명 비구니스님 30명이 이미 방부를 들였다"고 밝혔다.

(055)962-5661 조용수 기자

선 계 문

대한불교 원효종 종도(승려)들에게 고함.

1. 본인 김대관은 2005. 12. 14. 대한불교 원효종 임시종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하여 선임되었습니다.

2. 본인은 임시종정으로 취임하여 총무원장 서리, 총무원 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 등을 임명하고 종헌과 종법에 따라 종회의원 선거를 시행할 것을 임직원들에게 지시하였고, 2006. 3. 27. 종회의원선거가 종헌과 종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3. 그러나 2006. 6. 12. 종회의원들 중에는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이 있다고 하는 해괴한 문서가 나돌아 본인은 종회의원 선거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가) 본인이 검토하여 본 바 첫째로 종헌 제2장 종도(승려)에 관한 규정과 종회법 제2조에 의하여, 중앙종도회 회장(승려회장)과 총무원장이 각 교구에 배정할 종회의원정수를 합의하여, 임시종정의 결정을 받아야 하고, 둘째로 중앙종도 회장은 대한불교 원효종 종도회법에 의하여 총무원장의 추천으로 종정이 임명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종도회장에 대하여 종정의 임명을 받지 않고 각 교구에 대한 종회의원 정수를 배정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나) 종헌 제64조에 본종은 서울특별시, 부산, 대구, 인천 및 각 도에 교구 종무원을 둔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15개 교구를 설치하고, 21명의 종회의원을 선출하도록 배정한 다음, 15명의 의원만 선출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다) 종회의원도 수 명이 위조서류에 의하여 선출된 것이 밝혀졌으므로, 본인은 2006. 6. 22. 총무원장에게 종회의원선거에 관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인지 2006. 7. 15.까지 제출하겠다고 하고 금일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은, 2006. 3.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종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고 공고한 종회의원 15명 모두가, 그 선출과정이 위와 같이 종헌 제2장의 종도에 관한 규정, 종헌 제12장 교구 종무원에 관한 규정, 종회법 제2조 규정 등에 위반되었으므로 그 당선이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따라서 그 무효인 종회의원으로 구성된 종회에서 2006. 4. 4. 선출한 종단임원의 선출은 모두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5. 본인이 종회의원 선거를 위하여 임명했던 종단임원에게 위와 같은 실책이 있으므로 그 책임을 물어 다음과 같이 각 그 직에서 해임을 합니다.

(가) 종령 2005-2 종정의 임원에 대한 서리임명규정 제4조 2항에 의하여 종회의원 선거를 위하여 임명한 총무원장서리를 해임한다.
(나) 종령 2006-1 종회법 시행규칙 제5조 2항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 5명 모두를 해임한다.
(다) 전시한 바와 같이 위 각 교구종무원의 설치가 종헌 제64조에 위반하여 설치되었으므로 위 각 교구 설치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따라서 그 교구에 따라 임명된 각 교구종무원장 임명도 종헌 제64조에 위반되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6. 본종의 종도들은 이 선계문의 숙지하고, 차후 종헌종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종헌종법에 따른 임시종정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일이 없도록 명심하시고 종단화합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7. 이 선계문 반포이전의 종헌종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종단 재조직에 적극 협력하는 종도(승려)들에 대하여서는 지난날의 잘못에 대하여 문책하지 않겠으나, 이후 종헌종법을 위반하고 종헌종법에 따른 임시종정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종헌종법과 국법에 따라 엄중히 문책할 것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선계문을 보면 현재 종단의 임원이 모두 해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므로 개별 해임통지는 생략합니다.)

2006. 8. 8.

대한불교 원효종 임시종정 벽송 김대관

공 고

1. 대한불교 원효종 임시종정에 의하여, 새로이 종정이 선출되지 않은 이상 합법적인 종정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원이 선임한 임시종정 뿐이므로, 종도(승려)들은 종단분규를 조장하여 사욕을 채우려는 자들의 감언에 현혹되어 본의 아닌 해종행위를 하지 않기 바라며, 앞으로 종단 재조직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한불교 원효종에서 1989. 6.9 이후 종단분규로 인하여 징계 또는 탈종한 종도(승려)들은 소속사암 등록 신청을 하고, 종부(승적부)에 입적신고를 하면 지난날의 일들은 묻지 않고, 사암을 등록하고 종부에 입적한 다음 승려증을 발급하겠습니다.

3. 현재 종부(승적부)에 입적되어 있는 종도(승려)들도 승려증 발행자의 대표권이 상실 되었으므로 2006. 8. 30. 까지 사암등록신청과 승려증 발급신청을 하면 승려증과 사암등록증을 재발급 하겠습니다.

4. 현재 분파되어있는 여타단체와 사암들 또는 신규가입을 원하는 사암이나 승려 등은 2006. 8. 30. 까지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긍정적으로 포용할 것입니다.

5. 본 종단의 안정과 재건을 위해 종회의 의원직에 뜻을 가지고 헌신하여 주실 종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종회의원직의 입후보와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02) 735-0503
대한불교 원효종 사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X. 02)735-0506

2006. 8. 8.

대한불교 원효종 임시종정 벽송 김대관

현장 전문가가쓰는 부산불교 이야기

‘나’ 에서 ‘우리’ 로…동참의식 높이자

⑤ 200만 부산불자 결집력은?



박재훈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사무차장

흔히들 부산을 ‘불교제1 도시’라고 부른다. 하지만 ‘불교제1 도시’에 걸맞는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는 선뜻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다.

몇 해 전이던가, 타종교에서 부활절 집회를 부산의 상징인 사직동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개최한 적이 있다.

5만4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운동장에 2만5천명 정도가 모여 조금은 썰렁한 행사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때 몇몇 불자들은 인원도 다 못 채울 것을 무엇 하러 이곳에서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타종교의 집회를 비아냥거렸다.

5월 부처님오신날 부산역 광장에서 열리는 봉축행사에는 매년 1만여명 정도의 불자가 동참하고 있다. 200만 부산불자 중에서 고작 0.5%만이 동참하는 셈이다.

부산에는 1700여 대 소 사찰 및 암자, 포교당이 있다. 이들 사암에서 10명씩만 동참한다고 해도 1만7천여명이라는 인원이 되니, 1만명이라는 동참숫자는 참담한 숫자라 하겠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우선은 스님을 비롯한 우리 불자 개개인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피동적인 사고에서 ‘나 하나부터’라는 적극적인 동참의식이 필요하다.

물질적인 동참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우선 행사에 직접 동참하는 적극적인 불자상이 요구된다. 이러한 적극성을 회복할 때 비로소 부산불교의 진정한 위상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우리 부산불교계의 안타까운 현실은 개별적인 역량을 하나로 통합하지 못하고 따로 따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200만 부산불교신도를 대표한다는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에서는 불교회관 건립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고, 시청 옆에는부산불교회관이 들어서 있으며 인근의 양정에는 불교회관이 십여 년 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또 부산불교실업인회에서는 서면 부전동에 실업인회 자체 회관을 마련하여 불교병원 건립 등의 미래 계획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모 불교대학에서는 강의 공간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건물매입에 나서고 있다.

저마다 역할이나 목적은 뚜렷하게 차별성이 있겠지만 왜 이러한 불사들이 따로따로 행해져야만 하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분리해서 보면 수십 억 짜리 개별불사에 불과하겠지만 이들 불사가 목적을 공유하고 힘을 합친다면 수백 억 짜리 대작불사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대작불사가 200만 부산불자와 함께 원만히 회향될 때 비로소 불교도시 부산의 이름에 걸맞는 진정한 불교회관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불교도시’ 명성에 비해 행사 참여도 낮아 개별적 역량 한데 모아 시너지 효과 내야 상시적인 출·재가 교류 창구 확보 급선무



부산불자들이 불교행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때 불교 제일 도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올해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장면.

불교와 관련한 모든 것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그 시너지효과 또한 클 것은 뻔한 일이다. 물론 각 단체나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와 의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러한 일이 실현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산불교를 대표하는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스님들을 중심으로 명분을 쌓고 서로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며 200만 부산불자들이 적극 동참한다면 이러한 시도가 결코 공염불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는 스님들의 단체이다. 종파를 구분하지 않는 스님들의 연합체가 불교연합회인 것이다. 이 같은 연합체는 서울의 한국불교종단협의회를 제외하고는 전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매우 고무적인 기구이다.

하지만 재가와의 협력이나 유대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상시적인 출·재가의 교류창구 확보가 급선무다. 회원규정을 세분화하여 정회원인 스님들과 준회원 혹은 특별회원으로 재가 신행단체장이나 직능단체 대표를 영입하여 부산불교 전반에 관한 의견을 연합회에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

이렇게 될 때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가 명실상부한 부산의 대표적 불교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 동안의 세월이 부산불교의 뼈대를 형성하는 기초공사의 시기였다면 연합회의 법인화를 계기로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가 부산불교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제2의 창립을 준비해야 한다.

부산의 대표적인 신도조직인 부산불교신도회 역시 내실을 다지고 화합에 치중하여 각 종단이나 사찰의 신도회가 모두 동참하는 명실상부한 200만 부산불자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다종교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이 사회는 우리 불교에게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산사를 찾는 대중을 대상으로 교화하고 포교하던 정적인 불교에서 대중 곁으로 한발 한발 다가서는 적극적인 불교로의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자비실천을 근본으로 하는 부처님 가르침이야 시공을 초월하여 만유불변의 진리로 남겠지만 포교와 교화의 방편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 동적으로 변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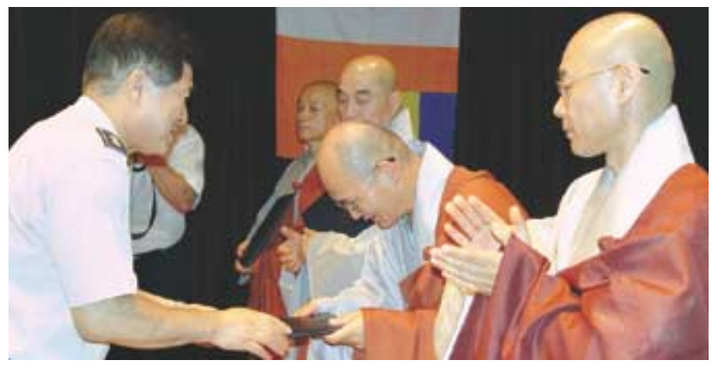
우리 부산불교는 2002년 동아시아 경기대회 당시 각 종단과 사찰이 적극 나서서 시민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성공적인 대회개최에 일조하고 이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대사회 참여에도 남다른 저력을 보여주었다.

예부터 우리민족은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피폐해지면 더더욱 부처님을 찾고 가르침에 의지하곤 하였다. IMF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은 계속해서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지만 사찰을 찾는 불자들의 한결같이 돈독한 불심을 보면서 부산불교의 희망찬 미래를 발견할 수 있다.

따로 따로 개개인은 너무도 훌륭한 우리 부산불자이지만 이 힘들을 한 데 모으는 것에는 무엇인가 많은 부족함이 느껴진다.

나, 나의 가족, 나의 사찰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소극적 불교사랑에서 벗어나 너, 우리 이웃, 나아가 사회와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동참하는 적극적인 불교사랑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 부산 불교의 저력을 밑기에 내년 부처님오신날에는 200만 불자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부산역 광장이 인파로 넘쳐나고 교통이 마비되어 온 시민의 욕(?)을 한몸에 받아 먹는 즐거운 상상을 해 보면서 불자들의 폭넓은 불교사랑을 기대해 본다.



대성 스님을 비롯한 스님 9명이 부산경찰청 경승에 7월 27일 위촉돼 경찰포교 활동에 들어갔다.

부산경찰청 경승 9명 위촉

단장에 대성 스님, 정기법회도 봉행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강희락)은 7월 27일 대강당에서 부산지방경찰청 경승 위촉식과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범어사 주지 대성, 삼광사 주지 영제, 선암사 주지 원범, 혜원정사 주지 원허, 해동용궁사 주지 정암, 구례 천은사 주지 금종스님 등 9명을 경승으로 위촉했다.

부산경찰청 강희락 청장은 “경찰의 힘만으로 부산시민의 안녕을 지켜낼 수는 없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 여러분과 시민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살기 좋은 부산, 불국정토 부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승단장 대성스님은 법어를 통해 “교만하지도 좌절하지도 않는 진실한 내 안의 빛을 찾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했다.

이은아 기자

먼거리 학생 위한 고시원으로 천불정사 건물 부산大에 대여



부산 천불정사(주지 고담)는 부산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천불정사 소유 건물을 부산대학교에 10년간 무상 대여키로 하고 7월 31일 부산대학교 학장회의실에서 협약 조인식을 가졌다(사진).

부산대학교 인근에 자리한 천불정사 소유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은 조인식 이후 시설 개보수를 통해 고시원으로 사용될 계획이며, 원거리 통학 등 어려운 환경에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20여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예정이다.

김인세 부산대학교 총장은 이날 조인식에서 “스님과 불자님들의 뜻을 이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불정사 주지 고담스님도 “힘든 환경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뤄내는 학생들에게 이작은 건물이 단단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온실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은아 기자

관음원 무량수요양원 개원

사회복지법인 관음원(대표이사 선래스님)은 중풍, 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노인요양시설 무량수요양원을 7월 14일 개원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산 자락에 위치한 무량수요양원은 대지 600여 평에 지상 4층 건물로 16개의 입소실과 물리치료실, 의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관음원 대표이사 선래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서 받은 많은 공덕을 회향하고 싶었다”며 “무량수요양원은 생사가 없는 아미타불의 세계 즉 참 마음의 자리를 깨닫는 곳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아름다운 회향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60여 명이 생활할 수 있는 무량수요양원은 경증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면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다. (051)552-7900, 7211

이은아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국 : (011)571-5316
울산지사 : (052)272-0909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부모와 조상님께 등불을 밝힙시다

백중은 죽은 사람만 천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이 마음을 닦아서 목련존자처럼 그렇게 내 마음이 천도가 되면 돌아가신 부모도 다 건질 수가 있다는 삼세가 도는 법을 말하는 아주 뜻이 깊은 날입니다.




종 등



팔각봉축접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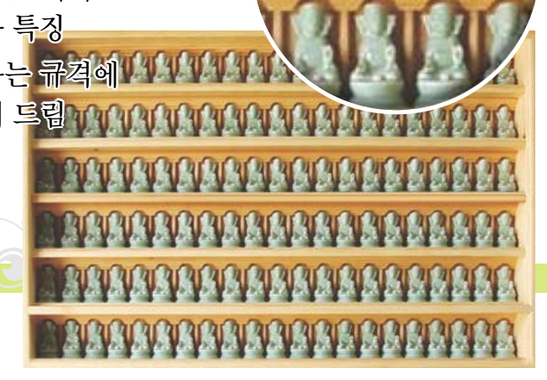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LED 인등

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침체? 이제 옛말이야

대구 · 경북 불교청년회 각각 불청대회 열고 활성화 모색

대구 경북지역 청년불자들이 오랜 침체를 벗기 위해 무더위도 아랑곳 하지 않고 뛰고 있다.

(사)대한불교청년회 경북지구(이하 경북지구, 지구장 김성식)는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2일간 경북지구불교청년대회(이하 불청대회)를, 대구지구는 8월 26일 대구 성화사에서 임원단 철야합동수련회를 개최할 계획을 세우는 등 심기일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경북지구는 2008년 전국불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매년 실시해 온 여름캠프의 명칭을 경북지구불청대회로 바꾸고 프로그램과 행사 진행 등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방침이다.

'대한불청 경북지구 내일을 말한다'는 주제로 포항 덕동수련관에서 열릴 예정인 경북지구 불청대회는 청년불자들의 신심을 단련하고 돈독한 상호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경북지구 활성화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경북지구 불청대회는 포항지부와 영주를 중심으로 한 북부지부, 구미 상주 칠곡 풍기 예천 안강 지회에서 약 150여 회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청년불자들은 경북지구 발전에 공이 큰 청년 불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해 회원들의 참여 의욕 증진과 화합의 계기를 만든다. 특히 포항사암연합회장 종문 스님과 보경사 주지 법달 스님, 대구불교방송 사장 법조스님을 지도법사로 추대해 지역 불교계와의 유대도 확대할 계획이다.

2007년 전국불청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대구지구는 오는 26일 성화사에서 열리는 임원합동수련회를 통해 역량을 다지고, 9월 3일에는 관오사에서 불교청정운동법회를 주최해 대한불교진흥원이 주관하는 불교청정운동을 대구에서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또, 10월 대구지구 합동체육대회를 기점으로 전국불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나간다는 복안이다.

임원합동수련회는 대구지구 및 대구지역 청년회 소속 전 임원진을 대상으로 예불 및 108참회기도, 성화사 주지 진공 스님과 보경사 주지 법달 스님, 대구불교방송 사장 법조스님을 지도법사로 추대해 지역 불교계와의 유대도 확대할 계획이다.

2007년 전국불청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대구지구는 오는 26일 성화사에서 열리는 임원합동수련회를 통해 역량을 다지고, 9월 3일에는 관오사에서 불교청정운동법회를 주최해 대한불교진흥원이 주관하는 불교청정운동을 대구에서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또, 10월 대구지구 합동체육대회를 기점으로 전국불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나간다는 복안이다.

임원합동수련회는 대구지구 및 대구지역 청년회 소속 전 임원진을 대상으로 예불 및 108참회기도, 성화사 주지 진공 스님과 보경사 주지 법달 스님, 대구불교방송 사장 법조스님을 지도법사로 추대해 지역 불교계와의 유대도 확대할 계획이다.

2007년 전국불청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경북지구는 청년불자들의 신심을 단련하고 돈독한 상호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경북지구 활성화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경북지구 불청대회는 포항지부와 영주를 중심으로 한 북부지부, 구미 상주 칠곡 풍기 예천 안강 지회에서 약 150여 회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청년불자들은 경북지구 발전에 공이 큰 청년 불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해 회원들의 참여 의욕 증진과 화합의 계기를 만든다. 특히 포항사암연합회장 종문 스님과 보경사 주지 법달 스님, 대구불교방송 사장 법조스님을 지도법사로 추대해 지역 불교계와의 유대도 확대할 계획이다.

2007년 전국불청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경북지구는 청년불자들의 신심을 단련하고 돈독한 상호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경북지구 활성화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경북지구 불청대회는 포항지부와 영주를 중심으로 한 북부지부, 구미 상주 칠곡 풍기 예천 안강 지회에서 약 150여 회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청년불자들은 경북지구 발전에 공이 큰 청년 불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해 회원들의 참여 의욕 증진과 화합의 계기를 만든다. 특히 포항사암연합회장 종문 스님과 보경사 주지 법달 스님, 대구불교방송 사장 법조스님을 지도법사로 추대해 지역 불교계와의 유대도 확대할 계획이다.

2007년 전국불청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대구지구는 오는 26일 성화사에서 열리는 임원합동수련회를 통해 역량을 다지고, 9월 3일에는 관오사에서 불교청정운동법회를 주최해 대한불교진흥원이 주관하는 불교청정운동을 대구에서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또, 10월 대구지구 합동체육대회를 기점으로 전국불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나간다는 복안이다.

임원합동수련회는 대구지구 및 대구지역 청년회 소속 전 임원진을 대상으로 예불 및 108참회기도, 성화사 주지 진공

“절에 왔으니 차 한잔 하세요”

내소사 · 증심사 무료다원 인기



내소사 무료다원에는 매일 100여명이 차를 마시고 간다.


50여명이 함께 차를 마실 수 있는 증심사 자향다실에는 서적도 비치돼 있다.

“스쳐가는 구경꾼도 머물다 가는 참배객이 된다.” 천년 고찰에 무료다원이 개설되면서 절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부안 내소사(주지 진원)는 7월부터 법당 옆 설선당을 무료다원으로 개조해 일반에 공개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찻상 9개가 갖춰진 다원에는 매일 100여명이 찾는다. 주말에는 차를 마시기 위해 기다리는 줄이 끊이지 않는다. 무료다원이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자 내소사는 도우미를 두고 초보자들에게 차를 우려내는 법과 마시는 법을 지도해 주고 있다. 작설차, 죽로차, 연차 등 전통차와 각종 발효차를 무료로 제공한다.

내소사 주지 진원 스님은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다보니 일반인들은 사찰에서 먹고, 자고, 차 마시기 등 체험에서 많은 감동 받는 것을 보았다”며 “사찰을 찾은 참배객들이 잠시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차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소사 다원을 맡고 있는 명덕화 보살도 “400년 전 건립된 스님들의 수행공간에서 차를 마시는 인연은 매우 크다”며 “다원에는 타종교인의 방문이 많은 편으로 불교와 우리차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모습을 볼 때 기쁘다”고 전했다. (063)583-7281

광주 무등산 증심사(주지 진화)도 지난달부터 취백루에 자향다실을 꾸미고 일반에 우리차를 무료제공하고 있다.

무등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개설한 자향다실은 50여명이 함께 차를 마실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불교관련 서적과 잡지도 읽을 수 있다. 자향다실은 증심사 다인들의 모임인 자향회가 자원봉사하며 작설차, 말차, 대잎차, 삼경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주지 진화 스님은 “불자가 아니더라도 사찰에서 차를 마시다 보면 저절로 불교와 친숙해진다”며 “자향다실이 시민 휴식처뿐 아니라 문화를 토론하는 공간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자향다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방된다. (062)226-0107 이준엽 기자

광주 불교계, 亞 문화교류 선언

2일 재단 창립 … 초대 이사장에 현장 스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에 불교계가 주도하는 ‘광주아시아문화교류재단(이하 아시아교류재단)’이 설립된다.

한꽃예술봉사단, 대원사 티벳박물관, 자비신행회 등 지역 불교단체 관계자들은 8월 2일 자비신행회 세미나실에서 ‘광주아시아문화교류재단 발기인 및 창립대회’를 갖고 재단법인 등록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아시아교류재단 준비위는 창립선언을 통해 “광주에서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문화 연구와 예술인의 상호교류를 펼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하반기 사업으로 광주 인도박물관 설립과 아시아 문화해설사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호남지역 불교단체들이 ‘광주아시아문화교류재단’을 창립했다. 사진 앞줄 가운데가 초대 이사장 현장 스님.

이어 창립대회에서 대원사 티벳박물관장 현장 스님을 재단이사장으로 하는 이사진을 선출하고 법인 정관을 통과시켰다.

현장 스님은 인사말에서 “수행은 마음의 꽃밭을 가꾸는 일이다”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할 아시아 문화의 계승,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교류재단은 현장 스님이 기증한 유물을 전시하게 될 인도박물관과 아시아 예술 공연장을 무등산 입구 임동에 건립중이며 10월경 완공된다.

아시아교류재단은 10월 1일부터 3개월 과정의 아시아 문화해설사 교육을 실시하며, 계간지 발행, 아시아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아시아 차문화 교류, 불교문화 전수 등의 사업을 펼친다. 이준엽 기자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탄허 · 서옹 스님 선시비 제막

제주 법화사(주지 시몽)는 8월 11~12일 양일간 제2회 연꽃축제를 개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구화루 백련당 낙성 및 선시비를 제막한다. 법화사는 장보고 대사 동상과 서옹, 탄허스님의 글을 새긴 선시비, 법륜상을 조성하고 제막한다. 또한 구화루와 구품연지 일대에서 연차 시음, 글짓기 대회, 서각전, 소망등 달기, 청소년 댄스대회, 연꽃음악회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한편 법화사는 연꽃축제에 앞서 8~9일 마곡사 마가 스님과 함께 하는 ‘자비명상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064)738-5225

이준엽 기자

광주 원각사, 재가불자 간담회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는 8월 1일 원각루에서 ‘재가불자 지도자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광주지역 직장직능 신행단체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도제 스님은 인사말에서 “재가불자들이 자주 만나 불법을 논의하고 정진할 때 빛고을 광주가 명실상부한 불국정토가 될것이다”며 “도심속에 자리한 원각사가 재가불자와 시민을 위한 열린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원각사 재가논강과 가을에 열리는 빛고을 불교아카데미의 원만회향을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이준엽 기자



네팔 노동자 대흥사 참배

한꽃 외국인 노동자 센터(소장 고영순)는 7월 30일 해남 대흥사 일대에서 ‘나마스떼! 남도문화 유적답사’를 실시했다(사진).

조계종 불교시민사회단체가 지원한 이날 순례에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30여명이 동참했다.

한국생활 6년차인 강가 씨(35)는 “틈틈이 한국 사찰을 참배했지만 상세한 안내를 받기는 처음이었다”며 “한국인의 사후세계를 볼 수 있는 지장전과 초의선사 이야기가 흥미롭다”고 말했다.

한꽃 외국인 노동자 센터는 7월 16일에도 외국인 노동자 30여명과 함께 ‘빛고을 나들이’에 나서 영화관람, 시내 탐방, 볼링 시합 등을 가졌다. 이준엽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충남동부지국 : (010)3069-3170

섬 속에 절이 있네

신안군 비금도 서산사


‘나한전 없는 나한도량’ 서산사는 비금도 서쪽 나한성지 선왕산에 자리잡았다.

산은 산이요 바다는 바다로다

비금도는 신안군 최초의 전통사찰 서산사(주지 근원)가 자리해 있어 ‘섬 속의 불교성지’로 최적이다.

목포항에서 비금도까지 100여리(54km). 흔히 바닷길이기에 망망대해를 생각하건만, 비금도 가는 길은 섬과 섬이 끝없이 이어져 마치 배타고 골목길을 헤집는 듯하여 색다르다.

서산사(西山寺)는 섬의 서쪽 선왕산(仙旺山)에 자리해 있다. 이 산은 해발 255m로 낮은 듯하지만 산 속에 들어들면 심산유곡의 정취를 맛볼 수 있다.

인근 섬 주민들에게 유일한 기도 도량 하트해변 등 곳곳 명소

특히 서산사로 들어서는 초입이 일품이다. 수백년 된 팽나무들이 사천왕마냥 당당하게 버티고 있고, 대웅전과 요사채, 5층 석탑, 약수터가 짜임새 있게 배치되었다. 또한 대웅전에서 내려다 보이는 명사십리 해수욕장(월평)과 푸른바다는 섬 속의 사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시원함’이다.

서산사의 최초 창건은 고려 말 우왕 1년(1390)으로 선왕산 뒤쪽 내월리였다. 섬의 특성상 물을 따라 몇 차례 자리를 옮겼다. 그 뒤 조선시대 억불정책으로 위축된 교세를 일으키기 위해 1898년 목포항이 개항되자 고서리 절골산에 새롭게 터를 잡았다. 1920년 현재의 자리로 다시 옮겼고, 1989년까지 4차에 걸쳐 중창불사를 진행해 도량을 일신했다.

신앙의 형태는 섬이란 특수성에 따라 미타신앙과 토착적인 용왕 산신신앙이 복합되어 내려왔다.

주지 근원 스님은 21년 전 우연히 비금도와 인연을 맺었다. 사세가 빈약한 섬 사찰에 젊은 스님이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수행이었다. 그 힘으로 도량을 넓히고, 진입로를 포장하며 불사를 해냈다.

스님은 서산사를 ‘나한전 없는 나한도량’이라 소개한다. 선왕산이 그대로 나한도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금도와 인근의 여러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유일한 사찰이기에 나한전보다 요사채가 우선이었다. 이제는 요사채가 3동이나 되어 50여명 정도가 정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비금도에는 서산사 이외에도 명소가 많다. 하누님에서 바라보는 낙조와 선왕산 등산로, 이밖에 칠발도, 성치산성, 석장승 등이 알려져 있다.

특히 드라마 촬영지로 이용된 ‘하트해변’과 자동차로 10리를 달릴 수 있는 월평해수욕장은 인기가 높다.

이준엽 기자

▲찾아가기: 목포 여객선터미널(243-0116)에서 비금행 쾌속선(50분 소요)과 차를 실을 수 있는 차도선(2시간 소요) 이용. 휴가철에는 수시운행. 버스이용시 서산마을에서 하차 후 선왕산 등산로 따라 걸어서 15분. 미리 사찰에 연락하면 사찰차량 이용할 수 있다.

서산사 : 주지 근원 스님 (061-275-4893, 전남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985-1)

대한불교선교종 행자모집

대한불교선교종에서는 승가상 구현을 위하여 본종단의 장기안목으로 종단 운영 및 수행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수행과 교화를 겸수하는 교화종단의 위상을 재고하고, 확고한 종단관과 사명감을 가진 눈밝은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본종단에서는 6개월간 모든 수행과정(염불, 행정등)을 종비생으로 가르치며 6개월 수료 후 각자 능력에 따라 안거수행할 수 있도록 본종에서 주선합니다.

■ 모집대상(5名 ~ 7名)
1. 고졸 이상 학력의 35세미만 군필자.
2. 부처님의 일불제자가 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자.
3. 처음 승려가 되고자 하는자.
4. 몸과 마음이 건전하고 건강한 자.
5. 6개월간 단체생활을 할 수 있는 자.

■ 문 의
◆ 주 소 : 부산 동구 수정 3동 844-30번지 성광빌딩 201호
◆ 연락처 : 051)462-6181, 6652

대 한 불 교 선 교 종 총 무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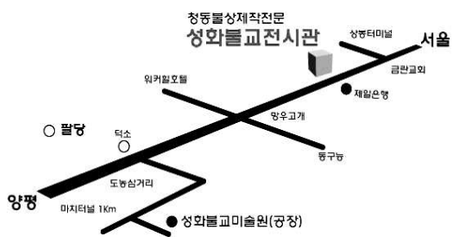
청동 불상 조성 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비리승려’ 정보 공유 시급

부적격자 ‘철새행각’ 막을 방법 없나?

지난 6월 창종해 강원도 원주에 본부를 둔 S종단은 창종한지 얼마안돼 큰 고민에 봉착했다. 종단의 위상 강화를 위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가입을 서두르고 있고, 아울러 일정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해 종도들의 입종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입종을 원하는 스님들의 신원과 수행 이력을 정확히 검증할 길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혹시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겨 승적을 옮기는 것은 아닐까 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무언가 대책이 없을까? 우선 해당 종단들의 승적 관리를 전산화해서 각 종단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태고종은 엄격한 승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 12월 개발한 승적관리 전산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올 10월까지는 승려 개인정보 입력기간으로 정해 소속 종단 스님 개인의 연수 및 안거 이력, 행자교육 및 은사 스님 이력, 분담금 납부 상황, 상벌 현황 등 출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수행이력을 자세히 정보화 시키고 있다. 정보 입력이 끝나면 전국 지방 종무원들끼리 정보를 네트워크해서 문제가 되는 승려는 즉각 퇴출시킬 방침이다.

(재)일붕선교종이 올해 초부터 승적관리 목적으로 발급하는 ID카드 승려증도 호응이 높다. ID카드 내에 모든 승려 정보가 입력돼 중앙 총무원에서 승적 관리가 용이하다. 예를 들어 지방 종무원소속 승려가 문제를 일으키면 즉시 중앙 총무원에 공문으로 상황을 알린다. 다시 총무원은 진상 조사를 한 뒤 해당 스님의 ID카드 내에 징계 상황을 입력하며, 동시에 16개 전국 종무원에도 이 정보를 공지한다.

관음종과 총화종은 이미 승려분한신고제를 통해 승적관리를 강화했고, 조동종 법상종 등도 올해부터 정기적인 승려분한 신고제를 실시해 종단 스님들의 활동 현황을 자세히 파악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무리 내집안 단속을 잘해도 철새 비행승려를 받아주는 종단들이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물론 비행승려라는 것을 알고 입종을 허용하는 종단은 없다. 문제는 종단간 승적에 대한 정보 공유가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상임이사 법현 스님(태고종 사회부장)은 “2년 전 이런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 각 종단 총무원장들이 모여 비행승려들을 척결하기 위한 연합감찰제도를 실시하기로 협의했지만 예산부족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완벽한 대안이 될 수는 없겠지만 조속히 연합감찰위원회를 구성해 감찰위원회가 단속한 비행승려들의 명단을 해당 종단에 통보하면 종단별로 적절하게 규제토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종 서울종무원장 법공 스님도 “특정 종단에서 비리로 인해 징계를 받은 승려는 타종단으로 옮겨가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강력한 제도적인 장치를 종단협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연합 감찰제 시행을 강조했다.

현재 종단내 승려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여래종 총무원장 혜안 스님도 “이중 승적과 부적격자 유입 등을 막기 위한 근본 해결책은 승려들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교육에 있다”며 “종단난립과 무자격 승려 양산, 승가질서 파괴, 승가교육 부재 등을 집중 연구할 ‘승단발전연구위원회’ 설치를 통해 올바른 승풍을 계도시켜 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연합감찰제 실시 · 승단발전委 설치를
종단협차원서 강력한 규제장치 마련해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군포교 앞장



신도회별 군법당과 결연 … 법사 파견 등 후원
영어 · 선법가 법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인기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은 신도회별로 군법당과 결연을 하고 정기적인 후원을 하고 있다. 사진은 3조 지역신행회가 7월 30일 1사단 신병교육대 정각원을 위문한 모습. 사진제공=1사단 신병교육대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신행단체별 결연 현황

결연 부대명	파견 지도법사	결연 신행회
3군지사 50탄약부대 공심사	혜현 스님	5조 신행회
1사단 신병교육대 정각원	청보 스님	1조, 3조 신행회
제3군수지원사령부 삼마사	청보 스님	7조 신행회
1113야전공병단 밝달사	청보 스님	한마음 합창단
제5정비창 호국 가야사	청고 스님	수원 심전회
3765부대 2대대	혜전 스님	노인복지회
연천 1223 포병부대		4조 신행회
25사단 호국 적성사		2조, 5조, 6조 신행회
해병대 2사단 5연대 기룡사		4조 신행회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한 곳의 군법당을 꾸준히 지원하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이 10여곳의 군법당과 결연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화제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주지 혜원)은 지역 신행회 및 개별 산하단체별로 군법당과 결연하고 법사 파견, 장병 위문품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군포교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1조, 3조 신행회는 7월 30일 1사단 신병교육대 정각원을 참배하고 장병들을 위문했고 7조 신행회도 7월 23일 결연 부대인 제3군수지원사령부 호국 삼마사를 위문했다.

또한 만안구 신행회 합창단, 노인복지회, 강남구 신행회, 영등포 및 인천신행회, 각 지역 신행회 등도 매월 1~2차례 결연 부대 군법당을 찾는다.

25사단 호국 적성사의 경우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지원을 해 설립된 군법당으로 지금까지 2조, 5조, 6조 신행회에서 법당 위문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50여명의 불자장병들이 동참했지만 지금은 꾸준한 후원 덕에 10배인 500여명이 동참할 정도로 법회가 활성화되어 있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은 단순히 군법당과 결연을 통한 후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법가 법회, 영어 법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위문활동을 펼치고 있어 군불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50탄약부대 호국 공심사는 매월 둘째주 선법가 법회를 봉행한다. 한마음선원에서 제작한 찬불가인 선법가를 통해 장병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불교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셋째주는 군불자들을 직접 안양본원으로 초청해 법회도 보고 점심공양도 함께 한다.

제5정비창 호국 가야사는 외국인 스님인 청고 스님이 영어 법회를 진행한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청보 스님은 “스님들이 군포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신도들과 함께 군법당과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며 “군포교가 활성화되어 장병들 스스로가 마음의 주인임을 깨달아 건강하고 밝게 군생활을 마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부산, 광주 등 한마음선원 지원들도 지역 군법당과의 결연을 통해 지도법사 파견 등 정기적인 법회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진부 수재민 위로 방문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이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일대 20여 가구를 방문, 위로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정산 스님은 종단 스님 10여명과 함께 8월 1일 진부 진강사를 찾아 수해복구 현황을 살핀 뒤 인근 하진부 9리 마을회관을 찾아 최돈열 이장에게 라면 100박스를 전달했다(사진). 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를 입은 분들이 수해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위로했다. **김주일 기자**

울릉도에 어린이집 개원
진각복지재단

진각복지재단이 울릉군으로부터 위탁받은 군립 어린이집인 ‘꿈나무 어린이집’이 8월 2일 개원됐다.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에 위치한 울릉군립 ‘꿈나무 어린이집’은 165평의 대지에 건립된 2층 건물로 현재 영아반 유아반 유치반 등 6개반에 걸쳐 60명을 모집해 교육하고 있다. 특히 이 군립어린이집은 영아반(0~3세) 원생이 전체 3분의 2인 40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영아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태고종 8월 10일 행자 시험
9월 5일부터 수계산림교육

태고종 제30기 합동득도 수계와 관련, 행자 소양시험을 8월 10일 실시한다.

또 수계산림 교육은 9월 5일에 입재해 10월 2일에 회향키로 했다. 총무원은 7월 27일 종무회의에서 제30기 합동득도 수계일정을 이와 같이 확정했다. 종단의 ‘선교육 후득도’ 방침에 따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합동득도 수계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일 기자**

軍佛教 후원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심자!

군인은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이 조국통일의 염원을 안고 헌신, 봉사하는 나라의 간성입니다.
6.25 전쟁 때 목사, 신부는 군에 종군하여 선교활동하던것에 비해 불교는 뒤늦게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8년에 최초로 5명의 군승이 임관한 이후 지금까지 37년 동안 포교활동을 하였습니다.
육해공군 397곳에 법당에서 136명의 현역 군승이 15만1천여 명의 장병불자와 함께 년간 1만 6천여회 법회를 실시하였으며 년간 200만 명이 법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년간 8만여명의 군장병에게 수계식을 거행하여 신심있고 굳건한 불자로 육성하여 부처님의 가피 속에 보람있는 군생활을 영위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종교의 지원에 비해 군승이 불법을 홍포하기에는 너무나 힘에 부칩니다.

존경하는 대덕 스님과 불자님!
저희 군불교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한국불교으 미래를 짊어질 젊은 군불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군불교 후원으로 한국불교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萬人同參 후원금은
• 군장병 포교를 위한 교재, 용품, 서적 • 군장병 불자 수계식 용품(염주, 호신불 등)
• 군장병 위문, 방문, 선도활동에 필요한 위문품의 구입과 • 군승 활동을 위한 지원금품
• 군장병 신행도량(법당) 건립 • 군장병 가족 교화를 위한 교육관 건립 등에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軍佛教를 후원하시려면
• 만인동참은 한사람 한사람이 한달에 일만원씩 후원하는 동참불사입니다.
• 더 많은 도움을 주신분은 설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단위사찰별로 년간 또는 월간 일정액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 신행단체나 사회단체도 년간 또는 월간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 ARS 한통화는 군장병에게 초코파이 한통을 보낼 수 있습니다. (ARS 060-700-0108)
※만인동참이나 후원을 해주실 분은 군종교구로 연락주십시오.
※후원금을 보내실 분들은 은행계좌를 이용해 주시고 보내신 후 전화 주십시오.

1인 1만원 만인동참 후원
제일은행 325-20-203673 조흥은행 377-01-058158
우리은행 1005-580-051116 우체국 010025-01-010767
농협 094-01-156954 국민은행 477401-01-092896
지로번호 7681972 예금주 : 군종특별교구

문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원광사 內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 FAX 02)796-0221 / 軍 900-7751
홈페이지 : www.gunbulkyo.org

대한불교조계종 군 종 특 별 교 구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해인사, 萬생명과 사랑에 빠지다

비로자나데이 '천년의사랑' 축제

7월 29일, 칠월칠석(7월 31일)을 앞두고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가 산문을 활짝 열었다. '사랑 만남 생명'을 주제로 비로자나데이 '천년의 사랑' 축제를 연 것이다.

구광루 앞마당엔 영화 '왕의 남자'에서 봤던 남사당패의 외줄타기용 밧줄이 떡 하니 매어 있고, 보경당 앞에 설치된 대형무대에선 오후 3시부터 젊은 국악그룹 이스터녹스의 퓨전국악공연과 4인조그룹밴드 비즐리의 뮤직 콘서트가 펼쳐졌다. 종무소 뒷마당엔 사하촌 마을주민들이 먹을거리 장터까지 풍성하게 열었다.

종무소 앞 컵등 만들기 체험장, 손가락에 알록달록 꽃물을 들이며 직접 만든 컵등이 예쁘다. 홍보관에는 통일신라시대 문장가였던 각간 위홍과 진성여왕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시화전이 눈길을 끈다. 2004년 현대문학상을 수상한 김선우 시인이 특별히 지은 12편의 시가 천정의 그림을 배경으로 빛을 발하며 대중들의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종무소 앞마당엔 사회복지기금 모금을 위한 백련차 시음회가 열렸다. 정성껏 우려낸 백련차의 향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려는 뜻과 더불어 더 그윽하게 번졌다.


축제의 즐거움에 빠져들기에는 출재가가 따로 없다.

#고찰서 사랑축제?

전국에서 모여든 3천 여 대중은 해인사의 색다른 모습에 눈이 휘둥그렇다. 한국사 항상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는데, 오늘만큼은 문도 없고 턱도 없는 해인사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도 해인사에서 처음 열린 비로자나데이 축제에 의아한 표정이다.

"지난해 해인사에는 경사스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분 비로자나 부처님이 탄생한 것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목불로 판명된 비로자나 부처님은 1200년 전 통일신라시대 진성여왕과 당시 정치가이며 문장가였던 각간 위홍의 사랑과 서원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이 두 분 부처님의 탄생을 알리고 기념하기 위해 우리 고유 사랑의 날인 칠월칠석을 비로자나데이로 정하고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축제를 마련한 것입니다."

기획국장 만우 스님이 대중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스님은 "비로자나부처님에게 생일을 드린 것"이라며 "오늘만큼은 해인사에서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과 가야산 정기를 가득 담고 돌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후 4시를 넘기며 천이백만 관객을 동원했다는 영화 '왕의 남자'의 주인공 '장생' 대역으로 나온 줄꾼 권원태의 제자 김민중(16)군이 멋진 재담으로 줄을 타려는 순간, 천둥번개를 동반한 굵은 빗줄기가 세차게 내렸다. 끝나지 않은 장마로 오전 내내 흐리더니 결국 구름이 터진 모양이다. 비로자나데이 축제가 막 무르익을 무렵인데 더 이상 축제가 진행되지 못할 듯 했다. 주지 현응 스님을 비롯한 사중스님들은 물론 축제에 막 젖어든 대중 모두가 안타까워 했다.


축제를 관람하는 종정 법전 스님(가운데). 왼쪽은 도견 · 원융 스님, 오른쪽은 현응 스님, 이명박 前 서울시장.

비로자나는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빛' '광명'을 뜻한다. 결국 비로자나부처님의 광명은 대중을 외면하지 않았다. 거세게 내리던 빗줄기가 잦아들더니 어느새 파란하늘 자락을 살짝 보이기까지 했다.

"이제사 우리사랑 이루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듯 그대를 사랑합니다. 건강과 평화가 사랑 속에 내 사랑은 해인의 마음을 향합니다."

진성여왕과 각간 위홍의 사랑처럼 모두의 사랑이 천년을 이어갈 큰 사랑으로 승화되길 발원하는 현수막이 더욱 새롭게 빛났다.

1200년 前 비로자나불 조성한 두 주인공
진성여왕과 각간 위홍의 사랑극 무대에
줄타기 · 콘서트 · 패션쇼에 관객 환호
가족 · 연인과 손 잡고 탑 돌며 기원

#종정 법전 스님도 참석

오후 7시, 김선우 시인의 축시 낭송으로 축제가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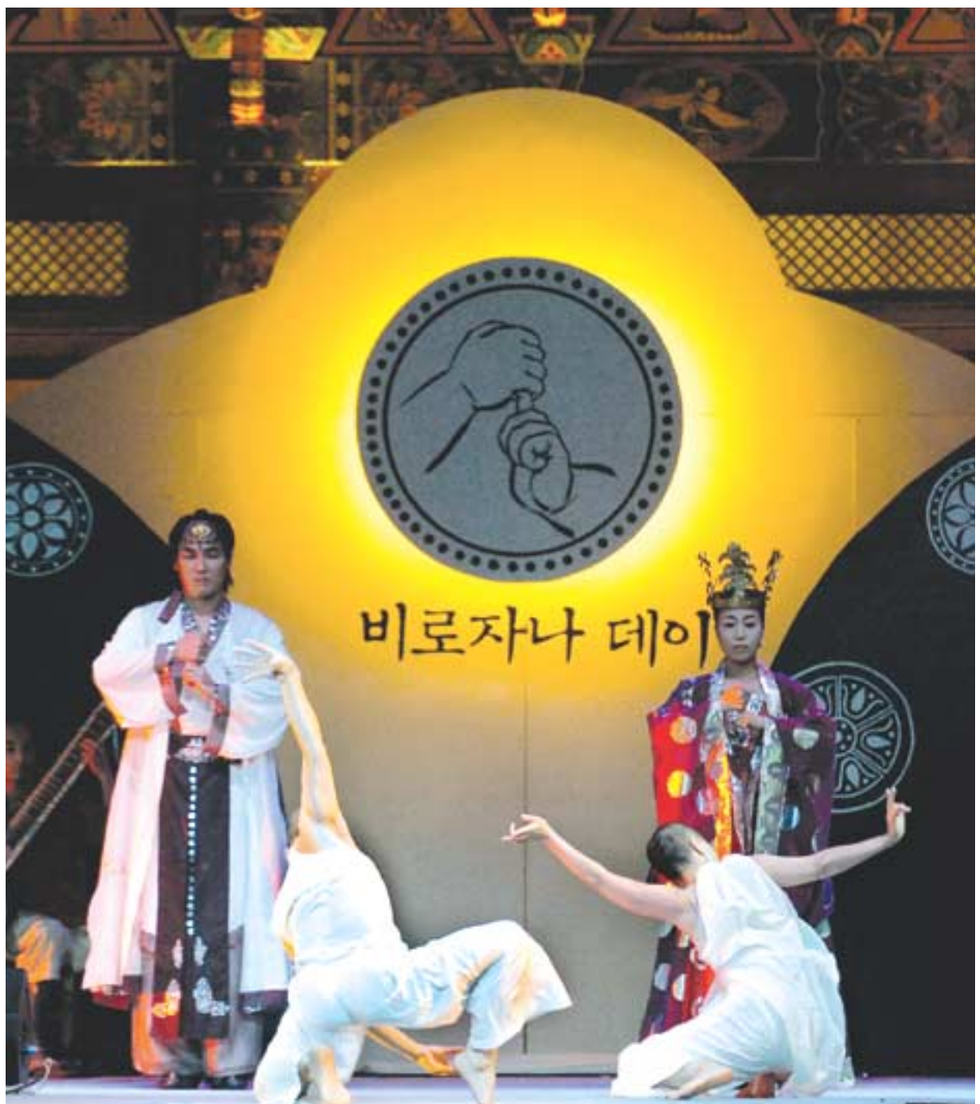
구광루 앞 회랑에 현응 스님을 비롯한 어른스님과 사중스님 이명박 前 서울시장이 자리했고, 종정 법전 스님이 대중들에게 축복을 내리며 등단했다. 법전 스님의 등단에 3000여 대중은 일제히 환호했다.

가야산이 붉은 노을로 물들 무렵 패션디자이너 이영희씨의 '사랑과 만남의 패션쇼'가 시작되고 김종국의 미니콘서트 '한여름밤의 꿈'과 불자 국악인 김성녀의 무대가 이어졌다.

신라시대부터 시대별로 변화되어 온 우리옷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 패션쇼는 관객들에게 탄성을 자아내게 했고, 가수 김종국의 무대는 산사를 순식간에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사랑한다는 말' '한 남자' '사랑스러워'를 잇따라 부른 김종국은 "해인사는 어린시절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고향"이라며 "오늘의 행사는 해인사의 행사라기보다 가족의 일이라는 생각에 주저 없이 달려왔다"고 말해 더 큰 박수를 받았다.

#가족 · 연인과 '천년의 사랑' 기원하며 회향

다채로운 무대공연이 모두 끝나고 해인사의 밤이 깊어갈 무렵 각간 위홍과 진성여왕의 사랑이야기를 그린 시극 "사랑이여, 천년의 사랑이여!"가 시작됐다.



신라시대의 진성여왕과 각간 위홍의 사랑이야기를 그린 시극 '사랑이여, 천년의 사랑이여!'는 비로자나데이 축제의 열기를 절정으로 이끌어갔다.

진성여왕과 위홍의 사랑이 비로자나부처님을 조성하면서 만 생명에 대한 사랑, 생사를 넘어선 영원한 사랑으로 승화되어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그린 시극은 퓨전국악과 월드뮤직연주, 현대무용, 판소리, 굿포퍼먼스, 시낭송 등이 어우러져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극을 쓴 최창근씨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통해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위홍과 진성여왕의 독백을 끝으로 막을 내리고 사랑의 탑돌이에 나섰다. 가수 한영애씨가 앞장을 서고, 시극의 주인공들이 뒤를 따랐다. 이어 관객들이 한 손에는 컵등을 밝혀들고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의 손을 꼭 잡은 채 뒤를 따랐다. 대적광전 앞의 탑을 돌고 야광으로 밝혀진 사랑의 해인도를 따라 천년의 사랑을 발원하는 탑돌이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인사의 밤은 깊어갔다.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에서 온 이영희씨는 결혼 4년차. "가족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기원한 뜻 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천년의 사랑' 축제가 감동적이었다는 거창 웅양중학교 배은미 교사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이 해인사라는 곳에서 만 생명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 천년의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는 뜻 깊은 날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산사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든 가수 김종국의 무대.

해인사/글=배지선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컵등 만들기 체험장


김민중군의 외줄타기


영원한 사랑을 염원하는 탑돌이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 온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전자기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 HH07236-5004A호
●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 특허청 실용실안출원
● 전자파 장애실험필
가격 245.000원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북한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34개의 금강약돌 볼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생 화상 없이 뱃속 깊숙이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침투하여 원적외선"침"을 맞는 효능으로 쑥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 입니다.
날씨가 더울수록 배(오장육부)는 차가워 집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은행석 온열복대의 효능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아랫배가 냉하신 분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인 분에게 적극권장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원적외선 "침"의 효능/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안전하고 편리한 다용도의 은행석 온열복대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며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WBH 치료법을 응용한 온열복대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적외선 전신온열)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까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중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약물요법과 병합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80℃의 고열이 발산 원적외선이 뱃속 깊숙히 침투하여 췌장까지 42℃의 열을 가온시는 의료기입니다.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가는 곳마다 인터넷

손안에 불교 담아라

와이브로 서비스 상용화 불교계는?

통신 시장의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지난 6월 30일 와이브로 서비스가 상용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와이브로가 어떤 서비스인지 잘 알지 못한다. 불교계 IT 관계자들조차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와이브로 서비스로 인해 신행 패턴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만큼 와이브로 서비스에 대한 불교계의 준비가 시급하다.



달리는 차안서도 화상 깨끗, KT SKT 세계 최초
사찰 소개 · 법문 ·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 가능
불교계 홈피 멀티미디어 콘텐츠 지속적 개발해야

▶ 와이브로 서비스란?

와이브로는 와이어리스 브로드밴드 인터넷(Wireless Broadband Internet)의 줄임말로 이동하면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무선 휴대인터넷을 말한다. 퍼스널컴퓨터 · 노트북컴퓨터 · PDA · 차량용 수신기 등에 무선랜과 같은 와이브로 단말기를 설치하면 시속 60㎞ 이내로 이동하는 자동차나 지하철에서도 휴대폰처럼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노트북 분리형 카드(PCMCIA) 단말기가 출시되어 있으며 KT와 SKT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서비스 지역은 KT가 △신촌 · 강남 · 서초 · 송파 · 분당 △분당~내곡 도시고속화도로 △분당~장지 도시고속화도로 △경부고속도로 판교IC~한남 △지하철 분당선 등의 구간이고, SK텔레콤은 △고려대권 △한양대권 △신촌권 △명동 · 을지로 △대치동 △봉천 · 신림동의 6개 서울 도심 지역이다.

▶ 예상되는 신행패턴의 변화

주 5일제 시행에 따라 주말을 이용해 가족 단위로 여행을 가거나 주말 농장, 템플스테이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주말 계획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해서 신행 생활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사찰에서 서비스하는 영상 법회를 통해 큰 스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고 성지 순례지에 대한 정보는 물론 볼거리 및 먹거리, 기상 정보 등 다양한 정보 수집이 와이브로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화상 통신이나 화상 회의 등이 가능해 사찰을 방문하지 않아도 스님과 신행 상담이 가능하며 불교에 대한 궁금증도 검색을 통해 즉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일반 관광객의 경우도 관광지 정보뿐만 아니라 사찰 소개 및 문화재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 간접적으로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사찰홍보 · 포교에 활용

아직까지 와이브로 서비스 이용자가 많지 않아 기존에 개설된 홈페이지만으로도 불교 정보를 서비스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고 그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할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 부다피아 등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개별 사찰의 경우 사이버공간에 상당수가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고 있지만 변화가 없는 '팜플릿' 페이지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한번 방문을 하면 그 다음부터 찾지 않는 경우도 많다. 사찰에서는 문자, 사진, 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할 것이다.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장하용 교수는 "와이브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사찰 홍보 영상, 큰스님 영상 법문 등을 찾는 사람들이 늘 것으로 보인다"며 "불교계에서도 영상 세대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우리 가족 영상 만들기 12

아날로그와 디지털 편집 차이

선형 편집과 비선형 편집

그동안 영상 촬영을 위한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다면 지금부터는 촬영한 영상을 어떻게 편집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영상 편집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선형 편집과 비선형 편집이 그것이다.

선형 편집(linear edit)은 아날로그 편집을 말한다. 원본 데크에 촬영 원본을 넣어 영상을 일일이 보면서 녹화 데크에 가편용 테이프에 필요한 영상을 녹화를 하는 방식으로 편집이 진행된다. 이를 흔히 일대일 편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대일 편집을 통해 가편집한 녹화 테이프를 가지고 스위처 등의 장비를 사용해 장면과 장면의 변화에 효과를 주어 종합 편집을 통해 영상물을 제작하는 과정 전체를 선형 편집이라 부른다. 선형 편집은 녹화 및 편집 데크, 스위처, 자막기, 오디오 믹서 등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며 비선형 편집에 비해 안정적이기 때문에 영상물을 송출하는 방송국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원본 테이프에서 사용할 영상을 녹화하는 방식으로 편집이 진행되기에 여러번 녹화를 할 경우 화질의 손상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비선형 편집(non linear edit)은 선형 편집의 반대어로 디지털 편집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비선형 편집은 시간의 순서대로 녹화테이프에 녹화를 하는 방식이 아닌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촬영본을 모두 저장해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앞뒤 영상을 자유롭게 보면서 사용할 영상을 편집하는 방식을 말한다. 촬영한 영상을 모두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기 때문에 선형 편집과 같이 테이프를 돌려가며 필요한 영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우스로 필요한 지점을 찾아가며 영상 편집을 할 수 있어 선형 편집에 비해 편리하다. 원본 소스를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는 것을 '캡쳐'라고 하는데 캡쳐를 한 뒤에는 여러번 동일한 영상을 사용해도 화질의 손상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선형 편집에서는 다양한 자막과 특수 효과를 만들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비선형 편집에서는 간단히 마우스 몇번의 클릭으로 효과를 만들 수 있다.

다만 화면에 다양한 효과를 적용할 경우 컴퓨터가 작업을 하는 렌더링 시간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랜 시간 렌더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 편집자에게 지루함을 줄 때도 많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점을 보안하기 위해 렌더링 시간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고가이기는 하지만 제품들이 출시되어 있다.

비선형 편집은 촬영한 원본을 컴퓨터에 캡쳐를 받은 다음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편집을 마무리하고 다시 테이프나 CD, DVD 등으로 출력하는 것으로 편집이 종료된다.

비선형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컴퓨터와 영상을 하드디스크로 캡쳐받기 위한 영상 편집보드가 필요하다. 홈비디오나 취미용으로 사용할 편집보드라면 1394 카드가 적당하다. 시중에서 3만~6만원 정도에 구입 가능하며 편집 프로그램이 번들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7만~50만원 정도로 가격대가 다양하다.

김두식 기자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실시키로

국내 17개 포털 · 12개 미디어사이트 이용자 해당

"빠른 시행 필요" 의견 많아

사이버 공간에서의 고의적인 비방이나 명예훼손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장관 노준형)는 7월 28일 열린 우리당과 당정 협의를 열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인터넷 실명제를 제한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될 법률에는 일일 방문자수가 포털은 30만명, 미디어 사이트는 20만명 이상인 네이버 · 다음 등 국내 17개 포털사이트와 12개 미디어 사이트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관련 법 제정을 통해 현재는 인터넷 실명제가 제한적으로 실시되겠지만 향후 모든 사이트로 확대될 것이 분명해 불교계 사이트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타종교인의 악의적인 종교 비방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교계 일각에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정통부는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요청으로 포털 사업자가 임의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김두식 기자

휴대폰 하나면 여름휴가 '야호'

휴대폰 상에서 숫자 입력과 무선인터넷 키 조합으로 무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주소 '윙크'를 통해 날씨, 고속도로 상황, 관광지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윙크주소 131번을 누른 후 무선인터넷 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기상청이 제공하는 전국날씨, 지역별 날씨, 기상특보 등 종합기상정보 서비스를 얻을 수 있으며 한국관광공사(윙크주소 1330)에 접속하면 여름피서지 총출동, 전문가 추천 여행지, 지역행사 축제 등 여행지 정보와 내 주변 숙박정보, 먹거리 정보 등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KT(윙크주소 1512)는 '이길로'라는 이름의 서비스로 유무선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 전용약도를 통해 가맹업소의 정보를 휴대폰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윙크주소 247)도 항공기 운항정보, 공항 날씨, 환율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문화상품전문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732-1520



달마 문풍경

길이 : 약 38cm
달마대사 캐릭터로 집안 입구부터 달마의 기운으로 확!!! 뒷부분에 강력한 자석이 부착되어 문에 바로 붙일 수 있고 못걸이에도 바로 걸수있게 고리가 달려 있어 자석 및 고리 겸용으로 쓸 수 있다.

가격:1개 15,000원, 2개 25,000원



세로 88cm 가로 58cm

불자가정의가보로 안녕과번영의수호신

무명의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수월관음도는 세상 사는동안 **모든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하고 **오는 생에 좋은과보와 무량대복을** 주고자하는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소재회다. 소재회인 수월관음도는 받아보는 순간 누구나 두번 감탄을 한다. **첫째는 처음 느끼는 영험에 감탄을 하고 둘째는 섬세**

수월관음도

가정의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

함에 감탄을 한다. 험한 세상 자손만대로 안녕과 번영을 지키는 불자가정의 수호신인 수월관음도는 조계종 종정상과 대통령상, 한국불화대전 대상을 수상한 불화의 명장이신 法性 金義愼 화백께서 3년간 기도와 영험으로 그린 불화로 100% 천연코튼 판화지에 25도 판화와 베틀린 옥시를 사용해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줘도 변색되지 않게 제작 했으며 최고급 2단 플콜표구로 거실 또는 사업장에 모시면 대단히 품위가 있는 세계가 격찬한 영험의 불화다.

불자가정의 3대 가보중 첫번째인 수월관음도는 뒷면에 카필라 불광사의 보증서와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줄수있는 소장인판이 있다. 영험이 나타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카필라 불광사에는 가보로 구입하는 분과 어들딸 자녀에게 한점씩 주기도 하고, 새집이사 선물로 구입하기도 하는 등 지난번 KBS 역사스페셜 수월관음도 방영 후 전화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택배로 보내주고 있으며 점안불공을 마친 수월관음도를 받으면 목욕재개하고, 정한수놓고, 삼배하면서 갖가지 소원기도 한다음 거실또는 사업장에 걸면 영험이 시작된다. (가격 19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용어해설

● 수월관음도 (水月觀音圖)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모습이 그윽한 연못위에 비치는 달처럼 무명의 어둠에 있는 중생들에게 자비로운 구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불화다.

● 소재화 (消災畵)
불교에서 소재회란 모든재난과 고통 액운등을 소멸하고 예방한다는 불화 그림을 말한다.

평생 부자지갑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옴마니반메훔福지갑

음양의 조화로 놀라운 재물과 땅속의 보화까지 얻는 비방



남성용중지갑 (검정)
여성용롱나노 장지갑
(적색, 보라색)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뭘질로는 고통을 받고, 해결해야할 문제는 쌓이고, 부부간의 애정은 멀어지고,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답답한 것은 음양의 조화를 깨닫지 못해 일어나는 일들이다. **세상사는 동안 고통중의 고통이 뭘질이 없어 당하는 고통으로** 부처님께서 시위국 기다림 산중에 계실 때 가난으로 헐벗고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불경에 입각해 법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카필라불광사에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은 일반지갑과는 비교될수 없게 최고급으로 제작하고 현연가죽에 은나노처리까지 했으며 지갑앞면에는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형통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동서남북에서 돈을 들어오게 하는 보병과 악귀와 잡귀를 쫓고 계획한 일과, 하고 있는 일을 막힘없이 성취시키는 영험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넣었다.

출시 100일만에 안되면 장사가 잘되고, 절망속에 있던 사업장이 희망이 넘치고, 생각지도않던 돈이 들어오고, 못팔아 걱정하던 재고가 팔리고 고민하던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등 모든 문제에는 비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지갑이다. 옴마니반메훔 지갑을 여성이 지닐때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금전적으로 풍요로워지며 음양의 조화로 부부관계도 놀랍게 회복된다고한다.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대단히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할때 사용하실 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간 소원성취를 위한 새벽축원불공을 드려드리며 지갑은 우체국택배로 바로 보내준다.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중지갑 6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 생활 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방편비법전수

침술한약	급소를 활용하라 ※치료, 처방, 진단에 통달할 분
사주역학	핵심 및 통변의 달인이 되라 ※배워도 배워도 답답하신분
영가빙의	전생을 보고 귀신을 부려라 ※천도방법과 치유능력을 원할분

※ 만성병 상담 및 출장교육가능함
011-1737-2882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역학개인지도

명리,성명,택일,풍수
쉽게 풀어보는 명리첩경
著者 반야선원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전화 상담도 함)

침술·기치료

관절염, 오십견 중풍
허리통증, 각종 물혹, 우울증
※특이공능정수, 기치료 전수
(중국교포출장치료)
010-9137-1667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눈

눈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 눈빼빼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阿彌陀佛

축원문카드관리는 기본, 신도증발행 및 바코드 마그네틱카드사용가능, 전화걸기 기능, 이메일전송, 축원문카드내에 신도사진 첨부기능과 지속적인 무료업그레이드로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031)746-1560
www.10879.com

범음범패 의식 해드립니다

점안식	천도재 49재	수륙재	예수재	바라나비	사물	각종의식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중국 고대 비방 침술

허리, 목디스크
(3회~5회) 신효함
접수비 50만원
010-2553-3306
도안선원052) 224-3306

농협 장례보험

- 사망 시 1,000만원~3,000만원까지 장례비 지급!
- 75세까지 무진단 가입, 종신보장!
- 사망시 차회 보험료 납입면제!

(상조회사는 발인식 전날 미납금을 완불합니다)
영등포농협 공제사업단 팀장 차창수
019-209-0299
02)847-9273~4

군 수행환경 이대로 둘 것인가?

불자동참연대 회원모집
cafe.daum.net/Buddha0408com

포교원 (급) 구함

017-297-4097

불심으로 스님모시고 한가족 처럼 지내실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40~50대
011-9778-0408

평생 함께 하실 부전스님,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태고종스님 환영)
극락사 납골당 공원
018-427-2256

사찰(女)사무원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041)673-3222

기도정진할 비구 및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도 모십니다

011-9803-630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양양
법비오는곳 동해사
033)672-2900

해인사 백련암 日字 스님께 공고합니다 거창 정각사 주지 소임자를 구합니다

055) 944-2905
011-9503-4848

화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노원주 상계 2동 달마선원
02)952-8131

성실한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55~65세)
054) 971-7561

기도정진할 30~40대 비구니부전스님 행자스님모십니다

055)271-5753
010-3193-6433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니 스님)
▷울산지역
010-4559-8682

공양주 구합니다

나이: 40~50대
월 보시금 80만원
▷지역: 울산
052) 221-0092
011-9318-3230

공양주 구합니다

▷용인지역
011-270-2675
031)335-2576

비구니 부전스님 구합니다

절에 머물면서 후원, 일을 도와주실 보살님을 모십니다
011-760-198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41) 545-6531

남 · 여 행자모집

(40세 미만)
▷경남 마산
055) 241-2313

본 사찰에서는 주변 어르신분들을 모시고 수시로 공양을 제공하기 위해 운송차량(승합차)이 필요하오니 뜻을 함께 하실 불자님들의 차량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경북 성주 벽진면 매적산 연화사 주지 보원스님 백
054) 931-0044
010-3153-1273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구지역
011-527-5908

사람을 찾습니다

본명: 오춘자 (나이 70~72세 女)
본적: 전남 함평군 학교면 백호리갈구지
찾는사람: 임광재씨 둘째 아들 임요섭(나이 59세)
고종사촌누이 소식이 궁금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11-415-9824

조금한 암자에서 사주 보는 사람이나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 곳은 연락바랍니다

▷비구니
010-9971-9288

기도하며 함께 생활하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011-529-3713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관리처사 모십니다
02)3411-8103
011-527-5908

육임 동영상 강의

http://www.saju79.com
육임강의를 이제는 안방에서 공부 하실수 있습니다
최고 고화질 강의를 일년동안 횟수에 상관없이 언제 어느때고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육임은 사주를 보지 않아도 찾아온 손님에 목적사를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학문입니다
일년동안 일백만원에 육임에 비법인 백법 강의까지 마스터 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자료와 720국수에 해설과 앞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모든 강의를 모두 일백만원에 공부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02)793-7333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많은스님 거사님 보살님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 개인교육 70만원, 단체교육 50만원 교육기간: 2~3일 ※교육1개월 후 무료 추가 보충교육있음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 www.reiki.co.kr(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 사암 등록 환영합니다
- 종무원 개설 원하시는 사찰 환영합니다
- 스님이 되시고자 하는 분 적극 환영합니다

총무원 행정실 ·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054)464-4725, 4735 / 010-7302-0077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기초부터 5개월
- 대상 : 누구나 가능 ●주4회, 1일 1시간씩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당 앞

28숙 특별지도

- 풍수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1:1로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02)374-9886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누구나, 재식, 염불을 쉽게 배울수있는 각단불공책

상단불공 · 신장불공 · 지장불공 · 산신불공법
용왕불공 · 조상천도 · 칠성불공 · 불명짓는법
책마다 순서대로 불공을 쉽게 할수있는 각각단권으로 맞춤형식 제작판매함



불공을 배우고자 하는분, 초보스님, 법사, 철학사, 보살님 기도하는 불자는 절대필요한 불공책 (역학.염불.배울학인모집)
대구시 중구 달성동 284-34 (농협) 743016-51-022866(정은정)
종단사찰등록 · 국제역술인협회 가입 환영 ☎ 053)561-4440

행자(예비스님) 모집

- 산중 분원인 감포선원(무문관)에서 수행함
  ☎ 문의 : 054)771-8350. 011-881-9710(주지스님)
  - 대구큰절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면 그것도 가능함
  - 화주이신 우악스님 성좌됨
  - 1인 1실, 민주적 교육, 수계 후 모든 교육비 지원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011-9852-0075(총무스님)

조계종 하와이 무량사 행자 모집

복(福)중에서 발심공덕이 으뜸이라 하였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하와이 무량사에서는 출가하여 사홍서원의 원력을 세우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뜻과 미주포교에 원력을 가진 발심 수행자를 모집합니다.



1) 무량사 행자 자격
- 연령 15세 이상 55세 이하
-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미국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조계종 종법에 의거 승려생활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2) 연락 이메일 : muryangsa@empal.com

※ 무량사로 출가한 행자들은 미국의 정규대학에서 불교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탈종공고

- 사찰명 : 자은암(대한불교법화종 안정사 말사)
- 주 소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902번지
- 주 지 : 자은

본사는 귀 법화종과 종지 종풍 내지 인연이 합당 하지않으므로 탈종함을 공고 합니다.

불기 2550년 8월 2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부처님의 가피로, 불자님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백년가약
사랑스런 자녀의 혼인을 현대에서....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 합장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 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 무 실 : 02)2677-5442
소 연 구 원 : 032)345-5411
휴 대 폰 : 011) 288-2944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부부갈등, 혼사지연, 학업성적부진, 가출,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 빙의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www.10cho-unse.com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6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남해
- 법당 : 13평
- 요사 : 35평
- 부지 : 500평
- 가액: 1억 9500

- 위치
- 법당 : 대전
- 요사 : 80평
- 부지 : 50평
- 가액 : 7억 5천

- 위치 : 경남
- 법당 : 20평
- 요사 : 80평
- 부지 : 850평
- 가액 : 3억 5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서울봉천동100평-4억5천
2.은평구포교당40평-월50
3.경기광주사찰850평-12억
4.여주사찰임대120평-2억
5.강원사찰물많음-5억5천
6.서울국유지무허가사찰多
•기도스님공양주신속연결

불교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포교당안내
- 위치: 마산시 산호시장앞
- 건물: 평주 30평
- 가액: 전세1천만원 월 45만원.시설비 상담후결정 (절충가능). 시설완비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55)243-3758
055)232-7151
011-599-847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인접서창 신도지
- 대지 : 60평
- 건물 1층 32평, 2층 29평 삼각 4평(단청필) 신축한지 3년(법당시설 A급)
- 가액: 2억 6천만원(대출 9천포함) 아파트 대단지 인구 10만 육박 주차시설편리

*꼭 필요하신 스님분만 전화바랍

011-868-5997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강원, 정선, 소금강
- 화남8경,용마소,종유굴,화암신약수
- 빼어난 경관 명당1필지에 9470평 (임 5370평, 전 4100평) ※관리지역

※사찰,펜션,방가로,콘도, 휴양지로 최적지
※진입로 잘 되어 있음

017-331-1579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근교
- 부지: 550평
- 법당: 15평 고찰
- 요사: 20평 산속
- 가액: 2억 1천만

- 위치: 가평
- 부지: 99평
- 법당: 30평
- 요사: 46평
- 가액: 1억 9천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주세요

삼소(구,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토 굴 안 내
- 위치 : 지리산 자락 하동 악양
- 가옥 신축 황토 기와집 33평, 부지 672평
- 가액:2억2천
- 특징 : 집 위 대숲, 집안 연못과 잔디밭

016-367-211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범일동 부산은행 앞
- 평수 : 총 70평 법당 35평, 요사 35평 복재 인테리어 최고의 설비와 안정된 여건 환경
- 보증금 5,000만원. 월50만 시설비 : 2,000만원

011-307-3473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 얼음골 주위
- 임야 450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4억5천만원
- 유명관광지 입구

010-4876-5535
010-4699-9387

사찰(급)안내
- 영천-건천 IC에서 20분 종교부지 350평 임야(뒷산)
- 대웅전 10평, 요사채 30평
- 산신각, 용왕당, 집기비품
- 가액: 1억5천만원 (답사 후 절충)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016-831-3022

위치	부지	가액
• 밀양	약1000평	2억8천
• 서울	약 90평	4억2천
• 남양주시	약1800평	17억
• 부산	4층건물 (뒷산,약수터 도심포교최적)	1억 5천 (1억5천 융자별도)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및 요양원, 양로원 최적지 (서울)
- 위치 : 서울 종로구 평창동
- 대지 182평, 건평 170평, 3층 건물
- 엘리베이터, 정자, 주차시설

※ 현재까지 양로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확정이전 관계로 안내함

02)3216-0572 / 3216-9011
011-441-1966

사 찰 부 지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가천면 동원리(가야산앞)
- 평수 816평 : 합 5천만원
- 특징 : 가야산 정상이 보이고 전망 최고, 산세 수려 절터 명당

※금액 불변,꼭하실분만 연락요망

010-9268-6166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 홍천군 하오만리
- 법당16평, 요사채31평 산신각 5평
- 대지: 1025평(국유림포함)
- 가액: 3800만원

010-9551-1201
033)435-2993

사 찰 안 내
- 위치: 광주광역시 금남로5가 (충장로5가)
- 3층 중 2,3층 사용
- 평수: 총 40평
- 2, 3층 법당으로 이루어짐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3163-474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 유성시장 (5일장) 앞
- 47평 2층건물 (옥상사용) 시설하지 약 1년 됨, 주지실, 법당 지대방, 각 에어컨, 난방완비
- 보증금 : 500만원 월 37만원
- 시설비 5천 소유(2천 1백만원) 모든 시설 완비

스님 이민으로 급매(몸만 오세요)

042)825-3020

사 찰 안 내
- 위치 : 천안
- 평수 : 1,100평
- 가액 : 9억 5천만원 (절충가능)
- 중부.경부고속도로 근접, 국도인접 요즘보기드문 명당자리 신행정수도 15분이내 근접지역

016-9558-030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남해)
- 부지 : 500평(종교용지)
- 법당 : 25평(목조, 단청)
- 요사 : 2동 50평
- 산신각 : 5평(목조, 단청)
- 가액 : 1억 9천만원
- 특징 :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계곡이 흐르는 역사 깊은 청정도량임

- 위치: 경남(함양읍)
- 부지: 800평(종교용지)
- 법당: 35평(목조, 단청)
- 요사: 40평(목조)
- 산신각 : 5평(목조, 단청)
- 기타 : 석불,석탑,석등
- 가액: 2억 7천만원
- 특징: 도심인근의 전통사찰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제주도)목조사찰 안내
- 대웅전(목조단청)25평, 요사채 30+15평(2동), 산신당(목조단청), 용왕당, 종각(단청), 석조약사여래입상, 7층탑
- 건평 약 400평, 바지하방6(100평)
- 가액: 3억 5천만원
- 특징: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일주도로변(일출봉, 우도, 한라산보임) 바다2부거리의 그림같은 전통3포기와로된 사찰임 ●직접거래

011-858-8892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근교
- 평수 : 목조 20평 요사채 43평
- 땅부지: 550평
- 가액 : 절충가능
- 용왕당, 산신각 모두 되 있음

010-2300-2209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동작구 상도2동 장승백이역 2분거리
- 대지: 66평 건평: 56평(1.2층)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4억 7천만원

02)815-0302
011-722-0302

사찰안내
- 위치: 부산시내 및 근교
- 2억, 3억, 5억, 10억, 25억 등
- 사찰 신축 부지 다량 보유

016-558-4909

사찰 및 사찰부지 안내
- 평수 : 1000 ~ 3 만평 (100% 평지)
- 가격 : 평당 25 만원 (가격 절충)
- 위치 : 서생 간절곶 바다전망 환상적 국내에서 가장 먼저 해뜨는 곳

※부산시내 사찰 및 암자, 토굴, 포교당 다수 확보

사찰전문 부산 연산 부동산
011-560-8522
051)863-6661

희소식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광주사찰 - 가액 10억
- 종교집회장 5100평 전체관리지역 - 평당 20만원
- 곤지암 전원 주택단지 5500평 - 평당 25만원
- 요양원 최고 유황물 6000평 - 평당 20만원

모두를 불교재단에 불사하겠습니다

031)767-0837/033)462-3613

포 교 당 안 내
- 위치:대전시 유성구(유성시장 내)
- 상가건물. 3층건물에 2층
- 법당 30평 집기일체 완비
- 가액: 보증금 2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500만원

042)823-3758
011-332-5299

포 교 당 안 내
- 위치:대전시 유성구(유성시장 내)
- 상가건물. 3층건물에 2층
- 법당 30평 집기일체 완비
- 가액: 보증금 200만원 월 25만원

042)823-3758
011-332-5299

암 자 안 내
- 위치: 팔공산 갓바위 뒷길 경북 경산시 와촌면
- 대지: 약 224평, 건평 40평
- 건물: 법당, 요사채 산신각 조경시설
- 가액: 2억 4천만원(조정가능)

011-529-7799
018-534-1777

토 굴 안 내
- 위치 : 진주시 대곡면 월아리
- 평수 : 178평
- 건물 2동
- 가액 : 9000만원

011-662-9242
055)745-1083
017-587-7193

전원주택 및 토굴 안내
- 위치: 충남 청양군 대치면 개곡리
- 건물 39평, 심야전기보일러, 철근콘크리트 건물.
- 대지 400평, 전,답 360평, 임야 2천평 (준농림지 대지로 용도변경 가능함)
- 특징 : 칠갑산의 장곡사 인접지역과 행정복합도시 인접지역.
- 가액 : 2억 2천

011-434-7209

사찰 인연을 맺고자합니다
- 경주 남산
- 보물 부처님 계신 사찰
- 기암 괴석 수 많이 있음
- 터 5만평 (땅 2만평)
- 요사채 공사 10억
- 온천개발 및 고시완료
- 지방도 접 35억

- 무학대사 기도도량
- 경북 포항시 죽장
- 터 2만평 요사채 등 10채
- 천하절경 계곡물 多
- 지방도 접 인연 중요시
- 불사 비용 20억

016-512-7777 / 016-502-4317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시 중구 남산동
- 법당: 30평
- 2층 건물 중 2층
- 청동아미타 부처님, 약사여래 지장보살, 각단탱화 (범종)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3,500만원 (조정가능)

053)255-8984
011-822-808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 2층건물 . 위치 좋음
- 법당 2층 28평, 요사채 1층 45평
- 대지 105평 뒤는 야산. 용왕당有,지하수 실내 화장실 2, 실외 2, 심야보일러
- 가액 : 3억 (융자 4천 포함) 절충가능

011-785-5670

암 자 안 내
- 위치 : 익산시 황동면 소재지
- 국유지 450평, 사유지 300평
- 목조인법당 25평, 조립벽돌요사 33평
- 산신각, 문화재급약사여래석불
- 시내 5분거리, 포교도량으로 적합함
- 양도가 : 1억 7천 일시불 절충가함

심심풀이 전화 금합니다

011-677-8525

사 찰 터 안 내
- 절터, 전원주택, 펜션 민박촌, 연수원, 기타
- 경남 거창군 남하면 대하리 224, 약 2000평 151-3 , 약 3000평
- 위치: 가조 온천(지산)와 (가천) 합천호 사이

016-831-3366
055) 944-663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서초구. 최고의 위치
- 평수 : 50평, 방 2칸
- 시설: 최상의 시설, 음향, 냉.난방완비 삼존불 신중 산신 조왕 탱화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3,500만원
- 주지스님 병안으로 급 안내

02)529-139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동인천부근
- 산밑에 위치하여 산세 수료 유동인원 多
- 평수: 85평
- 보증금 5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답사후 절충
- 최적합 요지
- 즉시법회가능

011-319-779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 대지 : 352평
- 건평 : 32평
- 가액 : 5천 5백만원

061)533-9046
011-631-265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 전체 2천평 임법당(20평) 요사채 산신각(전통건축)
- 산세좋고, 전기, 수도,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1억5천만원

016-9255-809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대구시 내당동 전철역에서 걸어서 3분 아파트 주택가
- 40평 3층
- 주지실, 상담실, 공양간, 화장실
- 전세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1200만원 몸만 오시면 됨

011-473-695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산자락)
- 전체평수 1,400평
- 건물 85평/ 임법당 심야전기, 일체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5억 5천만원

010-3941-0113
054)975-664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산 범일동
- 약 20평 (3층건물 3층)
- 시설일체 완비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시설비 포함 1천만원

※사정상 급히 안내함

019-634-3069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7473-5117

토 굴 안 내
- 위치: 전남 강진군 음천면
- 면적: 1,000평 (사찰에서 차 출입 가능)
- 건물 2동 (법당, 요사채)
- 가액: 사글세 (1년 280만원) 권리비 없음, 즉시 법회 가능 생활가능 시설 완벽함

010-8009-102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대구 지하철 송현역부근
- 평수: 75평 2층건물 2층, 옥상 사용가능
- 시설: 즉시법회 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1900만원 대형주차장 있음

011-450-5574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부여
- 대지 180평
- 1, 2층 건물 1층 47평, 2층 47평
- 가액: 전세 3천만원

010-7355-7388
016-294-026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대구 대명동 고남여상 구모닝병원 중간 대로변
- 4층건물 중 2층
- 평수: 42평
- 가액: 보증금 5백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900만원

010-3191-6237

토 굴 안 내
- 위치: 남원시 주생면 남원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190평 90평은 텃밭으로 사용중
- 건물 3동 방 4개, 후원, 창고, 화장실
- 가액: 4천만원

010-6401-4939
010-5631-843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서울 우이동
- 평수: 25평 1층 법당, 2층 요사채
- 시설완비
- 교통편리, 버스 5분 거리 지하철 10분거리
- 가액: 전세 7000만원

011-460-6600

사 찰 (급) 안 내
- 위치: 경남 의령군 궁류면 소재
- 임야 총 1700평 중 종교부지 허가면적 600평
- 건물: 토목공사 완공, 약 40평, 전기수도 완비
- 총 공사비 약 2억 5천만원 소요
- 가액: 2억 (방문 후 가격 절충)

주지스님이 지병이 악화되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급하게 양도 하오니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랍

055)572-0405 /011-9850-8208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익산 근교
- 대지 : 130평 건평 : 1층, 요사 50평 2층 법당 30평 산신각 5평
- 교통편리,심야보일러
- 가액: 2억 7천

017-336-7523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나주시에서 15분거리 큰도로변에서 5분 나주역까지 7분
- 대지: 400평
- 법당: 18평
- 요사채: 30평
- 가액: 1억2천만원 가격절충가능

010-6308-7320

사 찰 안 내
- 위치: 청주시내 충북대학교 약 200M 시장 약 200M 공단오거리 약 200M
- 대지 50평 1층 요사, 방 4, 주방, 화장실, 거실 2층 요사, 방 3, 주방, 화장실, 거실 3층 법당, 지하창고
- 가액: 1억 5천 5백만원

011-753-076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함안
- 마산에서 10분거리 교통편리
- 평수: 4층건물 중 2층에 24평
- 시설: 법당, 주방, 스님방, 샤워실 완비
- 24평 전체 보일러 시설 완비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저렴하게 보시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055)587-0017
011-9560-2700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당리동 혜원사
- 평수 : 2층 전체 170.80평방미터
- 방 4개, 공양실, 법당, 베란다 공간 넓음
- 삼존불과 산신, 용왕, 칠성, 탱화 봉안 되어 있음
- 보증금: 4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51)203-7896
010-7375-7896

사 찰 (급) 안 내
- 위치: 대구 남구 대명동
- 대지: 110평
- 법당: 40평(단청)
- 2층(주지실, 종무소, 요사채) 1층 (창고 및 공양간) 도심 속 기도 및 포교도량으로는 최적지 입니다
- 가액: 3억 5천만원

017-531-2888

토굴(급)안내
- 위치 : 충북 단양 접성
- 대지 : 100평, 건평 : 20평
- 조립식주택, 건축2년. 주변 자연석 많음 작은창고1, 조경, 도로접, 전기수도, 수세식
- 저렴하게 구입가능(관리지역)
- 해발약500m 금수산옆. 마항산 중턱, 앞이 확트임, 조용한 곳. 조용히 공부하실 분 최적합
- 가액 : 합 3,300만원

010-6460-1316

동국대 2005년도 후기 불교학 박사 8명

동국대 2005년도 후기 불교학(불교학과 · 선학과 · 인도철학과) 박사학위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총 8편이다. 이번 논문의 특징 중 하나는 스님들은 '수행'에 초점을 맞췄고 재가자들은 '불교 전반'을 아우르는 것에 역점을 뒀다는 것. 심사를 통과한 8편의 논문을 요약해 소개한다. 정리=노병철 기자

 # 화랑 스님(선학과)

'운서주굉의 선수행관 연구'



중국 명나라 시대의 염불수행은 운서주굉에 의해서 선과 정토를 결합한 선정일치 또는 선정겸수가 조화된 수행으로 발전됐다.

주굉은 선정일치의 관점에서 염불을 권장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토수행자는 아니었다. 하근기를 위해 염불문(念佛門)의 타력정토를 권장했지만 사실은 이사원융(理事圓融)한 화엄의 원돈관에 바탕한 유심정토로서 일심불란(一心不亂)으로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는 화엄선의 정토를 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주굉은 사회적으로 양명학과의 교류로 왕양명(王陽明), 왕용계(王龍溪), 이탁오(李卓吾)와 그리고 도교와의 교류 등 폭넓은 지지자들을 얻었다.

화엄관 바탕한 유심정토
양명학 등과 폭넓게 교류

 # 적멸 스님(선학과)

'선원청규 연구'



중국이라는 새로운 토양 위에 불교가 전해지고 또 다시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새로운 선종교단의 창립과 더불어 행동규범인 청규가 탄생되었다. 부처님의 생존시대와 백장이 생존하였던 시대는 약 1300여 년이라는 긴 시간적 차이가 있다. 부처님이 계율을 제정하여 승가를 보존하고 유지해 온 이후 1300여년 만에 백장회해선사에 의해서 승가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완비되었던 것이며, 그 명칭은 보편적으로 '백장청규'라고 부르고 있는 <선문규식>이다. 이 청규서의 구성요소로는 △주지의 승좌설법에 관한 행례 △대중의 수행생활에 관한 행례 △직책과 노동에 관한 행례 등이 있다.

승가 보존·유지 제도 완비
대중 생활 등 승단행례 담아

 # 성관 스님(불교학과)

'백파긍선의 사상연구'



조선시대 백파긍선의 선사상은 역대 선사들의 선지를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삼처전심 등에서 보이는 살활변에 의리선을 포괄적으로 삼종선에 적극 수용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선교융합을 이룬 셈이다. 백파는 선지인 의리선이라는 교학적 선의 의미를 선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으면서도 조사선으로 증득과 해득, 증오와 해오의 차이를 둠으로써 선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았다. 이러한 백파는 근기별 방편수행을 임제의 삼현문과 보조삼문, 자신이 해석한 삼종삼매를 몽환삼매와 구중현, 간화경절문, 진여삼매로 일치시켜 수행의 근거로 삼았다. 또 백파는 사부대중이 함께 수선결사(1822)를 도모하기도 했다.

역대 선사들의 선지 통합
살활변에 의리선 포괄 수용

 # 배관성(불교학과)

'인도밀교의 성립배경 연구'



불교 역사상 가장 나중에 성립된 밀교는 인도불교의 모든 교학과 수행체계를 통합하고 부처가 설한 연기법을 인도의 종교적 전개에 따라 변모 · 정착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기설의 중심이 되는 무아설과 중도설의 교리는 부파불교 이후 대승불교시대를 여러 사상적 발전을 이룩했지만 공통적으로 공성과 현상의 실체를 해명하는데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으며 밀교와 관련한 진언과 만다라 등의 의궤도 이러한 교리적 토대를 계승해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밀교의 성불론은 궁극적인 성불에 대해 중생과 윤회의 세계마저 진리의 세계로 포용하면서 중생을 구호하는 이타적 의미가 더 강조됐다.

인도불교 교학 · 수행법 통합
중생구호 이타심 강조

 # 문무왕(불교학과)

'북위불교와 석굴조영 연구'



북위(北魏)의 석굴조영은 북위의 사회 · 문화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임과 동시에 중국의 불교 정착화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증거다. 즉 용문석굴의 개착과정을 통해 북위사회에 불교가 한층 더 공고히 뿌리내리는 모습을 살필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는 한족화 과정과 불교신앙의 성숙 등이 함께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 운강석굴의 개착은 국가불교화 과정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불교화 특징이 석굴조영의 특색에 나타난다. 특히 북위의 국가불교적인 틀은 건국시기의 '승관제' '황제즉여래' 사상과 같은 형태로 표출된다. 한편 용문석굴은 북위불교의 발전양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운강석굴 개착과정서
국가불교화 특징 나타나

 # 정진홍(선학과)

'조주선 연구'



조주선사의 생애는 그대로가 선종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다. <경덕전등록> <벽암록> <무문관> 등은 조주선사의 선사상을 그의 법계와 연결하여 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전등사서와 공안집에서는 조주 선사상의 특징을 대체로 마조 → 남전→ 조주로 이어지는 사상적 핵심인 '평상심'과 관련되어 대기대용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조주 선사상은 마조선사의 홍주종과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30여 년을 시봉한 남전선사의 이른바 '평상심시도'는 조주 선사상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다. 또 당시에는 조주선사의 선풍을 '조주법도'로 칭하는 등 그 법화가 널리 유행했다.

조주의 생애 자체가 선종사
사상적 핵심 '평상심'

 # 황정일(인도철학과)

'설일체유부의 삼세실유설 연구'



세친(世親)이 설일체유부의 삼세실유설을 비판하는 기본적 입장은 <승의공계경>에 근거한 것으로 "본래 없다가 지금 있고 있다가 없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비록 찰나적 시간이지만 현재라는 시간을 인정하는 것이다.

반면 유부의 존재론적 관점은 과거와 미래에 실유하는 법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세친이 현재법만의 실유를 근거로 현재의 실유만을 주장했다면, 유부는 과거 · 미래법의 실유를 근거로 과거 · 미래의 실유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세(三世)가 실유한다는 것은 법체가 항유한다는 것은 곧 삼세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 된다.

찰나적 시간 현재 인정
과거 · 미래 실유하는 법

 # 장미란(불교학과)

'中불교 정착화 과정서 본 도가와의 관계'



중국 후한시대의 황노학은 신선사상을 수용해 종교철학적 성향으로 모습을 바꾸면서 황노의 신격화 현상과 장생불사를 추구하는 초기 도교의 성립에 이론적 근간과 불교의 전래시기에 전래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당시 불교는 대 · 소승경전의 번역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유교문화와 중화의식 때문에 전파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다가 위진시대에 '격의'라는 형태로 주목받으면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남북조시대에는 다양한 불교교리와 경전이 소개됐으며 이를 접한 불교도들은 '경전에 나타난 근본사상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종(宗) 의식'도 태동했다.

후한시대 불교-도가 인연
위진 때 '격의' 형태로 주목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59>

자동차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은 아마도 자동차가 아닐까 싶다. 30년 전 정부가 '마이카시대'를 이야기했을 때 집집마다 자동차를 소유할 것이라고 믿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오늘날 마이카시대는 현실로 다가왔고 한 집당 2대의 자동차를 가진 집도 흔하다.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자동차는 이제 우리의 생활 패턴까지도 바꿔 놓았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시간과 공간의 변화이다. 자동차가 없던 시대에 가장이 하루 평균 움직이는 거리가 수 km 정도였다면 지금은 수 백 km정도 될 것이다.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거리를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이런 자동차는 생활의 편리를 가져다 준 반면 부정적인 면도 가져다주었다.

석유 에너지 고갈 · 이산화탄소 배출 주범
언제까지 욕심과 편리만 추구할 것인가

가장 큰 부정적인 면은 역시 석유 에너지 고갈과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이라는 점이다.

자동차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대기권에 잔류하면서 지표면에서 우주로 방출하는 에너지를 방해함으로써 지구 온난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인류는 매년 수억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권으로 쏟아내고 있다.

자연은 이산화탄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시 지구로 불러들인다. 식물의 광합성 그리고 바닷물의 자연용해과정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자연이 이산화탄소를 자연 분해하기에는 인류가 쏟아내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기술자들은 석유를 태우는 엔진 대신 전기로 가는 연료전지차를 미래의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어느 화학자는 인류의 발전을 에너지를 소모하는 방법에 대한 역사로 보기도 한다. 일반적인 물리학 법칙으로 설명하면 전체 에너지 양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단지 에너지의 저장 형태를 바꾸어서 인간에게 편리하게 사용하는 역사라는 뜻이다. 기성세대는 굴뚝에 검은 연기가 나는 공장을 국가 발전의 상징으로 여겼던 때를 기억할 것이다.

이후 인간은 석유를 고급 에너지원으로 개발했다. 석유는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탄수화물이다. 이 수소를 떼어내고 탄소를 산소와 결합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다.

부산물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과학기술자들은 탄소 대신 수소를 산소와 결합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얻고자 한다. 이때 배출되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아닌 물이므로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다. 연료전지가 바로 수소를 저장하는 장치이다. 가장 어려운 것은 어떻게 수소를 경제성에 맞게 저장시키는 장치를 개발하는가에 있다. 수소는 가벼우므로 가벼운 용기에 많이 저장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주말에는 사찰이나 교회 부근 주차장에서 주차로 인한 싸움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이뿐인가, 종교인도 더 크고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한다. 부처님은 항상 지나친 욕심을 경계하라고 설하셨다. 종교적 신념과 무관하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일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전통따주기지도사 강좌(2박3일) 안내

1. 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따주기의 특징
-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합니다.
-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키고, 나쁜 피는 사혈합니다.
- 월 1회 따주기로 사전 건강관리
-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 자신 및 가족 건강관리
- 학생지도(고교생, 대학생)
- 신도 포교
- 따주기 사회봉사
- 전통따주기지도사로 활동

4. 따주기로 건강관리 범위
- 뼈 및 수술한 부위를 제외한 모든 분야
- 마음과 육신

5. 강좌 인원
- 선착순 20명(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직접강의)

6. 9월 강좌일
- 2006. 9.8(금) ~ 10(일)

7. 특전
- 18시간 교육이수 후 수료증 수여
- 교재 · 사혈기 및 필수 부항 · 폼프 보시

8. 강좌문의 054)837-3477
(장소: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내)

한 국 전 통 따 주 기 연 구 원

당신에게 연꽃향기를 전해드립니다

혜정정사의 밀교수행강좌 모음집



불교TV에서 방영됐던 혜정 정사의 밀교수행강좌 26회분 모음집입니다.
컴퓨터로 볼 수 있고 일반 DVD로도 볼 수 있습니다.
DVD로 볼 수 있는 것은 압축한 시디 1장입니다.
모두 10장이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100세트 한정으로 제작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배송료를 포함해서 6만원**입니다.
국민은행(예금주 : 최종웅) 계좌번호 661725-89-144651로
송금하시고는 반드시 전화 **031)254-2585**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송금확인과 주소확인이 되는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 주 문



고승대법회에서 법문

부산 영주암 회주 정관 스님은 8월 12일 오전 10시 부산 범어사 설법전에서 열리는 '지장백일기도 및 고승대법회'에서 법문한다. (051)508-3122



수재민 돕기 산사음악회

양양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은 8월 12일 오후 7시 30분 낙산사 보타락 특설무대에서 수재민 돕기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033)672-2447~8



충남지역서 생명평화도보순례

생명평화탁발순례단장 도법 스님은 8월 22일부터 금산군을 시작으로 논산 공주 서산 천안 등 충남지역을 도보순례한다. (063)636-1950



'산사에서 만나는 상담' 개최

불교상담개발원 원장 정덕 스님은 8월 12~13일 동학사에서 '제7회 산사에서 만나는 불교와 상담' 행사를 갖는다. (02)737-8803



인도 다람살라서 의료봉사

동국대 김용택 부총장은 '동국참사람봉사단'과 함께 8월 8~21일 인도 다람살라 일대에서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2006 해외문화 의료봉사'를 실시한다.



경원 스님 초청 법회

대전 보현불교대학 오상현 관장은 8월 9일 오후 7시 보현큰법당에서 '불교의 본질'을 주제로 광덕사 주지 경원 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한다. (042)624-6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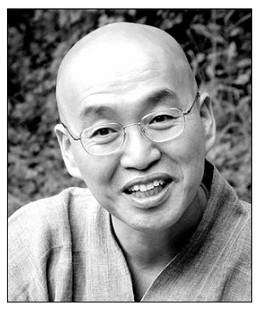
"이념떠나 인간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북한 수해주민에 구호품 보낸 JTS 이사장 법륜 스님

"북한의 장마 피해는 지난 95년에 버금갈만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확인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사망 및 실종자가 1만여명, 이재민이 130만~15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안타까운 소식마저 들려오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모른척 할 수 없었습니다."

대북 지원 민간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7월 26일 북한 수해 주민 돕기 성금모금에 나선 한국제이티에스(JTS) 이사장 법륜 스님(사진)은 "북한 수재민 돕기는 민족적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기준으로 볼 때도 긴급구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 수재민돕기는 북쪽에서 요청하기 전에 먼저 법륜 스님이 제안했다.

무엇을 지원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보자 북측에서 쌀과 밀가루 등



생필품을 원했다. 법륜 스님은 "북한에서 응답이 오지 않았어도 지원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인들과 시민사회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북한과 정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인줄 압니다만 이념을 떠나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물을 보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륜 스님이 보고 받은 북한의 장마 피해는 생각보다 컸다. 황해남 · 북도, 강원도, 평안남도, 함경남도의 함흥 이남이 집중적인 피해를 입었다. 특히 평안남도 양덕군, 신양군, 맹산군, 강원도 금강군 등이 심각하다.

"우리도 수재를 입어 여러 어려움도 있지만 북한 정부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북한 주민들을 깊이 헤아려 수재민을 돕는 일에 국민이나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앞장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제이티에스는 8월 3일 라면과 밀가루, 의류 등 모두 1억여원 상당의 물품을 평안남도 양덕군 수재민들에게 보냈다. 또한 8월 5일 중국 단동에서 그릇 3만개, 수저 5천개, 이불 2천개 등 5천여만원 상당의 구호품을 신의주로 보냈다.

김주일 기자 jjkim@buddhapia.com

시정유공시민상 수상

관음의 집 이정숙씨

대구 동화사가 대구종합복지회관으로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는 무료급식소 관음의 집 관리 봉사자 이정숙(사진)씨가 8월1일 대구시로부터 시정유공시민상을 수상했다.

대구시정유공시민상은 대구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온 시민에게 주는 상이다. 이정숙씨는 10여 년간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관음의 집을 관리하면서 불우노인과 소외계층에 무료중식을 제공하고, 대구교도소 재소자를 위문하는 등 다양한 봉사 및 교화사업에 참여한 공로로 수상하게 됐다.



관음의 집은 자원봉사자 180여명의 도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5세 이상의 불우노인 150여명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다.

배지선 기자





만해 스님 '8월의 독서인' · 심우장 '8월의 문화재' 선정

만해 한용운 스님(왼쪽 사진)이 8월의 독서인으로 선정됐다. 만해 스님이 말년을 보낸 '심우장'(오른쪽)은 이달의 문화재로 뽑혔다.

한국독서학회(회장 박인기 · 경인교육대 교수)는 "시인이자 3 · 1운동을 이끈 민족 지도자였던 만해의 삶은 폭넓은 독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는 독서를 통해 사상의 자유를 근간으로 삼아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모든 내용들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강조했다"고 8월의 독서인으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도 "1919년 3 · 1운동 때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서 공약삼장을 집필하고 항일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하신 만해 한용운 스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가 태어난 8월에 심우장을 '이달의 서울시 문화재'로 선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김군자 할머니 5천만원 쾌척

아름다운재단에 "고아 위한 장학금으로 써 달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공동체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김군자 할머니(81 · 사진)가 지난 6년간 모은 생활비 5000만원을 7월 31일 '아름다운 재단'에 고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 돈은 김군자 할머니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월 85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모은 것이다.

김군자 할머니의 나눔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 나눔의 집에서 건립하고 있는 전문요양시설에 1천만원을 기부했으며, 2000년에도 아름다운 재단에 고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평생 모은 재산 5천만을 기탁한 적이 있다.



김군자 할머니는 강원 평창군 출생으로 13세때 부모를 여의고 17세에 일본군에게 끌려가 해방되던 해까지 3년 동안 중국 훈춘에서 위안부 생활을 했다. 1996년 위안부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98년 3월 나눔의 집에 입주했다.

남동우 기자

염불만일회, 불국사서 여름성지대회



전국염불만일회(공동대표 김재일)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경주 불국사에서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 2006년 제9차년도 여름성지대회를 개최했다.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 등이 참석한 대회는 아미타불장엄염불 및 48대원, 다보탑 석가탑 탑돌이 행선염불기도, 육바라밀 · 육염불 실천다짐 등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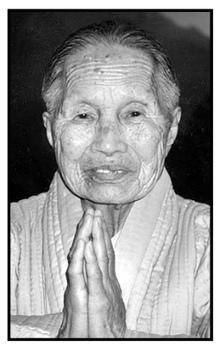
성남 봉국사 백중 7일 지장기도법회



성남 봉국사(주지 효관)는 8월 2일부터 7일까지 경내 심검당에서 큰스님 초청 백중 7일 지장기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2일 묘허 스님을 시작으로 효관 성렬 정관 자광 정목 스님 순으로 진행됐으며 8일 암도 스님을 끝으로 회향했다. 이에 앞서 1일에는 춘성 스님 다례재가 열렸다.

큰스님 3代 모신 '큰보살'

혜암 스님 30년 시봉 광명화 보살 107세로 입적



前 조계종 종정 혜암 스님을 30년간 모셨던 광명화(김봉수 · 사진) 보살이 7월 25일 107세 나이로 해인사 원당암에서 입적해 28일 영결식이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해인총림 원로스님과 원당암 대중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이 직접 추도사로써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광명화 보살은 경봉 스님과의 인연을 시작으로 혜암 스님의 은사였던 인곡 스님을 10여 년간 모셨다.

이어 혜암 스님을 30여 년간 시봉했으며, 2001년 혜암 스님이 열반에 들자 현 원당암 감원 원각 스님까지 3대에 걸쳐 시봉했다.

광명화 보살은 바느질 솜씨가 좋아 스님들의 승복을 직접 만들고, 전국사찰을 순례하며 공덕을 쌓았다.

광명화 보살의 삼보에 대한 지극한 공경심은 유별날 정도로 유명하다. 100세가 넘었음에도 스님들을 위하고 공경하는 모습이 한결같았다는 것. 해인사 스님들 중 보살이 만든 법복을 입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로 공경심이 남달랐다.

특히 팔순에 접어든 1979년부터는 아들, 딸, 손자손녀를 둔 다복한 가정임에도 속가와의 인연도 끊고 원당암에 들어와 스님과 똑같이 정진했다. 안거결제뿐 아니라 용맹정진에 참여했으며, 틈만 나면 밭일을 하는 등 수행의 모범을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신심은 손녀중 하나를 발심출가시키기도 했다. 안동의 한 사찰에서 정진하고 있는 지은 스님이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이전

한 · 몽골 불교교류협회 사무실 이전

한국과 몽골 불교 친선교류와 우호협력을 위해 창립한 사단법인 한 · 몽골 불교교류협회(이사장 지성)는 8월 4일 대구불교회관 2층 사무실을 마련, 이전 개소식을 열었다. (053)657-0408



경주 도심속 자연경관이 수려한 「비구니선원」 분양안내

경주시 충효동 선도산에 위치한 금선사 여래선원은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비구니 스님의 수행처를 성황리에 분양합니다.

경주시내, 동국대병원, 경부고속철도, 고속버스 5분거리, 교통의 요지이자 편안한 지리적 여건으로 생활의 편리함은 물론 개별 단독(난방) 충열식 심야온돌 · 온수 등 불편함이 없는 최적의 수행처를 제공합니다.

제3차 여래선원 보현동 분양내역

(1차 금선선원 30세대, 2차 여래선원 문수동 24세대 완전분양 완료되었음)

■ 28평형 - 2세대
■ 22.2평형 - 6세대
■ 18평형 - 6세대
■ 14평형 - 8세대

총 22세대 평당분양가 (390만원)
(8월 30일까지 완납시에는 360만원으로 할인 분양함)

※ 먼저 분양금 내신 스님 방부터 모델하우스를 꾸밀 계획이오니 뜻이 있으신 비구니 스님께서는 연락하여 주십시오.

찾아오시는 길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번지 • 문의전화 : 054)772-7171 / 011-538-3879

대한불교 조계종 선도산 금선사 여래선원 주지 휴정 합장



불자 세상보기

이 우 상
대진대 국문학과 겸임교수

자국민 보호 능력 몇 점?

어린 시절, 장래 희망이 해적이라고 떠들고 다닌 엉뚱한 친구가 있었다. 산적은 험상궂고 지저분하지만 해적은 폼이 멋지다는 것이다. '캐리비안의 해적'이란 영화가 나오기 까마득한 이전이지만 종종 만화에 해적이 그럴듯한 영웅으로 그려지곤 했다. 실제 목격하지 못한 추상에 대한 동경이었다.

추상의 해적이 벌건 21세기에 진짜로 나타나 동원호 선원 25명을 117일 동안 억류했다. 납치 당시에는 온 나라가 들끓더니 여느 일처럼 차츰 잊혀져갔다. 망망대해에서 야만적인 해적떼들에게 시달렸을 선원들의 외상과 내상이 처절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 언론, 국민의 기억에서 자신들이 잊혀지고 있다는 두려움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소말리아 해적은 이성적 교섭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연되었겠지만 정부의 자국민 보호 시스템과 역량, 의지를 다시 생각게 한다. 사안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낙관, 먼 산 불구경하는 듯한 외교 시스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이 터지면 가족과 회사만 발을 동동 구르고 가슴이 숯검정이 된다.

미국은 자국민 한사람을 위해서 지구 끝까지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꺼이, 신속하게 행동에 나선다. 그래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감동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우리 정부의 자국민 보호 의지와 역량은 자못 회의적이다. 외국 여행 중 난처한 일을 겪어 현지 대사관의 적극적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 멀게는 국군 포로 송환 문제, 가깝게는 김선일 씨 사건 등 정부의 처신은 미덥지 않다. 예측 가능한 일은 물론이고 돌발 상황, 불가항력의 천재지변까지 무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정부다. 세금 걷어 높은 의자에 앉아 유유자적하라고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한 달 전, 학생 다섯 명과 치악산 아래 외딴 집에 2박3일 일정으로 문학 캠프를 갔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S군도 참여했다. 약, 휴대용 산소호흡기 등 만약에 대비해서 꼼꼼하게 챙기라고 일렀다.

이튿날 오후, 위급 상황이 발생했다. 갑자기 얼굴이 파래지고 심장에 이상이 생겼다. 119에 긴급 타전했다. 30분 후 황색 제복의 119대원이 구급차를 몰고 왔다. 비포장 4킬로미터나 되는 외딴 집에 신속하고 용감하게 출동했다. 병원에 이송된 S군은 건강을 되찾았다. 경황 중 이름조차 알아두지 못했다. 원주소방서 소속 그 분들께 감사드린다.

외국에서 일어나는 사태에 대한 조치도 119 활동만큼 되었으면 좋겠다. 납치 단체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시간을 쏟고 동원수산이라는 회사의 등을 떠밀고 정부는 뒷전에 앉아 있었다는 느낌이 강하다.

협상이든 무력 진압이든 속전속결로 해결할 수 있는 정예 요원을 길러야 한다. 해적떼보다 지혜, 장비, 전략이 못해서야 되겠는가.

장래 희망이 해적이라던 친구는 소방공무원이 되었다. 지금은 소방 간부가 되어 위급한 현장에 달려가 진두지휘 하고 있다.

황색 제복을 보면 든든하다. 미국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 1위는 911대원이 되는 것이다. 멸사봉공, 이타행의 정신이 미국을 유지하는 튼튼한 힘임을 보여주는 징표다.

우린 아직, 소방병원이 없다. 불길 속에 뛰어들어가 사망해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는다. 부상을 당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비로 치료해야 한다. 용맹을 떨치기에 주저되는 뒷받침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역사 속 '포교에너지' 발굴하자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불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많은 불교인들과 불교문화들이 역사와 문화를 빛내는 존재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한 인물과 문화를 보존, 발굴, 계승하는 것은 우리 민족 전체의 일이겠지만, 불교인들은 더더욱 그러한 일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앞장서야 할 일이다. 더구나 불법을 펴는데 그 이상의 좋은 재료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을 빛낸 불교인들이나 불교문화재를 선양하는 일에 그동안 너무나 소홀히 해 온 아쉬움이 있다. 우선은 가시적인 효과가 보장되지 않아서인지 단기적인 포교에만 몰두하여 한번 이룩되면 긴 세월 무한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보배를 사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군위 인각사에서 일연 스님 탄신 800주년을 맞아 각종 행사를 기획하여 성공적으로 치러낸 것은 새로운 비전을 주는 것으로 주목받아야 할 것이다.

삼국유사 문화제를 기획하고, 그 기간에 국무총리상과 문화부장관상을 주는 문학상을 제정하여 일연 스님을 기리고, 삼국유사의 가치를 널리 선양하며, 그를 통해 불교를 알리는 쾌거를 이룩한 것이다. 이번 삼국유사대제전의 성공적 개최는 불교계의 관심과 힘을 모은다면 얼마든지 불교문화와 불교 인물을 통해 새로운 포교의 장을 열 수 있는 크나큰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훌륭한 기획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행사를 치른다는 것 자체가 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며, 그를 통해 다시 정부와 지자체의 불교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일이다.

종교 자체를 직접적으로 포교하는 것은 이미 뒤진 방식이다. 문화와 역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면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알리는 이러한 방식의 포교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과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발굴·선양해야 할 훌륭한 불교문화와 인물은 너무도 많다.

이번 일연 스님 탄신 8백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문화와 인물을 소재로 한 방식의 포교가 대폭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법조인의 청정성

나라를 위해 벼슬에 있더라도 탐욕하지 않아야 하고, 승진에만 매달려서도 안될 것이며, 오욕락에 빠지거나 청탁에 개입해서는 더욱 안된다. 그러한 마음으로는 벼슬에 있을지라도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없다. 항상 본인이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앞에 떳떳히 설 자세가 돼 있어야 한다. 〈불반니항경〉

법조계가 자정(自淨)을 위한 강력한 해결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대법원은 평판사 993명의 등록재산 실사(實査)를 벌여 99명이 부실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연이은 법조비리 사건에서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정치인들과 유착한 일부 판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밝혀진 후라 더욱 눈길을 끈다.

재산 실사는 법관의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재조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판사 재임용 심사의 강화와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감찰기구 신설 움직임 역시 같은 맥락의 자정노력이다.

대한변협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변호사 9명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명령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변호사의 비리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징계절차가 정지되는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초유의 사례라는 점에서 비장함까지 엿보인다.

하지만 이런 자정 움직임이 일과성(一過性)에 그쳐서는 안된다. 실사대상 판사의 10%가 공직자윤리법을 우습게 알고 부실신고 혹은 부정신고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잘못이 확인되는데도 자기식구를 보호하기 위한 비공개나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면 자정 본래의 의미를 망각하는 것이다.

변협은 비리혐의 변호사를 방치해오다시피 한 만큼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분명히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 김주일(취재부 기자)

열린마당 수해복구 현장을 다녀와서

장마와 집중호우는 끝났지만 수재민의 고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사찰과 불교계 단체들도 자원봉사단을 꾸려 피해지역 복구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수재가 나자마자 즉각적으로 가장 피해가 컸던 강원도 복구현장에 투입됐던 불자 2인의 소감을 들었다.

지원금 전하고 종일 구슬땀

7월 23일 이른 아침 5시 30분경. 평상시 성지순례를 가거나 절에 올때의 복장이라기 보다는 작업복(거사들은 등산복, 보살들은 몸빼)차림에 운동화를 착용하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금방 250여명으로 불어났다. 대형버스 7대에 삽과 고무장갑, 양동이 등을 나누어 싣고 공양간에서 정성껏 지은 밥과 김치를 아이스박스에 담아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으로 출발하였다.

출발한지 세시간이 조금 넘게 지나 목적지가 다가오자 차창 밖으로 보이는 폐허의 모습에 우리 모두는 망연자실!

조계사 자원봉사단이 도착한 곳은 재해대책본부 역할을 하고 있는 평창군 진부면에 소재하고 있는 진부중학교. 이미 이곳에서는 월정사를 중심으로 활발한 재해복구 작업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산간 비탈에 애써 일군 밭은 어디가고 돌밭으로 변해 있었다. 빙산의 일각처럼 토사에 묻혀 지붕만 남아 있는 집들, 그나마 기둥이라도 튼튼하게 시공하였기에 이 정도지 아예 집 자체가 휩쓸려 간 흔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봉사단 일행은 조계사 주지스님과 신도회장이 대표로 재해복구 지원금과 구호물품을 월정사 주지스님께 전달하고 진부면 신기리, 마평리, 속사리 일대로 30여명 단위가 1개조로 편성되어 구체적인 복구작업에 들어갔다. 우리는 토사로 엉망이 된 파프리카 하우스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파프리카 한그루라도 살리기 위하여 구슬땀을 흘리며 작업에 열중했다.

일주일 내내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던 마을 주민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달콤한 점심공양을 마친 후 이어진 작업은 오후 6시가 되어서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하루 작업량을 완수했다는 기쁨보다는 한 달여 정도는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야 할 현장을 뒤로 한 채 답답한 심정으로 귀경버스에 몸을 실었다.

이세용(조계사 총무과장)

고통 나누는 기쁨 새삼 느껴

연일 계속되는 장마로 전국 곳곳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특히 강원지역은 피해가 극심했다. 천태종 복지재단 직원들과 자원봉사자 26명은 7월 19일 산사태로 원통보전이 심하게 훼손된 평창군 진부면 진강사로 급히 떠났다.

나 또한 부처님 가르침인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정신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함께 떠났다. 원주를 지나 평창에 가까워질수록 마치 먼나라 얘기 같던 수마가 휩쓸고 지나간 현장이 눈앞에 펼쳐졌다. 다리위에 얽혀있는 커다란 나무, 지붕꼭대기만 남겨진 채 흙에 뭍혀 있는 집들, 토사가 뒤덮은 도로, 진강사가 가까워질수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다리,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하천인지 알 수 없었다. 무간지옥이 따로 없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참담하게 했다.

진강사에 도착해 경내를 둘러보니 피해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무너져 내린 원통보전앞에서 다시 한번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자연훼손이 우리에게 준 슬픈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왜 그리도 많은 나무들이 잘려 나가 곳곳에 쌓여져 있었는지 암담했다.

진강사 법당 안에도 나무토막과 흙이 가득차 있어 복구의 손길을 몹시 힘들게 했다. 하지만 불자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늘 부처님께 도움을 청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산사태로 부처님께서 곤란을 겪고 계시니 우리가 힘껏 도와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을 했다.

정상적인 복구때까지 구석의 작은방에 모셔져 있어야 할 부처님을 보자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치유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올랐다. 수해복구 자원봉사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강미숙(천태종 복지재단 팀장)

'현대' 만평 심 민 섭



아직도 신문광고에만 매달리십니까? 불교도 인터넷 시대! 광고도 인터넷 시대!
http://ad.buddhapia.com 주소창에 "애드부다피아" 만 치세요.

불교 최초 실시간 온라인 광고 사이트
애드부다피아!!

인터넷 세상, 이제 불교계도 모든 광고와 정보를 인터넷으로 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급하게 전해야 하는 사찰관련 홍보나 행사, 법회안내, 그리고 급하게 구하는 구인구직자리...등
아직도 신문이 나오는 날짜만 기다리며 광고를 하십니까?
이제 애드부다피아를 통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광고의 본질적인 효과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애드부다피아는 주요 검색포털사이트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모회사인 국내 최고의 불교신문인 현대불교신문사와
불교포털사이트인 부다피아와 붓다뉴스와 연계하여 전략적인 마케팅 공략을 함으로써 귀사의 소중한 광고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여 드립니다.
지금 바로 애드부다피아로 접속하세요!!

빠른 속도로 실시간 광고를 확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간지인 불교계의 신문에 광고를 하려면 최소 1주일에서 많게는 2주 이상이나 광고접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홍보기간이 중요한 법회나, 행사 등과 관련한 광고의 경우에는 원하는만큼의 광고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애드부다피아는 실시간으로 바로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급박하거나 홍보기간이 중요한 광고에서 최대효과를 약속합니다.

광고 신청도 빠르고 편리합니다!
일일이 전화나 팩스로 광고를 신청해야 하고 또 광고문안이 나오면 다시 확인,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애드부다피아는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또 바로 온라인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부다피아, 붓다뉴스가 함께 합니다.
국내 최대의 불교포털사이트-부다피아, 국내 최대의 불교 인터넷 뉴스 -붓다뉴스와 함께하는 부다피아는 이미 불교계에선 국내 최대의 방문수를 자랑합니다. 애드부다피아는 이러한 부다피아, 붓다뉴스와 상호연계하여 광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최다노출을 극대화할 수 있어 가장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광고와 함께 풍부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으로 인하여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없었던 지면광고와는 다르게 애드부다피아에서는 표현하고 싶은 광고의 모든 컨텐츠를 담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물론, 보다 역동적인 동영상 서비스로도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수정, 보완이 가능한 편리한 광고 시스템입니다.



[광고접수문의] http://ad.buddhapia.com / admaster@buddhapia.com 전화 : 02)2004-8213~7, 02)732-1522(직) / 팩스 : 02)737-0696

마하쉬트라주, 印 불교 중심지 급부상

뿌네 대학에 불교학과 · 빠알리어과 설치
아잔타 사원 등 유적 많고 불자 20% 달해

인도의 경제수도 뭄바이(Mumbai). 마하쉬트라주의 수도 뭄바이(과거의 봄베이)는 인도에서 가장 분주한 국제공항과 항구를 지니고 있는 명실공히 인도 최대의 관문이자, 인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인도의 최대 중심지이기도 하다.

마하쉬트라주는 인도의 대표적 유적인 아잔타 석굴사원군과 엘로라 석굴사원군으로도 유명하다. 특이하게도 불교, 힌두교, 지인교 유적이 혼재해 있는 엘로라 석굴사원군은 마치 종교전시관처럼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일반적으로 룸비니(현재는 네팔 영토) · 부다가야 · 녹야원 · 쿠시나가라 등 인도불교 4대 성지가 위치한 주가 불교세가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인도에서 불교세가 가장 강한 곳은 마하쉬트라주다. 마하쉬트라주의 불교 인구는 주 인구의 20% 가량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도 인구 중 불교 인구가 0.7%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다.

이렇게 마하쉬트라주에 불교인이 많은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불가촉천민 출신으로 불가촉천민 지위향상에 앞장섰던 암베드카가 마하쉬트라주 출신으로, 힌두교를 버리고 불교로 개종하면서 암베드카와 함께 불교로 개종한 인도인들이 이곳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아잔타와 엘로라 석굴사원 외에 뿌네(Pune) 근방에만도 수많은 불교석굴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위빠사나 수행센터의 총본산이 이곳 마라쉬트라주의 이갓뿌리(Igatpuri)에 위치해 있다. 마하쉬트라주는 인도에서 불교의 중심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이런 가운데 동양의 옥스퍼드라 불리는 마하쉬트라주 뿌네의 '뿌네대학'에 올해부터 빠알리어과가 독립 학과로 운영되고, 암베드카와 불교를 배울 수 있는 불교학과도 신설된다.

대학 측은 이미 산스크리트어과의 학과장을 빠알리어 전공 교수로 교체했다. 빠알리어가 부처님의 경전 언어임을 감안하면 빠알리어과 신설은 불교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빠알리어는 산스크리트어와 지방언어과에 포함된 형태로 강의가 이뤄졌었다. 여기에 불교학과가 신설되면 불교학 연구가 활성화돼 인도불교에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뿌네대학 전경. 뿌네대학은 올해부터 빠알리어학과와 불교학를 신설해 불교학 활성화에 나선다.

뿌네대학은 이와 관련해 10월 경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정규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빠알리어와 불교학 강좌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뿌네대학은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등지에서 스님들을 교수로 초청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서두르는 한편, 빠알리어과와 불교학과를 위한 새로운 건물을 건축 중이며, 내년 1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런 일련의 계획은 단순히 학교 차원이 아닌 마하쉬트라주 차원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주정부가 불교를 부흥시키려는 야심찬 계획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뿌네가 인도를 대표하는 학문의 중심지 중 한 곳이자, 미래 인도의 IT 중심도시로 각광받고 있음을 감안하면 주정부의 계획은 의미가 크다. 마하쉬트라주는 이제 인도불교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도=하다경 통신원

中 소림사 '비방약' 상품화된다

허난성 중의학원과 생산계약

중국 허난(河南)성 숭산 소림사가 세계 의약업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소림사 방장 쓰융신 스님은 7월 28일 중국 대표 신문중 하나인 <국제재선(國際在線)>과의 인터뷰를 통해 "허난성 중의학원과 정식 계약해 소림사 승려와 수련생들을 의약 제조 과정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의학원에 위탁 교육을 하는 동시에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소림사 전통 고유 비방을 바탕으로 의약품을 공동 생산한다는 것이다.

이에 중국 최고의 무협 소설가 진융(金庸)의 소설에 등장하는 '환혼탕(還魂湯.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약)' 과 소설 속의 상처치료 명약인 '금강대력환(金剛大力丸)'도 상품화돼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소림사는 지난해부터 자체 제조한 약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적으로 판매해 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생산량을 대폭 늘려 본격적인 의약품 사업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국제재선> 보도에 따르면 "소림사에는 오래전부터 각종 비방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특히 환혼탕의 경우 정신이 혼미해 진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있다"고 소림사의 한 관계자가 주장했다고 전했다.

금강대력환에 대해선 윈난(雲南)성의 상처 치료제인 '백약(白藥)'과 성분이 비슷한 것으로, 무술 훈련 중 골절상이나 찰과상을 입은 승려들에게 주로 쓰던 약으로 알려져 있다.

소림사는 1998년 '소림사 실업발전유한공사'라는 회사를 설립, 해외 무술 공연으로 큰돈을 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드라마와 영화 제작사를 세우고, 자체 상표도 100개 넘게 등록하며 사업을 확장해 왔다. 해외의 50여 개 도시에 소림사 분원을 내 그동안 수만 명의 수련생을 배출하기도 했다. 이런 소림사에 대해 지나치게 상업성을 추구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뉴질랜드 남국정사 수선화 수확 한창

수익금 모아 불사에

뉴질랜드 남국정사가 위치한 오클랜드는 지금 봄을 맞고 있다. 한국의 3월쯤이다. 봄이 되면 남국정사 화원은 수선화로 수놓아진다. 올해도 변함없이 희고 노란 꽃들이 피어나 남국정사 식구들의 일손을 바쁘게 한다.

남국정사 신도들은 수선화를 잘 가꾸어서 내다팔고 그 수익금을 불사금으로 쓰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남국정사는 오클랜드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에 6.5헥타르의 수선화 밭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매년 수선화를 수확해 2만불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

올해는 특히 큰법당, 공양간, 요사채 등을 세우기 위해 불사기금을 모금하고 있는 터라 수선화 판매 수익금이 더더욱 절실하다.

신도들은 매주 일요일 법회가 끝난 뒤 수선화 꽃을 따기 위해 공동울력을 한다. 평일에는 화요일과 목요일 2개조로 나누어 노력봉사하고 있다.

이곳에 사는 한국 불자들은 부부 모두가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손이 귀한 상황이지만 자력으로 불사금을 마련한다는 기쁨에 오늘도 구슬땀을 흘린다.

뉴질랜드=보리안 통신원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암울한 티베트 민족의 앞날

칭장철도 개통으로 한족 이주 · 전통파괴 가속
中-印 관계 개선 … 자주권 회복 더 힘들어져

금년 7월 1일 중국 칭하이(青海) 성과 티베트 수도 라사를 연결하는 철도가 개통되었다. 이 철도는 해발 4,000m가 넘는 지역으로 이어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놓인 철도'로, "앞으로 티베트 개발과 관광 산업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졌다.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특급 관광열차를 타고 24시간이면 라사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니 '티베트 관광 산업'이 성장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 철도 개통이 가져올 '어두운 면'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다. 기껏해야 "풍광 훼손 등 부작용 우려"('한국일보' 2006. 5. 2.)와 같이 환경 훼손을 걱정하는 정도이지, 티베트 전통의 파괴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자주권 회복의 불확실성 등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다.

전근대 왕조 시대 이래로 역대 중국 정권이 주변 이민족에 써온 정책은, 한족(漢族)을 대량으로 이주시키는 '사민(徙民)' 정책이었다. 1949년 공산 정권 수립 후 이 정책은 더욱 강화되어, 서북부의 '신지앙(新疆)위그르 자치구' 같은 곳에도 이미 한족이 반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중국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 동안 장애가 많았던 티베트로의 대량 이주도 이 칭장(青藏) 철도 개통과 함께 난관이 사라진 셈이다. 반대로, 티베트 민족의 입장에서는 앞날을 어둡게 하는 '나쁜 소식'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중국의 침입으로 나라를 잃은 티베트 민족이 망명 정부를 수립하고, 전통 문화와 종교를 보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웃 강대국 인도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인도는 수십 년 동안 '불편한 관계'로 지내왔다. 국경 충돌이 빚어진 적도 자주 있었고, 남아시아 지역의 맹주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인도가 티베트 망명 정부를 승인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티베트 난민들을 위한 정착지를 인정해주었던 것도 '중국에 대한 견제'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불편하기만 했던 '인도-중국' 사이의 관계가 최근 들어 바뀌고 있다. 중국의 영문 일간지 <차이나 데일리(China Daily)> 7월 20일자에 따르면, 당(唐) 시대 인도로 구법(求法) 순례를 다녀온 현장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중국-대만 합동 순례단'이 시안(西安)을 떠나 인도로 출발하였다.

순례단의 출발 기념식장에서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성회이(聖輝) 스님이 "이번 여정은 중국과 인도 사이의 긴밀한 관계와 문화 교류를 더욱 원활하게 촉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한 데에서도 쉽게 눈치 챌 수 있듯이, 이 순례단의 행보는 순수한 불교 신앙의 차원을 떠난 정치 외교적 배경이 숨겨져 있다. 따라서 강대국의 외교 게임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티베트의 입장에서는 예사롭게 보아 넘길 수 없다.

1972년, 그때까지 '죽(竹)의 장막'이라고 불리던 중국의 문을 열게 한 것은 미국 탁구 대표단의 베이징 친선방문과 그에 이어지는 '중미(中美) 수교'였다.

이번 '현장 프로젝트'가 중국과 인도 사이에서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면, 티베트의 앞날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떨치기 어려운 상황이 인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7월 3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도 뉴델리에 거주하는 티베트 난민 6,000여 명이 어렵게 장만한 터전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다. 새삼 나라 잃은 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한다. 인도 정부에서 도로확장 등을 이유로 들면서 다른 곳에 대체 정착지를 마련해준다고 하지만, '현장 프로젝트'와 동시에 일어나는 이 일 또한 티베트 민족의 앞날을 어둡게 보게 만드는 것이 분명하다.

대한제국 말, 주변 강대국들의 밀약(密約)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상실한 쓰라린 역사 경험이 있는 우리로서는 '중-인 관계 개선'과 더불어 더욱 불안해지는 티베트 민족의 상황이 결코 '강 건너 남의 집에 난 불'일 수 없다.

불교방송 디지털 포교 CD 시리즈 1. 2

"부처님 말씀, 이젠 당신의 집으로 초대 하십시오 !"

지광스님의 생활법문 "지혜의 길"



기획 · 제작 : 불교방송 문화사업단
BBS 02)706-3502~5
능인선원 02)577-5800
정가 : 70,000원

겸익스님 · 선수대사 · 원광법사 · 아도화상 · 득통화상

"입체낭독" 고승열전

겸익스님 : 윤청광 극본, 박용기 연출/35회
선수대사 : 박서림 극본, 박용기 연출/70회
원광법사 : 윤청광 극본, 박용기 연출/42회
아도화상 : 윤청광 극본, 박용기 연출/49회
두통화상 : 박서림 극본, 박용기 연출/63회

기획 · 제작 : 불교방송 문화사업단
보급처 전화 : 02)706-3502~5
정가: 160,000원

한국불교사의 큰 발자취를 남기신 고승대덕스님 5분의 행장을
드라마로 역어 절찬리에 방송된 "고승열전"을 CD로 만들어 보급하고자 합니다.

BBS 불교방송 www.bbsfm.co.kr

※ 디지털 영상 및 음반 제작을 원하시는 스님 또는 사찰에서는
불교방송 문화사업단 연락처(02-705-5301)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대불교 buddhanews.com
서기 2006년 8월 9일 수요일 (주간) 제 590 호





6월 서울 평창동 갤러리 '세줄'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글씨를 써 준 소리꾼 장사익씨와 함께 했다(왼쪽). 올 2월 파리 컬렉션에서 한 모델이 한글 프린트 의상을 선보이고 있다.

'윤회의 옷' 안 입은 사람 있나요?



패션디자이너 이상봉

티베트 불상, 염주, 일본 검도복, 이탈리아 베네치아 가면, 아프리카풍 조각, 젠스타일 탁자….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씨의 사무실 풍경이다. 그의 사무실은 엔틱풍의 작은 박물관을 연상시킨다.

"국내나 해외나 패션쇼 무대에서 인사를 할 때면 꼭 합장인사를 합니다. 제 나름의 감사와 기원을 담는거죠. 이제는 합장인사가 제 트레이드 마크가 됐어요."

'파격 전시'로 주목
한글의상에 파리 패션계 매료
불교와 오래된 문화에서 영감 찾아
국제 패션쇼 일정 빡빡…
"우리것 널리 알리고파"

#패션 퍼포먼스 1980년 국제패션디자인연구원을 졸업한 이상봉씨가 1985년 첫 매장을 열었을 때의 일이다. 당시 매장에서 쇼복을 판매하지 않았던 불문율을 과감하게 깼다. 컬렉션 의상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매장에 선보였던 그는 많은 마니아층을 갖게 됐다.

국내에서 패션 퍼포먼스를 처음으로 시도한 것도 이상봉씨다. 1996년 죽산 국제예술제, 1997년 예술의전당 10주년 기념 패션 퍼포먼스 등을 통해 조형예술과 패션이라는 새 장르를 개척했다.

패션디자이너가 의상 전시를 한 것도 그만의 독특한 시도였다. 지난 6월 서울 평창동 갤러리 '세줄'에서 '한글, 달빛 위를 걷다-이상봉과 친구들'이라는 주제로 한글 프린트 의상 20여 점을 전시했다. 관람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판매용 한글 프린트 티셔츠는 금새 동이 났다.

"패션계에 뛰어든지 26년이 됐는데 30주년이 되는 해에 전시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어요. 파리 컬렉션 의상들을 좀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시회를 앞당겼죠."

#한글 이상봉씨는 지난 2월 파리컬렉션에서 한글 프린트 의상을 제작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소리꾼 장사익씨와 화가 임옥상씨의 글씨체는 붓필로 티셔츠에 넥타이에 재킷에 찍혀 파리 패션계를 매료시켰다.

왜 한글에 주목했을까. "장사익씨나 임옥상씨는 항상 친필로 엽서나 편지를 보냅니다. 인쇄물이 판을 치는 요즘 친필글을 받으니까 아주 소중하게 느껴지더군요. 거기에 프랑스 친구가 한글이 너무 독창적이고 아름답다고 한불 120주년 행사에 활용할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는 것을 보고 힌트를 얻었어요."

이상봉씨는 고민끝에 빚어낸 한글 작품을 본 외국인들은 한국에도 문자가 있냐며 놀라워 했다. 한자가 아시아의 문자라고 생각하던 그들에게 한글 프린트 의상은 충격이었다.

#인연 어린 시절 할머니 손을 잡고 수시로 다니던 대림동의 사찰,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갔던 삼각산 도선사의 기억은 잊혀지지 않는다. 절밥을 유난히 좋아하던 이상봉씨는 스님에 대한 동경이 강했다. 스님께 염불도 배우고 여러 스님들도 많이 만났다. 대대로 불자였던 집안에서 자란 그는 당연히 스님이 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절은 그에게 꿈을 키운 곳이었고, 놀이터며, 배움터였다.

한 때 승복을 패션삼아 입기도 했다. 그만큼 끌렸다. 바랑을 메고 승복을 입고 거리를 다녔다. 스님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술 담배를 하던 때였다. 사람들의 오해가 부처님께 죄를 짓는 기분이 들었다. 스님들께도 누가 될 것 같았다. 승복을 벗었다. 조계사 인근에서 20여년 전에 샀던 그 승복은 지금도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두었다.

절에 가면 조용히 부처님과 마주 앉는다. 부처님께 기도하고 마음의 번뇌와 고민을 털어놓는다.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며 불자가 아니었던 부인도 결혼 후 차츰 변해갔다. 첫 아이를 가졌을 때 부처님 태몽을 꿀 정도로 불교에 빠져들어갔다. 지금은 강남 봉은사를 꾸준히 다니며 신행생활에 열심이다. 부처님오신날에는 부부가 같이 삼사순례를 하며 기도한다.

이상봉씨는 중국이나 몽골 등에 비해 티베트 불교가 아직도 그 순수성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티베트는 그에게 정신적인 고향이다.

"내가 불경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느끼고 이해하고 깨우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圓) 이상봉씨의 의상은 '원(圓)'이다.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내 의상에서는 '원'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 원은 윤회에요. 시작과 끝이 계속 빙글빙글 도는 윤회."

모든 생명은 '윤회'의 옷을 입는다. 그 옷을 훌훌 벗는 '해탈'이 모든 존재의 꿈이듯 이상봉씨의 작업도 해탈을 꿈꾼다.

이상봉씨는 '정체'되는 것이 싫다.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고 찾아내고 관심을 가지고 변화한다.

"디자인은 진화하고 자신을 깨뜨려 가는 작업"이라는 이상봉씨는 "스스로 정체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두렵다"는 말도 덧붙인다.

그런 그가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 세 번이나 불이 났던 그의 집, 1985년 처음으로 만들었던 명함 디자인. "나를 잊지 말자는 저 나름의 고집입니다. 처음 내 브랜드를 만들었던 시절의 흥분, 작은 것에 대한 행복, 꿈 등 초발심을 잊고 싶지 않아서 간직하는거죠."

이상봉씨는 오래된 것, 오래된 문화에서 영감을 얻는다. 그들과 만나기 위해 자주 찾는 곳은 벼룩시장.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 나라의 문화를 공부하는 것은 그에게 행복이고 영감의 원천이다.

"불자니까 디자인을 하면서 그 정신적인 측면은 불교의 영향을 받는다"는 이상봉씨. 그의 첫 번째 개인 패션쇼의 주제 역시 '윤회'였다. 탄생과 죽음을 그는 한 자리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윤회를 보여주며 패션쇼를 퍼포먼스로 이끌었다.

올해도 그의 일정은 빡빡하다. 8월 말과 9월 초에 파리, 9월 중순에 미국에서 패션쇼가 열린다. 프랑스 디자이너 40명과 함께 한글 쇼도 준비중이다. 10월 2일에는 파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한국의 패션을 해외에 보급하고 우리 문화를 알려줘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후배들에게 당당하게 우리 디자인을 물려주고 싶어서 오늘도 뛴다"는 패션디자이너 이상봉씨의 꿈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글=강지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梵魚寺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세트
문 없는 문을 열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10대 선사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상세한 법문을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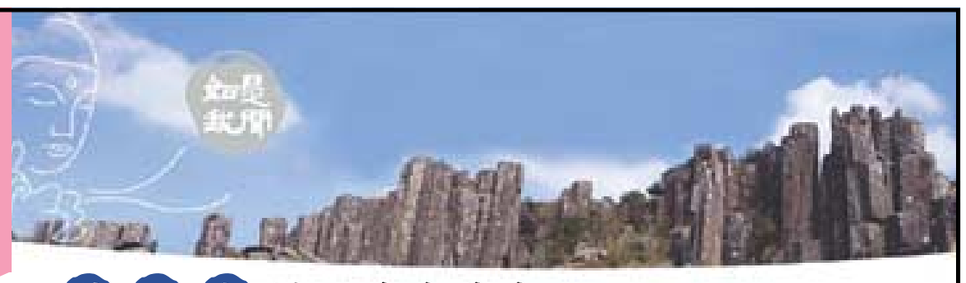
■ 30,000원 (무료배송)

범어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범어사 설선대법회'의 열분의
법주스님들의 법문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 설선대법회 CD, Video도 있습니다.
(각10,000원)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분들께 최고의 법보시
(도반선물로 최상의 선택)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법문세트

이 법문 세트는 광주 동구불교협의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의
열분의 법주(미산 정무 현봉 혜거 자광 지운 재연 호진 도법 철우)
스님들이 2005년 10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광주광역시동구KT정보센터대강당에서 설법한 것입니다.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30,000원 (무료배송) 낱개 3천원



■ 판매처 : 여시아문 www.yosiamun.com 02)737-0695, 02)2004-8219, 8220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 농 협 053-01-265785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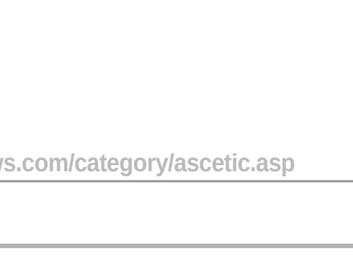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74〉 무진거사 장상영 (중)

무진거사가 서울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을 때 일이다. 혜림사에 인연을 두고 있는 어느 납자를 만나게 됐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납자의 말투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다. 제방의 여타 어느 선림이라 할지라도 그 회상의 선지식의 경지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오직 '혜림가풍' 만이 최고라는 거였다. 남을 인정하지 않고 또 따라서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중생심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같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몽둥이가 제대로 된 치료약이다. 그래도 재가자인 무진거사로서는 그럴 수는 없었다. 그 다음은 할(喝)이지만 그것도 상대가 출가자인지라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참고 또 참았다. 그런데도 거침없는 자기문파 자랑은 끝이 없다. 대신 자기공부 경지는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자기안목과 살림살이가 없을 수록 문중과 스승을 등에 업고서 자기를 과시하려 한다.



자기안목과 살림살이 없이 문파 자랑에만 침이 마르지 않던 납자를 법거량으로 제압

하긴 실력자나 세력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학연 지연 혈연을 강조하며 자기와의 인연을 강조하는 사람치고 현재 위치가 제대로 된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런 인간들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

듣다못한 무진거사가 소견없는 안목이지만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한마디는 물론 입을 막기 위한 수단. 법거량으로 제압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게 가르침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제서야 그 납자는 말을 멈추고 무진거사의 입을 긴장하며 쳐다보고는 말했다.

"아! 예. 무엇이든지 물어보십시오."

이런 사람일수록 허풍은 더 세기 마련이다.

"현자 선사에게 어떤 납자가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祖師西來意)'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주 앞에 놓인 술잔(神前酒臺盤)'이라고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요?" 그 납자는 눈이 휘둥그래진 채 한참 동안 무진거사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혼자서 몇 번이고 중얼거렸다.

"신주 앞의 술잔? …"

현자 선사는 동산양개 선사의 심인(心印)을 받은 뒤 세속과 어울려 살았다. 날마다 강변에서 조개와 굴을 따다가 배를 채웠으므로 사람들이 '현자(조개) 스님'이라고 불렀다. 밤이 되면 사당에 가서 죽은 자를 위해 관 속에 넣는 가짜 종이 돈인 지전(紙錢)속에서 그것을 이불삼아 지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화엄사 휴정선사가 그의 도력을 시험하고자 했다. 진짜 무애행을 하는지 맹초의 기행(奇行)인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사당의 지전 속에 먼저 들어가 누워 숨어서 현자선사를 기다렸다. 그가 사당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꼭 붙들고 느닷없이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인가?" 그는 놀라지도 않았고 머뭇거림도 없이 단박에 말했다.

"위패 앞에 놓인 술잔이로다!"

이를 미루어 현자 선사는 그런대로 공부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그런데 혜림문파의 법손임을 힘주어 강조하는 그 납자는 계속 묵묵부답. 무진거사가 놀려주듯 한마디했다. "오늘 저녁 사당에 등불이 밝혀져 있으면 그만이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현자선사의 불법은 헛되게 될 것이오."

현재 해인총림 방장으로 계시는 법전 선사께서 젊은 시절 대승사 묘적암에서 한 경계를 일으킨 후, 점검을 받고자 성철(1912~1993) 선사가 머물고 있던 파계사 성전암으로 달려가니, 질문이 날아왔다.

"어떤 학인이 스승에게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라고 물으니, 스승은 '죽은 사람 술상 위에 술이 석 잔이다' 라고 대답했다. 그 때 너라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바로 '그 술잔'이 그대로 활구(活句)가 되어버린 것이다. 법전 선사는 짧은 곡(哭)소리로 대답을 대신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불안·초조 벗고 '자기 찾기'



선수행이 심리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최근 〈선수행과 심리치료〉(민족사 刊)를 펴낸 김말환 군법사(사진)는 "선 자체가 그대로 심리치료"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선 수행이 현대적 상담기법으로써 심리치료에 접목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얼마 전에는 "위빠사나 수행이 정신치료에 유용하다"는 논문이 임상치료 자료와 함께 공개돼 주목을 끌기도 했다.

선 수행이 정신적 · 심리적 질병을 치료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이미 이와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김말환 법사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선수행이 심리치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어떤 효과를 얻고 있는지 등의 궁금증을 풀어본다.

▲선심리치료의 핵심은?

—심리치료는 인간 내면에 비정상적으로 자리잡은 노이로제나 정신적인 병리현상으로 인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리적 질병상태에서 고통 받고 있는 비정상인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선(禪)심리치료는 선수행을 치료에 적용해 심리적 질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일문일답 '선수행과 심리치료' 발간한 김말환 법사

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즉, 선수행을 통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있던 '나'에서 벗어나 티 없이 맑고 청정한 본래 본 마음을 바로 보고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선수행과 심리치료의 공통점과 다른 점은?

—선수행은 '본래 자기'를 찾는 것이고, 심리치료는 '잃어버린 자기'를 찾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자기'를 찾고 자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물론 선수행과 심리치료는 목적과 차원이 다르다. 선수행은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을 향해 가는 일이다. 그러나 심리치료는 불안과 초조로부터 벗어나 잃어버렸던 자신의 모습을 찾는 일이다. 다시 말해 선수행은 본래 자기모습을 깨달아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행위이고, 심리치료는 질환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현재'를 되찾는 행위다. 현재의 고요와 평화를 찾는 것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공통점은 '자기' 찾고 자아 실현하는 것
내담자 스스로 문제점 인식 · 치유과정 반복

▲어떤 과정을 통해 선수행으로 심리치료를 하는가?

—선수행으로 심리치료를 하는 과정은 네 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1단계인 '안심 훈련'에서는 내담자를 편안하게 해주면서 마음상태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좌선이나 들숨날숨 챙기기 등의 호흡법을 적용한다.

2단계 '방하착 훈련'에서는 요가를 통해 몸을 편안하게 풀어주고 괴로움이 어떻게 발생하고 멸하는가를 '고집멸도'의 사성제 원리를 통해 살펴보게 한다. 이런 과정에서 호흡을 관찰하는 위빠사나 수행법을 적용한다.

그러면서 3단계에서는 지나간 일이나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에 대해 매달리지 말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주면서 좌선과 호흡 수행을 병행한다. 그리고는 마지막 4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하게 하면서 주변과 함께 하고,보시행을 통해 자기를 뛰어넘도록 한다. 이 때에는 매일 규칙적으로 좌선과 행선을 하도록 한다.

▲조사들의 선문답이 심리상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

—선문답은 언어를 뛰어넘는 것이다. 심리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깨닫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담자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문답같이 예상치 않은 질문이나 역설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내담자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다보면 내담자는 지금까지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을 놓아버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다. 자연히 기존의 관념을 놓아버리게 되고 새로운 것을 보게 되면서 현재의 상황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일반 심리치료와의 차이는?

—일반적인 심리치료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핵심감정(문제가 있는 부분)에 직접 개입하지만 선수행치료는 그 핵심감정을 들추는데 까지만 개입하고 나머지는 내담자가 해결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선수행 치료는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선수행 심리치료 과정에서는 이같은 방식이 계속해 반복되는데, 문제를 스스로 깨닫는 만큼 치료효과도 높고 재발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성공사례를 소개해달라

—성공사례는 무수히 많다. 국군대전병원 정신과 병동에 있던 한 병사는 최근 병원을 퇴원하면서 선수행 치료가 크게 도움이 됐다며 퇴원을 해서도 수행을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

입대한지 10개월이 지나도록 동료와 어울리지 못하고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며 언제 자해행위를 할지 모르는 요주의 사병의 경우는 군부대 법당에서 한 달간 함께 생활하면서 선수행을 통해 치료를 했다. 감정이 격한 상태에 있는 과대망상증을 보인 병사의 경우에는 호흡법을 통해 정신건강을 되찾아주었고, 대인공포증을 앓던 한 직장인은 선수행을 통해 자기를 바라보고 자신감을 얻으면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김말환 법사는?

현재 육군 교육사 군종실장 겸 장병기본권 전문상담관으로 복무하면서 국군 대전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매주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선수행 심리치료를 하고 있으며, 군대 부적응장병 치료도 병행하고 있다.

명상상담연구소의 명상상담전문가 과정을 이수했으며, 〈선문답을 통한 상담심리고찰〉 〈보조수심결의 수행방법에 의한 참 마음 찾기〉 등 상담 및 심리치료 연구와 관련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수행을 심리치료에 접목시킨 '선심리치료'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채용공고

재단법인 선학원이 유능한 불교인재를 모집합니다.

학 력	경 력	성 별	인 원	근무형태
대졸이상	무 관	남	1명	정규직

◆ 우대조건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
◆ 제출 서류 : • 이력서 1부
(3개월 이내 증명사진 첨부)
• 자기소개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전형 방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 개별통보)
◆ 접수기간 : 2006년 8월 8일 ~ 8월 18일
◆ 서류접수 : (110-240)서울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재)선학원 총무과
◆ 문의전화 : 02)734-9654~6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급여는 본 재단의 규정에 의함

우주 에너지로 건강을 지킨다! www.chgg.co.kr
氣주입법
이재복 지음 2권 값 16,000원
우주에너지에 파동을 맞추면 누구나 氣를 방사할 수 있다.
생명에너지의 레벨을 높이면 몸이 더워지고 손에서는
전류처럼 자장이 흐르고 오라(Aura)가 증폭된다.
척추디스크 자연치유법
가정에서 골반보정운동으로 골반, 척추 바로 잡는다.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혈전등
혈관계통질환 치료율 98.8% (호주,북한보고서)
MBC - TV (통일전망대 방영)
2005년 11월 22일

북한의 조선중앙 TV는 2005년 11월 14일자로 「반지와 팔찌만 차면 기적처럼 혈액이 정화되는 휴대용 혈액정화기」를 과학영화로 소개했다.
혈관계통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햇빛을 쪼여주면 사향보다도 효과가 더 좋다는 내용이다.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받으실때 택배비 3,000원 부담하시면 책2권(정가 16,000원)을 보내드립니다.
도서출판 건강한세상 ☎ 1544-2181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덛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생명체에 이로운 물질만 농축되어 있는
함 초
함초란? 바닷가 개펄이나 염전등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풀이다. 함초는 개펄에 스며드는 바닷물을 한껏 빨아들인 다음 광합성 작용으로 물기를 증발시키고 각종 미네랄 성분을 고스란히 저장하는 생리를 가지고 있어 사람에게 아주좋은 효능을 고루 얻게 한다.
놀라운 함초의 효능
▶ 숙변을 분해하여 몸무게를 줄이고 변비에 효과
▶ 혈액순환에 좋아 고혈압, 저혈압에 효과
▶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속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질 제거
▶ 축농증 신장염, 관절염 등 각종염증에 효과
▶ 위장기능에 좋아 변비, 탈장, 치질에 효과
▶ 당뇨병의 혈당치를 낮춘다
▶ 갖가지 암, 근종에 효과, 암세포 성장억제
▶ 갑상선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에 효과
※ 먹기좋게 환, 액기스를 만들었습니다
약값은 불사에 쓰여집니다
※ 비구니스님이 죽음의 고통에서 함초를 복용 후 완치된 사례가 있음
함초구입 문의
054)638-4796
010)4591-4796 백련사백련스님
입금계좌 : 농협 751025-51-024864 백련정사

신행 · 교육 · 포교 · 문화 4박자 '척척'



백제불교문화대학 학생들의 수계식 모습. 백제불교문화대학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불자를 양성해내고 있다. 사진제공=백제불교회관

대전불교의 요람 '백제불교회관'

대전 불교의 중심도량 백제불교회관. 백제불교회관(관장 장곡)이 9월 포교전진대회를 앞두고 프로그램 기획과 불교단체 간 협조체계 점검으로 바빠지기 시작했다. 포교전진대회는 대전의 불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이들의 권유로 참가하는 비불자들이 한데 어울리는 포교 한마당.

이 포교전진대회를 계기로 불교에 입문하는 사람만도 한 해 평균 200여명으로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다. 포교전진대회가 대전에 불교를 심고, 불자를 양성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문을 연 이래 6년 동안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벌여오면서 불교 불모지 대전을 '신행 도시'로 바꿔놓은 백제불교회관. 그 '비결'은 신행 · 교육 · 포교 · 문화 네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데 있다.

▷'하나'되는 신행

대전에는 도청불자회, 시청불자회, 5개 구청 불자회, 충남지방경찰청 불자회와 5개 경찰서 불자회, 대전불교산악회 등 11개 불자 산악회, 교수불자회, 대전불교언론인회, 거사림회 등 43개의 각급 신행단체 연합체인 백제불교신행단체협의회(회장 김종완)가 있다.

내년부터는 대전의 단위농협 불자회와 각 지역 군청 불자회 창립에 착수해 외연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백제불교회관 개관 10주년이 되는 2010년에는 적어도 60~70개의 신행단체가 협의회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 신행단체협의회의 모체는 백제불교회관이다. 협의회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 모두 백제불교회관의 주도 아래 이뤄진다. 신행단체협의회와 백제불교회관은 '한 몸'인 셈이다.

이들 신행단체들은 매월 한차례 백제불교회관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활동방향을 의논하며, 봉축행사 등 현안이 있을 때는 수시로 모여 회의를 연다.

또 각 신행단체들이 개별 행사시 도움을 주고받는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어 시너지 효과도 내고 있다.

▷기틀 다지는 교육

백제불교회관의 불자교육은 초보불자를 위한 기본교육과 백제불교문화대학(학장 사재동), 대학원을 통한 전문교육으로 이뤄진다. 이외에 비불자를 대상으로 한 '기초교육 강좌'도 매주 한 차례 진행된다.

백제불교문화대학에는 핵심교리, 한국 · 인도 · 중국 불교사, 불교의례 , 불교철학, 화엄사상, 선사상 외에 불교 음악 · 미술 · 문학 · 무용 · 연극 · 영어 등 다양한 문화강좌가 마련돼 있어 폭넓게 공부할 수 있다. 백제불교문화대학을 졸업한 불자들이 교리 외에 불교문화에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도 이런 교육과정 덕분이다. 매년 배출되는 졸업생만도 150여 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도 크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포교

매년 9월경 열리는 포교전진대회 외에도 백제불교회관은 다양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가운데 백제불교회관이 주력하고 있는 것은 행정중심지이자 아파트촌이 밀집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올해 개원한 '백불 아카데미'다.

> 매년 포교전진대회 개최…200명 불교입문
> 43개 단체의 활동 주무대, 수시로 모여 회의
> 6년만에 불교 불모지를 '신행도시'로

지역민 포교를 위해 마련된 백불 아카데미는 현재 경전과 불교의식 등의 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선방과 다도교실, 요가 등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백제불교회관이 자리잡고 있는 중구와 서구 외에 동구 · 유성구 · 대덕구에도 연차적으로 백불 아카데미를 설립해 포교의 고삐를 당길 계획이다.

한해 30명 가량 배출되는 포교사 수도 50명 선으로 늘려 현재 포교사단이 각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활동을 배가시키는 한편,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계층별 포교 프로그램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봉축 때 처음으로 대전의 모든 경찰서에 등을 달고 점등식을 봉행해 호평을 받았던 경험을 살려 내년 봉축 때는 구청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에 등을 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각종불교 문화 강좌 '인기'

백제불교문화대학의 각종 불교문화 강좌는 전국 어느 불교대학에서도 볼 수 없는 백제불교회관만의 특징이다. 여기에 격년으로 열리는 예술제와 문화제는 불교문화를 통해 대전에 불교를 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열리는 예술제는 불교대학 학생들의 합창과 승무 등의 공연으로 불교문화를 알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문화제는 올해 6월 열린 제3회 불교문화 학술 · 문예 대축제에서 보듯이 학술과 문화공연을 종합한 형태로 열린다.

▷한 사람의 불자가 탄생하기까지

백제불교회관이 다른 지역의 불교회관이나 사찰들과 '특별히' 다른 점은 한 사람의 불자를 탄생시키고, 이 사람이 신심깊고 활동력있는 불자로 자리잡기까기의 모든 과정을 체계화시켜놓고 있다는 점이다.

신행단체협의회 회원들과 그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 포교전진대회에 참가한 '비불자'들은 백제불교회관에서 불교기초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3개월 과정의 기본교육을 마치면 백제불교회관에서 운영하는 백제불교문화대학으로 유도된다. 이들은 불교대학에 입학해 공부하면서 계를 받고 조계종에 신도등록을 한다. 그리고 1년간 공부한 뒤 원하는 사람은 조계종 포교사고시 시험을 치른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백제불교문화대학에서 한 해 배출되는 포교사는 30명에 이른다.

그 뒤 다시 남은 1년 간의 불교대학 과정을 마치고 백제불교문화대학 대학원 과정에 들어간다. 대학원 과정에서는 경전을 심도깊게 공부한다.

이 과정을 모두 마치면 포교사들은 대전충청 포교사단에 들어가 활동을 하고, 나머지 불자들은 각 직장 · 직능별 신행단체에 가입한다. 동시에 이들은 백제불교회관이 자랑하는 대전의 43개 신행단체 연합체인 '백제불교신행단체협의회' 일원으로 태어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의 권유로 불자가 된 것처럼 주위 사람을 불자로 만들기 위해 나선다.

대전충청 포교사단 단장이자 백제불교회관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홍성호 거사는 "신행에 포교가 있고, 포교에 문화가 있고, 문화는 교육을 통해 이뤄지고 교육은 신행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백제불교회관의 특징"이라며 "백제불교회관은 대전을 넘어 충남불교의 상징으로 자리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042)537-8215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일터가 도량입니다

"학생 입장에 서서 대화합니다"

서울 하계중학교 이미자 교사

서울 하계중학교 이미자 교사(48)는 1982년 교단에 첫 발을 디딘 이후 26년 째 학생들과 함께 동고동락해왔다. 하계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지는 5년 째.

교사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학생들만 가르치면 되는 비교적 편안한 직업쯤으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 . 하지만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개성이 강하고 자유분방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각종 교무업무에 자기계발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적지 않다.

이미자 교사는 2학년 수학을 담당하면서 특활부장을 맡고 있다. 학생들의 학업수준을 끌어올리는 것 외에, 특별활동 과목을 편성하고, '방과 후 학교'나 학예발표회, 학생작품 전시회와 같은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역시 가장 많은 신경이 쓰이는 것은 학생들 지도.

"정도를 넘어서는 학생들이 많아요.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온갖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다보니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수행을 하게 됐어요. 일단 제 태도에 문제가 없는지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죠."

2000년 서울 보리수선원에서 위빠사나 수행을 하면서부터 이 교사는 아이들을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애심'이 충만해졌고 지금은 과거보다 한결 편안하고 성숙하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게 됐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해심 많은 선생님'으로 통한다. 다급한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신청해오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학생들 입장에 서서 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아이들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불성을 키워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불자가, 교사가 이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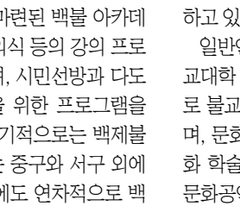
이미자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불성을 키우는 일이라고 믿고 있다. 그만큼 학생들에 쏟는 정성이 남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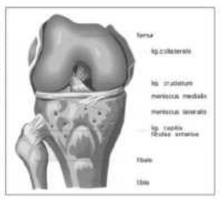
어느 학교든 교사들 사이에도 갈등은 있다. 하지만 이 교사는 동료 교사들과의 갈등이 거의 없는 편이다. 성격이 둥글둥글한데다, 웬만한 것은 이해하고 웃으며 넘어간다. 동료 교사들로부터 "명상을 해서 그렇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그 꿈을 이뤘습니다.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할 일이 있다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그것도 부처님 일이니 더욱더 보람이 있죠."

글 · 사진=한명우 기자

가족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기도
태아영가천도
마음이 불안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분
태아영가천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회향 : 2006년 10월 28일 토요일
대불정능엄신주 독송
능엄신주 해석 독송기도
대학입시합격기도
입시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은 열심히 기도하시면 소원이 성취됩니다.
자녀교육문제
자녀탈선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
사법 행정고시 각종 취업 합격기도 책임지도
가정에서 전국 포교활동 하고 싶은 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방법
경전독송기도특강 (3개월과정) • 기도와 회향 매주 화요일 • 보시와 불공방법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⑬기 타
●지방분 환영 ●전국 포교활동 하실분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스님 동참환영
●군부대 법당 ●경찰서 법당 ●교도소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및 상담
●노후에 건강하게 오래살고 회향을 잘하고 복짓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밝은 사회 만들기
맨발등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서울 부산 대구 마산 안성 지매예방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향다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33> 모든 번뇌가 사라져 마음이 고요하니

부처님 교단에서는 살생, 음행, 도적질, 거짓말 이 네 가지 계목을 어기면 용서할 수 없는 큰 죄로 규정, 사바라이죄(四波羅夷罪)라고 한다. 이 계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범하면 승단에서 쫓겨나 다시는 승려가 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죄다. 승려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이고 또 죽어서는 영원토록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는 무섭고도 엄중한 계목이다. 그러나 <선가귀감> 33장에서는 죄의 참다운 성품을 알면 죄를 벗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불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諦觀殺盜淫妄 從一心上起 當處便寂 何須更斷.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이 다 한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 그 자리에서 바로 온갖 번뇌가 사라져 마음이 고요하니, 어찌 여기에 버려야 할 번뇌가 남아 있겠는가.

죄의 참다운 성품을 알면 성불
한생각 일어날 때 실체 없음 알아야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이 다 한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는 것은 무생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뜻이다. 무생의 이치를 깨달아 텅 빈 마음이 되니, 세간의 법이 없어져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이들 번뇌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 이들 과보가 어디에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 세상 모든 법의 실체는 알고 보면 텅 비어 있는 고요한 성품이다.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생멸하여 변화할 것이 없다. 범부들은 이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지은 죄에 집착하여 잘못한 과보를 받을까봐 크게 두려워 하지만, 성인들은 무생의 이치를 알고 인과를 뛰어 넘어 바로 열반에 든다.

옛날 용시(勇施)라는 비구가 있었다. 얼굴이 잘 생겨서 좋아하는 젊은 여자들이 많았다. 그 가운데 한 여자가 탁발하러 온 그를 보고 그리워하다 병이 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사랑스런 딸아이의 죽어가는 모습에 애가 타던 어머니는 마침내 계책을 써서 비구를 유인하려 "제 딸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니 스님께서 자주 오셔서 법을 설해 주소서"라고 말했다. 몇 번이고 사양하다가 간청에 못 이긴 비구는 할 수 없이 그 집에 드나들게 되었다.

여자는 병이 차츰 나았고 비구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그러다 여자의 유혹에 넘어간 비구는 마침내 음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젊은 부인을 죽이려고 하였다. 이 때문에 비구는 그 집에 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여자는 남편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고 두려웠지만, 비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컸으므로 음식에 몰래 독을 타서 남편을 죽여 버렸다.

비구는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이 엄청나고 불행한 일에 크게 뉘우치며 "음욕과 살생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일어났으니, 나는 죽어서 무간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감히 법복을 입을 수 없으니 벗어놓고 살리라"고 마음먹었다. 그러면서 "내가 중죄를 범했으니 누가 나의 참회를 받아줄 수 있단 말인가?" 라며 가슴을 치며 절규하였다.

그러다 비국다라 존자를 만나게 되었다. 존자는 비구를 경책하며 말하기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지금 너를 위하여 두려움이 없는 법을 설하리라. 죄의 성품이란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라며 게송으로 말했다.

諸法同鏡像 亦如水中月 凡夫愚惑心 分別癡恚愛

모든 법은 거울 속의 그림자 같고/ 강물 속에 떠 있는 달과 같은데/ 범부들은 어리석게 이에 집착하여/ 욕심내고 성을 내며 분별을 한다.

비구는 이 소리에 마음이 툭 트여 크게 깨달은 뒤 보월여래(寶月如來)가 되었다. 무생(無生)의 이치를 알고 성불하여 지금까지 보월여래라는 이름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증도가>에서 "용시 비구가 중죄를 범했으나 무생의 이치를 깨닫고 성불하시니, 지금까지 공경 받는 부처님이 바로 그 분"이라고 하였다.

음행과 살생에 연관된 용시 비구가 성불했다고 말하면 "누구든지 큰 죄를 지어 가며 공부해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를 드는 것은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불법을 바로 믿고 그대로 공부를 하면 누구든지 성불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있다. 극악한 사람도 바른 법을 바로 믿고 공부하면 대도를 성취할 수 있는데 착한 사람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는가.

서산 스님은 "이 단락에서 성(性)과 상(相)을 함께 드러낸다. 경에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 이를 무명을 영원히 끊은 것이라 한다'고 했고, 또 '한 생각 일어날 때 그것을 바로 안다'"라고 했다.

성(性)은 '그 자리에서 바로 모든 번뇌가 사라져 마음이 고요한 것(當處便寂)'이고, 상(相)은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이 다 한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殺盜淫妄 從一心上起)'이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不起一念) 상(相)에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인연에 조금도 집착하지 않으니 일으킬 번뇌가 없어 영원히 무명을 끊었다는 것이다(永斷無明). 한 생각이 일어날 때(念起) 그것에 실체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아니(卽覺) 어찌 여기에 버려야 할 번뇌가 남아 있겠는가.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cafe.buddhapia.com/community/wonsun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요사채

스님들의 일상생활을 위해 지어진 절집이죠. 여기에는 선방이나 승방은 물론 곳간, 부엌, 측간까지도 포함됩니다. 또한 신도들이 어우러져 식사를 하는 공간도 마련됩니다. 이런 요사채에서도 격에 맞춰 그럴듯한 당호(堂號)를 갖고 있습니다. 가령 지혜의 칼을 찾아 무명의 풀을 벤다는 심검당(尋劍堂), 고요하게 말없이 참선만 한다는 적묵당(寂默堂), 강설과 참선을 아울러 한다는 설선당(說禪堂)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밖에 염화실은 조실스님이나 큰 스님이 머무는 곳이고, 향적대(香積臺) 혹은 향적전은 향나무를 때서 밥을 짓는다고 해서 붙인 절의 부엌입니다.

요사채는 예전에 대웅전 뒤에 있었는데, 후대에 이르러 대웅전의 앞이나 옆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외경과 존엄의 대상인 대웅전을 내밀한 공간에 두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일상잡사를 엄숙공간인 대웅전을 지나서 수행한다는 게 적절치 못했을 것입니다. 요사채는 소박하고 단순한 건축기법을 사용했습니다. 필요한 공간에 자유롭게 지었지요. 김철우 기자

행복동 사람들

선업과 행복

배종훈 (bjh4372@hanmail.net)



cafe.buddhapia.com/community/happy dong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08)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54강 9장 '해석'을 향한 도정, 혹은 미로찾기

불교의 저작에는 저자가 없다

혜능의 복덕성(福德性)이 내 해석과 다르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게 뭐냐고 묻는다. <금강경>의 번역을 다시 보자.

'복덕성'은 좋은 것인가 아닌가

"수보리야, 네 생각에 어떠냐. 사람들이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보시로 기부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福德)은 엄청나겠지." 수보리가 대답했다 "대단히 클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어째서겠느냐. 이 복덕은 복덕의 성질(福德性)을 갖고 있지 않은 바, 그래서 여래께서 매우 큰 복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須菩提, 於意云何. 若人滿三千大千世界七寶以用布施, 是人所得福德, 寧爲多不. 須菩提言, 甚多世尊. 何以故. 是福德卽非福德性, 是故如來說福德多.

여기서 나는 복덕성을 부정적으로 해석했다. 여기 복덕의 성질(性)이란, '내가 복덕을 의식하고 그 축적을 계산하고 있는' 분별을 가리킨다고 썼다. 그러니 그것을 지워야, 그것으로부터 공(空), 즉 자유로와야 보시가 진정 공덕으로 기록되고, 복덕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혜능은 거꾸로 생각한다. 복덕성을 '진정한 복덕, 그 복덕됨'으로 적극 높인 것이다. 그는 진정한 복덕성을 성취하기 위한 몇가지 실천적 태도를 제안해주기까지 했다. 예컨대, "1) 마음에 능소(能所)즉, 너와 나를 가르고, 자기편할대로 시비선악을 판정하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2) 붓다의 말은 물론이고, 그 행동과 삶을 따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혜능의 해석에 따르면 <금강경> 본문의 번역은 전혀 달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어째서겠느냐, 이를 복덕이라고 말한다면 즉, 진정한 복덕성이 아니다. 이 주의를 전제로 하여 여래께서는 '그 복덕이 크고 위대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해석의 갈래길 답사

과연 어느 해석이 맞을까. 판단은 유보하고 다른 사람 의견부터 들어보자. <금강경 오가해>에는 무착(無着)의 이런 저런 의견이 많이 실려 있는데, 거기 복덕성 구절밑에 이런 훈수가 붙어있다.

"無著云, 是福者標牒, 卽非者約勝義空, 是故者約世俗有." 무착은 내 편을 들고 있는 듯하다. 인도식 훈고를 본뜬 것이라 주석은 불친절하고 간략하기 이를데 없지만, 풀자면 이렇다. "복덕 운운한 것은 이름표를 붙인 것이다. 그것이 복덕성이 아니라고 한 것은 최종적으로 공덕이 공(空)함을, 즉 성립치 않음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도 복덕을 운운한 것은 세속의 어법을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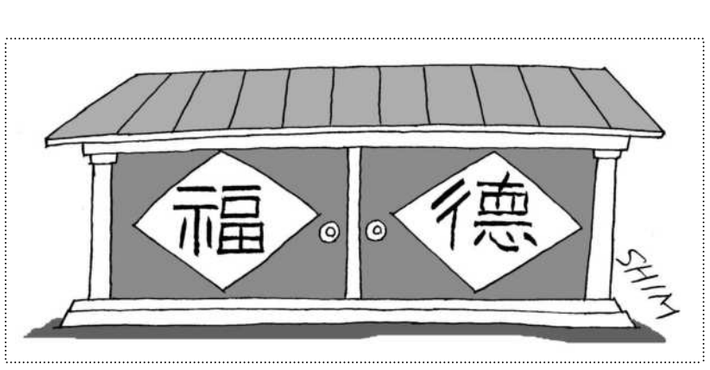
영역본 또한 내 편에 섰다. 콘즈의 영역은 "And why? Because the Tathagata spoke of the 'heap of merit' as a non-heap. That is how the Tathagata speaks of 'heap of merit'"이다. 번역하자면, "왜냐, 여래는 공덕의 축적을 비-축적(非福德性)으로서 말하고 있다. 그것이 여래가 공덕의 축적을 말하는 방식이다."

이쯤되면 문자적으로는 내 해석의 손이 올라갈 것같다. 그러나 실천적으로는 혜능의 해석이 가슴을 찌르고 뒤통수에 불이 번쩍이게 한다. 문자적 학문적으로는 내가 기특할지 모르나, 그러나 수행적 학습적(heuristic) 관점에서는 얘기가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지식과 학문의 근본 문제에 걸려 있다는 것만 우선 짚어두자.

'비(非)-복덕성'인가, '비복덕-성(性)'인가

해석의 미로가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해석의 샛길은 예기치 않던 곳으로 뻗어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강경>이 복덕성을 '마침내 지워야할 분별'로 보았는지, 아니면 '진정한 복덕의 성취'로 읽었는지를 두고, 따져왔다. 그래도 둘이 문자적으로 합치되는 지점은 있었다. 즉, '비복덕성(非福德性)'을 '복덕성이 아니다'라고 읽는 데에는 하이파이브, 의견이 일치했다. 그런데 거기 끼어든 다른 목소리도 있다.

프라이스(A.F Price)가 영역한 <금강경>은 해당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Wherefore? Because merit partakes of the character of no-merit, the Tathagata characterizes the merit as great." 번역하자면 "왜냐, 공덕은 비-공덕의 특성을 띠기 때문에, 여래께서 그 공덕을 위대하다고 특징하셨다." 프라이스는 지금 비복덕성을 '복덕성이 아니다'가 아니라 '복덕이 아닌 성질'로 번역했다. 재미있지 않은가. '비(非)-복덕성'이 아니라 비복덕-성(性)으로 끊어 읽은 상상력이….



이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이 독법이 기발하지만, 글쎄, 원문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코웃음을 쳤다.

그런데 가만 있자, 다시 보니 그렇게 읽어도 체례를 다치지 않는 것같네... 이를 어쩌나. 그런 당황한 눈으로 보고 나니, 콘즈의 영역도 지금 프라이스처럼 해석해 놓은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말하는 복덕은 '복덕이 아닌 성격'을 갖고 있다"고 번역해서 안될 이유가 없겠다는 생각에, 갑자기 자신이 없어진다. 다시 살펴야겠다.

번역이란 이런 엎치락뒤치락의 작업이고, 여러 문헌적 해석학적 작업에 열려 있다. 여러분이 이 여행에 동참할 수 있다면 글, 경전이나 고전을 읽는 재미가 와우나 마비노기같은 애들 게임은 저리 가라다. 그러나 이 일은 여가와 에너지 그리고 시간을 요하기에 아무에게나 권할 수 없어 아쉽다.

누가 한 말인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기로 하자. 나는 이 구절을 너무나 당연하게 '붓다'의 말씀으로 해석했다. 그런데, 맙소사, 콘즈의 영역이 수부티(수보리)의 통찰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다른 사람도 그런가?"하고 나카무라며 다른 번역 몇 개를 살폈더니... 다들 수부티의 언사로들 적어놓았다.

그럼, 전체 번역은 이렇게 된다. "수보리야, 네 생각에 어떠냐. 사람들이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보시로 기부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福德)은 엄청나겠지." 수보리가 대답했다 "대단히 클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복덕의 성질(福德性)을 갖고 있지 않은 바, 그래서 여래께서 매우 큰 복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틀림없을 것이다. 내가 틀렸나? 내 인상적 직감적 번역이 길을 잘못 들은 것이다.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그래도 그냥 꼬리를 내리기는 좀 뭣하다. 나는 판단이 헷갈릴 때, 대체로 처음 느낌이 옳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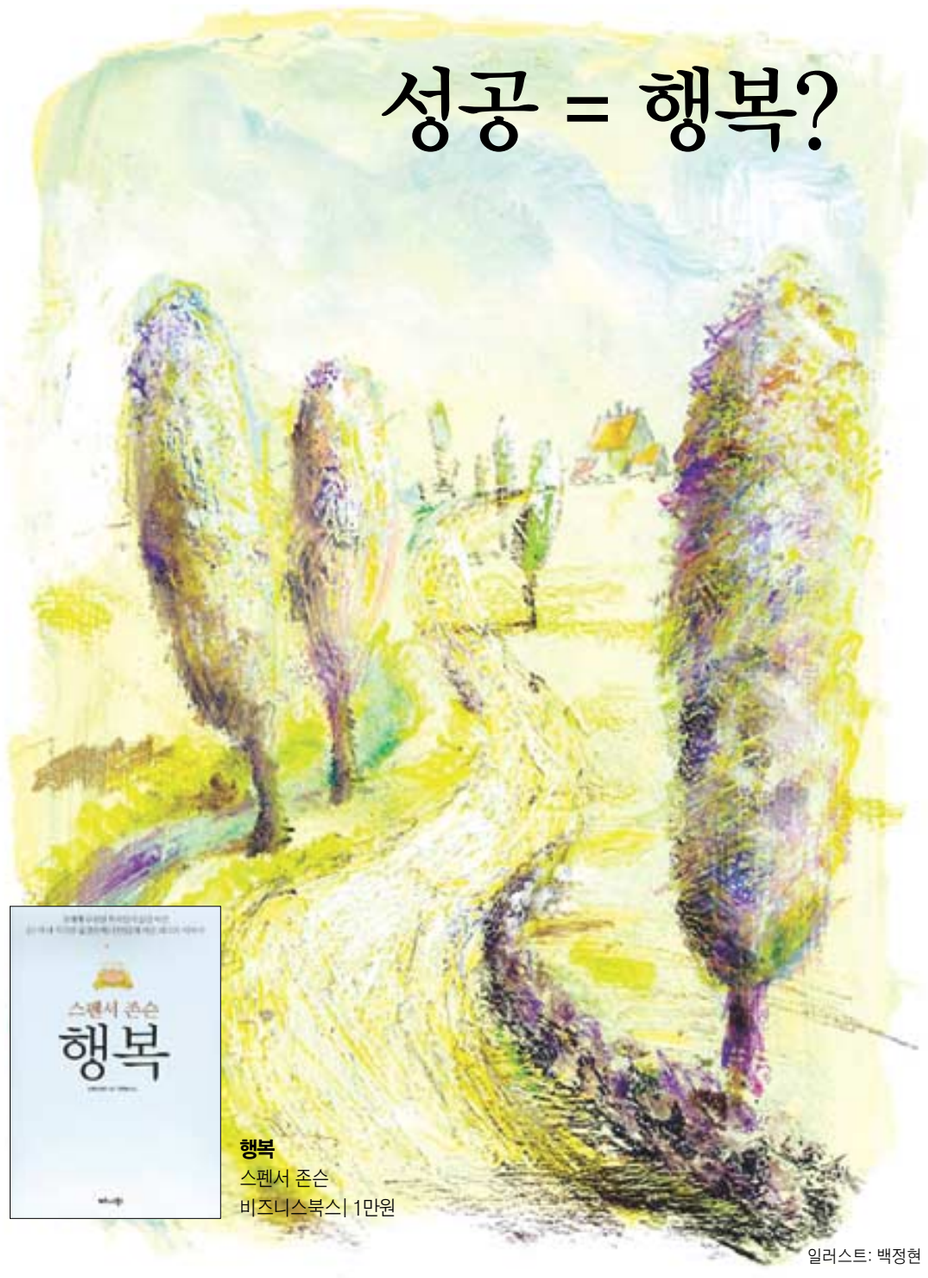
내가 이 구절을 '붓다'의 말로 의심없이(?) 판단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무의식의 과정을 되짚어보니 이렇다. <금강경> 안의 수많은 역설적 화법들은 수보리가 아니라 '붓다'가 설한 것이다! 수보리는 때로 이 통찰을 미리 알고 있기도 하지만, 때로 깜빡 놓치기도 한다. "내가 말하는 ()는 ()가 아니다. 그래서 ()라고 한다" 앞에는 예외없이 "수보리야"라는 호격이 선행한다. 나는 이 패턴에 따라, 이 구절을 붓다의 말로 풀었다.

헷갈린다고 독자제현들께서는 너무 머리 쥐어뜯지 말기를 당부한다. 해석의 여러 갈래길을 추리소설처럼 쫓아왔으니 즐거운 일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불교는 그것을 '누가 말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불교의 저작들에는 지은이가 없다. 문제는 메시지이고, 실천이다. 이 점에서 <금강경>이 전하고자 하는 소식은 간명 직절, 모호한 구석이 없다. 하니, 이 연재 또한 괜히 평지풍파에 긁어부스럼, 아니면 하나마나 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중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cafe.buddhapia.com/community/plan_14

성공 = 행복?



행복
스펜서 존슨
비즈니스북스| 1만원

일러스트: 백정현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나는 왜 즐겁지 않을까?'
누구나 삶에 지칠 때면 한 번쯤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이란 도대체 뭘까?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등으로 아마존닷컴에서 4000만부라는 기록적인 판매부수를 올린 작가 스펜서 존슨. 삶의 동기부여와 성공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는 작가로 평가받는 그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에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성공은 행복에 뒤이어 찾아오는 것이며, 내가 행복해야만 온 세상이 행복해진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스펜서 존슨이 말하는 행복해지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루 단 한 번이라도 나 자신을 껴안아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한다.

> 성공 가도 달리면서도
> 가슴 한 편 빈자리 느끼는
> 현대인에 던지는 '화두'

단 1분만이라도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된다면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을, 더 행복한 관계를, 더 행복한 삶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 <행복>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으면서도 인생에서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던 주인공 존. 존은 스스로의 의지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의 빈틈이 느껴질 때마다 그 원인을 알지 못해 고민한다.
그러다 일에서도 삶에서도 크게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행복으로 충만해 보이는 프랭크 아저씨에게서 행복한 인생의 비밀을 배워 보기로 결심한다.
존의 부탁에 프랭크 아저씨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 또한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의 인물이었다고 고백하며 자기 인생이 그토록 달라질 수 있었던 비밀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한다.
이후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존은 프랭크 아저씨의 '행복'한 비밀을 조금씩 알아가게 된다. 그리고 이 '행복을 위한 비밀'은 하루, 이틀 시간이 가면서부터 가슴을 채우고, 행동으로 옮겨져 놀라운 깨달음과 동시에 깊은 감동으로 존의 삶을 변화시키게 된다.
특히 책의 내용속으로 들어가다보면 '남들은 나에게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내가 싫어졌다'는 존의 고백을 읽는 순간 우리는 그만 스펜서 존슨에게 허를 찔리고 만다.
존의 고백은, 우리의 오랜 믿음인 '성공=행복'이라는 등식을 완전히 깨 버린다. 행복해지기 위해 성공을 원하고, 성공을 원했기에 자기 자신을 희생해 왔던 지난 시간들이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순간이다.
하지만 스펜서 존슨은 순간 패닉 속에 빠진 우리를 다독이려는 듯, 곧 프랭크 아저씨의 입을 빌어 우리를 격려한다. "괜찮다. 다들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잘 모른다는 것은 네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하니까"라는 말과 함께.
<행복>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존의 '허전한 인생'은 픽션이지만 그것이 곧 지금 우리들의 삶의 표상이다. 때문에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찾아 떠나는 그의 조용한 여정은 우리에게 공감을 넘어 깊은 감동과 깨달음의 기쁨을 선사해 주는 것이다.
지은이 스펜서 존슨은 미국 남가주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뒤, 왕립의과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했다.
이후 미네소타 주 메이오클리닉에서 수련의 과정을 마쳤다. 단순한 진리로 인생의 핵심을 통찰하여 현대인들의 내면과 정신세계를 치유해 주는 많은 책들을 펴냈으며 수많은 베스트셀러로 명성을 얻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뉴욕타임즈 선정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올랐던 전체 5권의 "1분 시리즈"를 비롯해 <정직의 가치> <소중한 선물> 등이 있다. 지금까지 세계 26개 국어로 번역되어 소개됐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

네티즌 강추

알쏭달쏭 한의학, 만화로 쉽게 풀어



한의약식 (약식동원, 만화로 읽는 중국전통문화총서 5)
청홍(지상사), 주춘차이 지음
한약과 한의학의 근본뿌리를 기초부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음식물들의 효능과 사용방법까지 설명하고 있다.
만화라는 형식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한의학을 쉽게 풀어쓴 것이 인상적이다. 참 동양은 크고(땅) 많지만(인구) 작고 적은 유럽한테 얼마나 유린당하고 있는가.
이번 월드컵도 그렇다. 이유가 뭘까.
동양인 인데도 동양을 잘 모르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제라도 동양인으로서 자부심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상을 배워야 할 때다. 우리조상들이 수천년동안 질병과 싸우면서 부단히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한의약학은 체계적인 이론과 함께 풍부한 경험이 담겨있는 인류문화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만화책이라도 들고 배워보자. 학교에서 안가르쳐 주니까.

(c0583, lifelog.blog.naver.com/c0583/r02_c0583_4)

땅을 믿고 살아온 농민들 삶의 노래



돌무야 놀자 시와에세이, 안용산 지음
금산문화원 사무국장인 안용산 시인의 세번째 시집 <돌무야 놀자>는 농사를 지으며 불러 온 삶의 노래다.
안용산 시에서 노래는 고단한 일상과 새로운 활력을 일으키는 상관물이다.
이번 시집에는 색다른 시가 한편 눈에 띄었다. 바로 '동굴'이다. 동굴은 이념적 가치성을 잘 나타내는 시라고 본다. 일제 시대에 금을 채굴해간 동굴이 많았다. 6 · 25전쟁이 나면서 그 굴을 피난처로 활용했던 사람들도 많다.
그 동굴에서 깊이를 알 수 없는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이 행하였던 이념들은 결국 사람이 허물어야 하는 벽이 되고 말았다.
한 번 쌓아진 이념이라는 벽은 동굴 속 깊게 고여 있는 물처럼 쉬 마르지 않는 모습으로 아직도 우리들 가슴에 삶의 동굴로 자리하고 있다고 본다. 그 삶이라는 동굴에 아직도 이념은 무너지지 않는 벽으로 패여 있다.
시인은 민중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근간으로 공동체 의식의 회복을 말하려는 듯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가치를 상생과 공생의 정신에 두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것 같다.

(imim0123, kyobobook.co.kr)

책속의 밑줄긋기



○…오늘날 의식주 생활 모든 분야에서 '웰빙(wellbeing)'이라는 말이 건강의 대명사인양 통용되고 있다. 이 웰빙이라는 단어는 세계보건기구의 헌장에서 처음 나온 말이다. 뜻은 물리적 육체적 건전성 못지않게 정신적이고 심적인 안정성이 보다 중요한 요체임을 말해주고 있다. 즉 지혜로운 마음가짐이 건강관리나 지병관리에 기본이 된다는 것이다.
우주 삼라만상이 다 아름답고 세상만사가 다 고맙다고 생각하는 넉넉한 마음에는 그까짓 질병이나 장애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노병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순리이다. 그러나 생멸의 이치 즉 제법무아 제행무상 열반적정의 진리를 터득하기란 쉽지 않다.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불법에 귀의하는 것이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불법을 만나보고 간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다복한 일이라고 뼛속깊이 감사하고 있다.

–<공직윤리> 본문 206~209쪽중에서, 하늘재, 이두호 지음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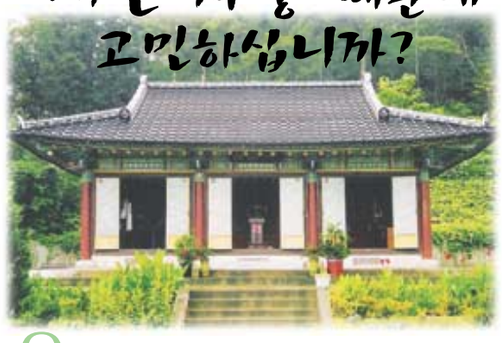
新 유식학
유식사상연구회 고 목 지음 동서출판 밀 양
••• 내 마음의 안과 밖을 여실히 깨달아 上智로 거듭난다.
유식학은 일상생활 속으로 과학과 진리와 종교를 한꺼번에 아우러는 <새로운 밀레니엄의 길잡이>이다.
내 몸과 마음을 알고, 사물과 세계와 우주를 알고, 그 지말과 근원을 알아 진리에 부합하면서 이상세계를 지향해가는 길을 밝히고 안내하는 독보적인 안내서이다.
–머리말 中에서–
이 책의 특징
•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
• 유식학 전체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 유식학의 현대적 의미 부각, 특히 현대물리학, 창조론과 진화론, 생명과학, 정신과학 등과 관련된 부분
• 유식학의 무한한 미래 가치 摘示
• 자기발견 · 생활속 수행과 習學 실용성 · 편의성 제고
• 의식개혁 · 이상세계의 비전 제시
구입문의
전국불교서점 · 유명서점
총판 : (02) 3672-7181
☎ 유식사상연구회 ☎
(055) 353-6142
010-2356-6142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융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바로보인의 책을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엮고 / 지음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어접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선서(禪書)!
바로보인 진등록 전5권
바로보인 무문관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바로보인 증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바로보인 선가귀감
영원한현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0권 중 2권까지)
바로보인 선문염송 (30권 중 8권까지)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햇눈 희다
<바로보인 선문염송 8권 출간!>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역지한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중 제8권 출간!
최초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매월 첫째주 일요일 선가귀감 법회 선가귀감 법문 테잎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곧이어 출간될 책은 <바로보인 선문염송 9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연대칼라지붕공사



산빛 물든 사람들
정과 지음
여시아문 | 1만원

세속 떠난 그들, 산빛에 물들다

'비워야 한다. 버려야 한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나를 지탱해온 것이라 여겨지던 모든 생각과 기준과 신념. 그러한 것들이 나를 먹여 살렸다는 이제까지의 믿음과는 달리, 그러한 것들이 참 나를 가리고 있었다. 본래의 나에 눈뜨고 싶다. 최초의 나를 만나고 싶다.'

구도승들의 솔직 담백한 안팎 살림살이

세속의 번잡함에 물들기 싫어 산으로 간 구도승들의 내적 외적 살림살이에 대한 궁금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갖추어져 있다는 '부처 될 씨앗'이건만 세속에 묻혀 살다 보면 요원해지기 쉽고 깨달음의 소식은 산사에서 정진을 하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대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은 대부분 산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산에서 산다고 산빛으로 물들기는 쉽지 않다. 잿빛 승복으로 몸을 감싼다고 뛰는 심장까지 감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도승들의 머릿속, 가슴속 사정은, 어떠한 저잣거리보다도 복잡다단한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산빛 물든 사람'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수행과 정진'의 세계에 젖어들곤 하는 것은, 그리고 화두를 드는 이유는 뭘까?

1985년 송광사로 입산 출가하여 승랍 21년째인 정과(正果) 스님이 <산빛 물든 사람들>이라는 책을 통해 화두를 들고 용맹정진을 일삼으면서도, 하루도 멈출 사이 없이 먹고 입고 자고 씻고 배설하는 몸뚱이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고뇌 현장을 솔직 담백하게 공개했다.

스님은 다섯 해가 채 못 되는 기간 동안만 주지 소임을 맡았을 뿐, 봉암사, 해인사, 칠불사, 상원사 등지의 선원에서 화두 수행에 맛을 들여 온 문자 그대로의 수행승이다.



스님은 산에서 사는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말라죽은 나무 물어뜯는 것처럼 진척이 없고 힘만 들다가도, 어느 순간 화두가 밝아지고 순조로워져서 언어를 넘어서는 법열의 경지로 데려다주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도 '자연 그대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구도승들의 안팎 살림살이에 대해 솔직히 토로한다.

'수많은 망상이 파도처럼 높아 지다가 간 곳 없이 잦아든 뒤 화두 하나만 덩그러니 남을 때가 있다. 마을을 지나다 한낮의 닭 우는 소리에 깨쳤다느니, 냇물을 건너다 물에 비친 모습을 보고 한소식 했다느니, 한 대 얻어맞는 그 순간 홀연히 활연대오 했다는 이야기가 허다하다. 그러다 보니, 그게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내게도 그런 기적 같은 순간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게 된다.'

스님은 숨김없이 복잡한 내면을 털어놓기도 하지만, 그것은 정진 도중에 자신에게 속삭이는 명상의 말들로 소화되고 승화되어 독자의 가슴을 울리는 공명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스님의 메시지는 힘이 있다.

'이제부터라도 마음의 주인이 되어 살아라. 누군가를 미워했던 것도 마음이 한 일이며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도 마음이 하는 일이다. 일분 일초도 나와 떠나 있지 않으면서, 나도 아니면서, 나를 이끌어온 마음. 밝혀낼 일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조사선 핵심과 수행법

송말원초 임제종의 맥을 이은 고봉원묘 선사가 1294년에 지은 설법모음집 <선요>. <선요>는 실참실오에 의한 간화선의 요체이며, 선문납자의 정안을 열어주는 지침서이다.

고봉 스님은 이 책에서 본래성불(本來成佛)과 순간 깨침을 말하면서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하근기 사람을 위하여 참구 깨침의 방편으로 선을 소개하고 있다.



선요
고봉원묘 지음
전재강 역주
운주사 | 1만원

스님은 화두를 참구해서 일념이 되고 은산철벽을 투과하여 확철대오에 이르는 공부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필요한 요소나 경계해야 할 사항을 말하고 있다. 즉 화두를 참구하는 방법, 화두참구에 필요한 대신심(大信心)·대의정(大疑情)·대분지(大憤志)의 세 요소, 일대사(一大事), 화두참구 과정에 만나는 각종 병통, 향상사(向上事)등에 대한 가르침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안진호 스님이 1936년 현토주해한 이후 기본교재로 채택된 <선요>의 오류를 일부 수정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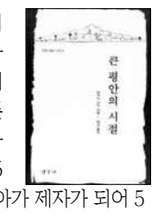
우선 선의 종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안진호 스님의 잘못된 해석 13군데를 바로잡고 있다.

예를 들면 안진호 스님이 '노력해도 공이 없다고 한 것은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니 주장자를 한번 내리고 할을 한번 하는 것이 도리어 수고롭기만 하고 공이 없다'고 번역한 부분의 경우 '노력해도 공이 없다는 것은 물속에서 물을 찾고 산속에서 산을 찾기때문이다'의 오기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역시 선의 종지와 관련된 것으로, 한국 전통선인 조사선의 핵심과 수행방식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수행으로서의 선과 학문으로서의 선학을 구분하여, 이 책에서는 논리적으로 풀이하고 정리하는 선학의 입장을 취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글세대를 위해 되도록 현대적인 문장과 어휘를 사용하였다.

새로나온 책

■ **큰 평안의 시절**(마우니 사두 지음, 대성 엮음, 탐구사)= 가톨릭 신자로 신지학, 카발라 등 신비술에 조예가 깊었던 저자인 마우니 사두(멜버른 명상그룹 지도자)가 1945년 라마나 마하르쉬의 가르침을 접한다. 1949년 5월 라마나스라맘으로 마하르쉬를 찾아가 제자가 되어 5개월간 그 곁에 머무르면서 진아를 체험하고 나날이 삼매를 심화시켜 나간 체험담을 간결한 문체로 기록했다.



yosiamun.com 추천도서

·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불광출판부, 무비스님, 9000원
· 신(新)유식학	밀양, 고목, 1만2000원
· 묵조선 입문	석란, 김호귀, 1만원
· 일연을 묻는다	현암사, 고운기, 1만5000원
·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오후에, 만공스님, 1만5000원

도서주문 (02)2004-8220

'시왕경' 송광사 판본 번역



시왕경
김두재 지음
성문 | 1만원

살아서도 죽어서도 인과응보의 준엄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으며, 죽음가 심판의 짧고도 긴 여정 속에 망자가 고통으로 토해내는 자기 성찰과 대면할 수 있는 <시왕경(十王經)>.

'시왕'은 욕계(欲界)의 6천(六天)과 4선천(四禪天)에서 사자에 대한 죄의 경중을 다루는 10명의 왕을 일컫는다.

<시왕경>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僞經)이지만, 세속적인 권선징악의 요소가 짙다.

이 책 <시왕경>에는 우리나라의 옛 <불설예수시왕생칠경> 목판 판본들 가운데 1618년 송광사에서 간행된 판본의 경문을 번역했으며, 변상도를 그대로 실었다.

또 함께 실린 <불설지장보살발심인연시왕경>의 경우 경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 한 점과 조선 말(1878년)에 제작된 시왕도 초본 10점이 수록돼 있다.



"부수 214자만 알면 한문 쉬워요"

interview

한자자습서 '한문서당' 낸 김광식씨

"214자의 한자 부수만 알면 쉽게 한문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불교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문을 독파했으면 합니다."

45년간 한문을 연구해온 김광식 명광문화원장(64)이 과학적인 교육방법으로 한문공부에 흥미를 부여하는 한자자습서 <漢文書堂(한문서당)>을 발간했다.

<한문서당>에는 214자의 부수부터 2300자의 한자, 650여개의 고사성어, 행정용어, 속담등 총 1만여 문장이 수록돼 있다. 특히 고사성어 고사성어풀이에서는 음훈을 비롯해 동의어, 해설, 출전, 어원까지 자세하게 풀어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어른들까지 누구나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김 원장은 "이번에 발간한 <한문서당>에는 지금까지 이뤄진 주먹구구식 방법이 아닌 새로운 형식의 한문학습법을 제시했다"며 "기존의 음과 훈을 암기하는 식으로는 학습의 성취도를 높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장이 전수하는 '한자 따라잡기' 비법은 부수의 뜻을 풀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한자의 모양과 음을 자세한 해설로 풀어내 부수가 만들어진 과정을 한눈에 쏙 들어오도록 설명하고 있다.

즉 齒(음:치 · 훈:이)는 입안(口)에 고정(止)되어 있는 윗니(人人)와 아랫니(人人)의 모양을 나타낸다'란 해설처럼 부수가 만들어진 과정을 알기쉽게 설명해 뒀다. 덕분에 전혀 몰랐던 한자라도 그뜻을 생각해보는 안목이 길러져 정확하고 풍부한 어휘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필순에 따라 한자를 익히며 쓸 수 있게 했으며, 부수와 총획수를 쉽게 배울 수 있게 했다.

이렇듯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 한자의 어원을 따라가며 한자의 의미를 파악하고 기억해 낼 수 있도록 구성한 만큼 혼자서도 쉽고 재미있게 한문을 배울 수 있다.

김광식 원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45년간 한자를 연구해왔으며, 전통민속기능(민요.민속극)을 보유하고 있는 전통예술인이기도 하다. 또 청주불교방송에서 '김광식의 불교이야기'를 2년간 진행했으며, 청주한문불교교양대학을 5년간 운영해왔다. 한국국악협회 충북지회장, 법왕불교대학 교수, 세계자유연맹 특별문예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개혁통일총연합 부총재이며, 명광문화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02)720-0856

김원우 기자



漢文書堂(한문서당) 1~6권
김광식 지음 | 명광문화원 | 9만원

화제의 신간
21세기 다시보는 풍수지리
智山 風水地理要訣 【제1권】
풍수지리는 미신이 아닌 자연과학이다
이기 형기 현공 양택 산사주학 비법
신개념의 풍수가 한눈에 쏙쏙!
이것이 바로 기둥이요 뿌리라!!!
신 풍수지리 완결편 지침서 길잡이!!!
● 주역팔괘 방위와 음양오행에 따른 이기학
● 좌향과 해운에 따라 후손에게 미치는 산사주 비법
● 해운과 좌향 변화에따라 변하는 현공학
● 지형지세와 용맥 변화에 따른 형기학
● 간산(산소 감정) 요령
● 각종 택일
● 장의절차와 상례축문
전국 서점 판매중!
金 根 夏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736쪽 / 정가 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값 50,0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미래 사주학 핵심정리 | 4×6배판/이선종 지음/25,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0,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02) 921-8434 Fax.(02) 929-3470 입금계좌 : 390-04-150044 조흥은행 예금주(소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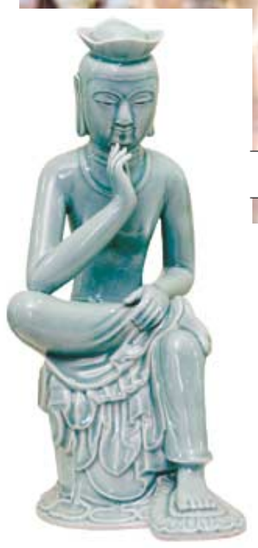
엉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귀신을 다루는 사람이 돈벌이에 치중하고 명예를 구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빙의의 시대
돈벌이만 쫓는 빙의 전문가,
귀신 쫓는 것만을 능사로 아는 반쪽자리 퇴마사들,
인간과 귀신에 대한 따뜻한 마음 없이는 빙의를 말하지 말라.
신국판/ 312쪽/ 9,500원
서울출판 Tel. 02-313-5047 Fax 02-393-9696/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지은이/ 일광(逸廣)
'도인(道人)의 길'은 오로지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어느 여인이 정중하게 말했다.
"선생님처럼 치료하면 남들이 믿겠습니까? 주소만 적어가서 사흘 만에 병을 고쳤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젠 제물도 갖추고 하다못해 기도드리는 시늉이라도 해야지 남들이 믿지요."
허허, 그건 그렇다. 하지만 이미 물욕(物慾)을 접어둔 선생은 사람들에게 접신된 귀신이나 천도해주고
또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조용히 살고자 한다. 그렇게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도인의 길이기에...



‘名作’ 한자리서 보고 느끼자

킨텍스서 ‘2006 대한민국 대한명인전’

전각가 고암 정병례씨의 설치작품 ‘지수화풍’.





윤도현 作 ‘미륵반가사유상’(왼쪽)과 임경표 作 ‘용봉향로’.

고지도·한지·탱화 등 1500점 전시
제작 과정 시현·체험의 장 마련

3200평 규모의 일산 한국국제전시장(킨텍스)이 30~40m에 달하는 대형 오백나한도를 비롯해, 광개토대왕비 탁본, 얼레빗, 전통 도검, 갈천공예, 옥공예, 대형 청자 등 다양한 작품 1500여점으로 가득 찼다.

전시 시현 공연 체험을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2006 대한민국 대한명인전’이 8월 1일 전통문화 명인들의 작품들로 단장을 마치고 화려한 자태를 드러냈다. 20일까지 계속되는 ‘2006 대한민국 대한명인전’은 대한신문화예술교류회가 전통문화 축제의 장으로 마련한 전시다.

‘2006 대한민국 대한명인전’에서는 잊혀져 가는 우리 문화의 각종 유산들을 현대에 되살려 한 자리에 모았다. 결과물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는지 체험이나 시현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자리이기도 하다.

전시는 고지도 전통한지 오백나한도 한복 하회탈 봉정사 극락전 모형 등 66분야에서 출품된 작품들을 선보인다. 김용우씨의 탱화, 박해도씨의 사리합 등 금속공예, 윤도현씨의 미륵반가사유상 등 청자 등 21개 분야 대한명인들의 시연과 체험의 장도 마련돼 전통 문화 생산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전각가 정병례씨의 ‘지수화풍’은 여러 점의 전각작품들을 공간에 매달아 이색적인 모습을 연출해낸다. 첫날 현장에서 직접 조립된 봉정사 극락전 모형은 이광복씨의 작품. 조립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바로 옆에서 학생들에게 나무를 자르고 못없이 꿰맞추는 체험을 제공해 학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김용우 作 ‘탱화’.



봉정사 극락전 모형을 선보인 이광복씨(왼쪽에서 두번째)가 어린이들과 함께 나무를 손질하고 있다.

목판으로 재현된 <무구정광대다리니경>, 법당 불단을 장엄할 지화공예, 도자기로 만들어낸 미륵반가사유상, 포대화상 등 볼거리도 풍성하다.

전통문화공연도 매일 열린다. 박상운 명인의 ‘봉산탈춤’(9일), 이종달 명인의 ‘판소리 수궁가’(10일), 김종흥 명인의 ‘장승 퍼포먼스’(11일), 조용석 명인의 ‘산조대금 연주’와 퓨전 국악실내악단 천향의 국악 실내악 공연(12일), 이성원 명인의 ‘거문고 산조’(13일), 예천 통명농요 보존회의 ‘예천 통명농요’ 시연(14일), 이승희 명인의 ‘신칼대신무’ ‘승무’와 송파산대놀이(15일), 박상운 명인의 ‘봉산탈춤’(16일), 조준석 명인의 ‘난계국악기 제작촌 공연’(17일), 김종흥 명인의 ‘장승 퍼포먼스’(18일), 강동렬 명인의 ‘가야금 병창’과 ‘판소리 흥부가’(19일), 김동렬 명인의 ‘동해안 별신굿’(20일) 등이 오후 3시에 공연된다. (031)995-8401

글=강지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건축가가 찍은 전통건축
13일까지 김석환의 ‘사진쟁이 1019’展

건축가 김석환씨가 7월 31일~8월 13일 서울 공평동 ‘사진쟁이 1019’에서 전통건축 사진 50여점을 선보인다. 지난 3월 <한국전통건축의 좋은 느낌>을 출간한 것을 계기로 전시회가 마련된 것이다.

부석사 선암사 완주 화암사 봉정사 영산암 등 불국정토를 표현해낸 사찰건축에서부터 ‘앞에는 조정, 뒤에는 침전’이 배치된 경복궁, 종묘제례를 거행하도록 제례의식에 따라 제삿상에 제물을 배치하듯 설계한 종묘, 풍수와 음양오행과 사회 가족제도에 걸맞게 지어진 민간 주택과 주자학의 격식을 갖춘 서원 등을 흑백사진에 담았다.

김석환씨는 “한국 전통 건축은 섭리에 순응하는 우주적 세계관이 적용돼 있다”며 “전통건축 사진을 찍으며 주목한 것은 건축 본연의 과정에 의해 자연과 균형을 갖춤으로써 표상되는 그 존재성의 발현 양상을 중시하는 마음가짐에서 포착하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02)723-1977

강지연 기자



김석환씨가 촬영한 안동 봉정사 영산암 사진.

interview

첫 도예 개인전 여는 영운 스님



“장작가마는 지수화풍의 예술”

“선방에서 수행에만 전념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항상 차를 마셔오다가 문득 망상처럼 내가 만든 차그릇을 가지고 마시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10여년을 약수암 견성암 내원사 등 제방선원에서 참선수행에 몰두했던 영운 스님이 도예를 시작한 계기다.

옥천요 이숙인 선생에게 사사한지 6년. 영운 스님의 첫 개인전이 8월 16~22일 서울 경인미술관 제2전시실에서 열린다.

80여점의 다도구와 화병 등 전통 장작가마에서 구워낸 도자기들이 제각각의 자태를 뽐낸다.

500여년 전 사용했던 전통 도예법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산청 용화등지에서 흙을 가져와 물 수비(물을 섞어 흙을 걸러내는 작업)를 거쳐 3년 이상 삭힌다. 이 흙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 소나무 장작을 사용하는



8월 16~22일 경인미술관 전시
물에 거른 흙 3년 이상 삭혀 작업
불교 전통문양 응용 도자벽화 구상

장작가마에는 한 번에 2500~3000개의 작품이 들어간다. 영운 스님이 스승 이숙인 선생과 함께 한달을 꼬박 작업해야 장작에 불을 붙일 수 있다.

“불 때는 시간만 18시간 걸려요. 도자기를 빚고 작업하는데 하루종일 매달립니다. 매일 12시간 정도는 작업할 거에요.”

스님의 하루는 참선과 도예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시간 나는 틈틈이 참선한다. 작업장 인근에 백련과 50여종의 수련 등을 키운다. 참선을 하고 연꽃을 보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다. 스님의 아이디어찾기 비법이다.

“내가 만든 찻잔으로 차를 우려 마셔보고 불편하거나 부족한 점을 점검해 다음에 만들 때 개선한다”는 스님은 “장작가마는 지수화풍이 다 합쳐서 기막힌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기에 힘들어도 매력적”이라고 밝힌다.

스님은 앞으로 사찰 문살 등을 활용한 ‘도벽(陶壁)’을 만들 예정이다. “불교에서 전해오는 전통 문양 등을 도상화해 벽화로 작업하고 싶다”는 영운 스님은 “화엄경의 여러 불·보살님들의 형상을 현대적 도자탱화로 그리고 싶다”고 말했다. (02)733-4448

강지연 기자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 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 달마카드
소재 : pp금창 달마도 부적카드
규격 : 50mm × 75mm
※ 50장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달마 3호-그림: 30×40cm
달마 4호-그림: 40×50cm
달마 6호-그림: 35×45cm 액자: 47×64cm
달마 8호-그림: 35×68cm 액자: 47×88cm
달마 10호-그림: 45×75cm 액자: 58×94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851-5535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성불에도 최고!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금강염주

금강의 강한氣로 건강을 지키는 금강염주

금강약석은 60여종의 미네랄 원소와 **95%의 높은 원적외선,음이온이** 발산되고 **98%의 살균작용을** 하며 **활성탄의 몇 배 강한 흡착력이** 동시에 이루어져 뇌가 맑아지고, 원활한 신진대사, 혈액순환등에 효과적으로 북한에선 일부고위층만 사용하며 뇌졸중, 중풍,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천식, 치매, 아토피등 치료제로 사용합니다. 오염된공기,수맥파,OA기기,컴퓨터에 의한 전자파등 현대의 환경속에 건강이 약해지는 스님 및 불자님들께 건강증진 및 활력증강을 드리는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금강염주는 사용할 본인이 접안식후 사용하세요.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철심이 들어간 12단주를 제작하였으니 기도 정진하시는 스님 및 불자님께 주문 판매 합니다.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희귀의 금강약석이 주성분인 금강염주는 북한특산품으로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생산되며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사에서 국내 독점으로 반입, 조립 시판하며 화제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신 스님 및 불자님께서 효능을 인정하시며 모든 분께 최고의 선물로 추가 주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한氣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과 맑은 영으로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오며 금강의 강한 氣와 지혜로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며**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로 기도 정진시 부처님의 대광명, 대성취를 이루시며 가피를 받습니다.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 사업이 안되어 고민하고 계신 분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 승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분
❖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
❖ 고시준비 하시는 분
❖ 결혼배필을 찾고 계신 분
❖ 중환으로 투병중인 분
❖ 건강(氣)이 약하신 분

금강염주를 성원해 주신 모든 스님 및 불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1세트 가격
108염주, 손목염주 160.000원
108염주, 12단주 195.000원
108염주,12단주,손목염주 225.000원

입금구좌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 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 406호



자애로운 웃음으로 제방 선객을 맞는 대원 스님은 칼날같은 법거량으로 바른 안목을 열어준다.

줄탁동시 법문으로 공부 독려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대원 스님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지루하게 머물렀던 장마가 물러난 7월 29일, 하늘이 청명하다. 수좌스님들이 수행하는 오등선원과 재가자들의 수행처인 오등시민선원이 있는 공주 학림사는 출 · 재가를 구분하지 않는 정진과 꼼꼼한 점검, 생활 속의 실참, 회향의 가풍을 널리 펴는 참선도량.

하안거 해제를 열흘 앞두고 이 곳 학림사의 정진 열기는 한여름의 더위만큼이나 뜨겁게 달아올랐다. 입방자들의 공부자리를 점검하며 경책하는 조실 대원(大圓) 스님이 자리하고 있는 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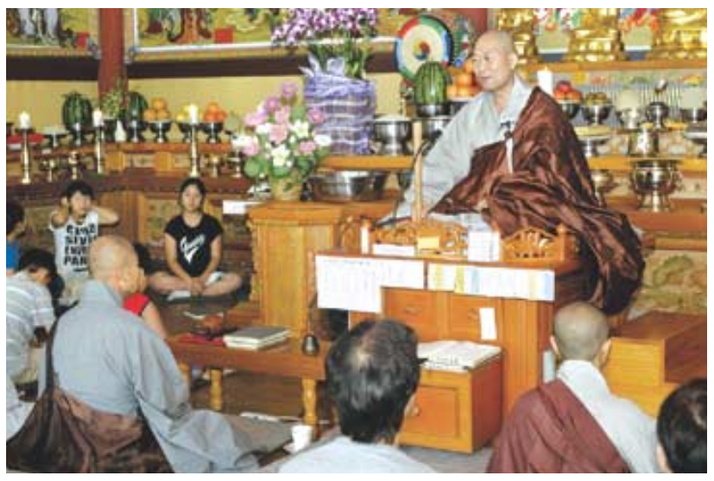
대원 스님은 학림사 오등선원과 오등시민선원에서 결제중인 60여 대중에게 해제가 다가오면서 흐트러지기 쉬운 수행의 고삐를 바짝 당긴다. 점검, 오등선원과 오등시민선원의 대중이 반드시 거쳐야할 관문이다. 결제에 들 때와 결제가 중간쯤 지났을 때, 또 해제를 앞두고 대원 스님은 대중을 모아 한철 농사를 어떻게 지어가고 있는지 점검한다. 스님의 경책은 손톱만큼의 인정도 없다. 백척간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밤 11시에야 불이 꺼진 대원 스님의 방은 새벽 2시가 되기도 전 다시 켜진다. 세 시간도 채 눈을 붙이지 않은 대원 스님은 가부좌를 틀고 잠시 참선에 들다 3시에 선방에 오른다. 모름지기 어른은 대중보다 부지런해야 하지만 대중의 때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단다.

예불이 끝나면 대원 스님은 곧바로 상단에 올라 주장자를 내려친다.

"어제는 무엇을 얻었는가. 오늘은 무엇을 버릴 것인가…." 한시간여의 줄탁동시(啐啄同時, 병아리가 알에서 날 때에 어미 닭이 알을 쪼아 돕는 것) 법문은 결제기간 중 단 하루도 빠짐이 없다. 오등시민선원으로 자리를 옮겨 법좌에 오른 스님은 역시 법문으로 정진을 채근한다.

대원 스님은 하루의 대부분을 출 · 재가를 막론하고 선객을 만나는데 할애한다. 후학들의 눈을 열어주는 선지식이 많지 않은 요즘 바른 공부로 이끌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제철엔 덜 하지만 해제 때에는 찾아오는 선객들이 많다. 이들을 만날 때마다, 수좌는 많은데 바른 농사를 짓는 수좌가 많지 않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



참선수행의 길을 열어주는 대원 스님의 가르침을 듣기위해 출 · 재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새벽 3시부터 출·재가 구별없이 매서운 지도
한철 농사 짓듯 제자들 공부자리 꼼꼼히 챙겨
울력 동참 주요일과…600평 텃밭서 '경작삼매'

선객들도 다양하다. 한마디로 통하는 선객이 있는가 하면 몇시간을 얘기해도 통하지 않는 이도 있다. 그 중에서도 스승 없이 공부를 한 선객을 만날 때 가장 안타깝다. 아무리 얘기해도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 빠져 있어 할(喝)이나 방(棒)으로도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소식 했다며 찾아오는 선객들도 더러 있는데, 문답을 해보면 마름질을 못해 마음 병통을 안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사찰의 울력에 동참하는 일도 대원 스님의 중요한 일과 가운데 하나다. 수행자에게 대중생활은 조화와 화합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스님은 잠시의 여유가 생길라치면 절에서 경작하는 600평 규모의 텃밭을 일구며 수행으로 삼고 있다.

대원 스님은 해제에 앞서 수좌들에게 만행에 대한 애정어린 당부를 한다.

"만행도 수행의 한 방편입니다만, 섣불리 만행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걸망 메고 산문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참선공부로 이치를 깨달은 다음 행으로써 모든 이를 이롭게 하는 공부가 만행이기 때문입니다. 경계가 없고 대중 속에서도 융합하여 흔들림이 없이 여여할 때 만행에 나서기 바랍니다."

대원 스님은 산중생활을 할 수 없는 재가 불자들에게는 "껍데기 인생을 벗어버리고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고 살라"고 당부한다. 나의 존재를 바르게 아는 순간 삶의 참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 이를 위해 참선수행을 게을리 하지 말라는 대원 스님의 사자후가 귓가에 오래 남는다.

글=박봉영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효봉 · 경봉 스님 등 선지식에게 지도 받아
고암 스님 가르침에 깨닫고 전법게 받아

대원 스님은 | 1942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57년 상주 남장사에서 고암 스님을 은사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득도수계했다. 20세때 동산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은 오대산 상원사, 도봉산 망월사, 문경 김용사, 해인사, 송광사, 통도사 극락암 등 제방선원에서 안거하면서 효봉 · 경봉 · 전강 · 향곡 · 성철 · 구산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1973년 당시 해인총림 방장 고암 스님의 "백수상두(柏樹上頭)에서 수방진일보(手放進一步)하야 시지종차(始只從此)로 출격대장부(出格大丈夫)라."는 가르침에 홀연히 깨닫고 오도송을 지어바치고 전법게를 받았다. 오도송은 이렇다.

"잣나무머리에서 손놓고 한걸음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확연히 의심뭉치 녹아 무너졌네. 밝은 달은 홀로 드러나고 맑은 바람 새로운데 늠름히 비로자나 이마 위에서 활보함이로다."

世界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

초대형범종의 밀랍주조공법 개발 성공

– 에밀레종, 상원사종을 초월하는 초정밀 범종 제작 실현 –

聖鐘社가 지난 2004년 중소기업청이 전개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본사 전매특허인 蜜蠟鑄造工法으로 10,000관 이상의 초대형 범종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법당종에서 입증된 성종사 작품종의 섬세한 문양과 부드러운 소리를 이제 大鐘에서도 만나보실수 있습니다.
聖鐘社는 최고의 범종 제작을 위해 항상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된 강릉시민의 종
높이 3.15m, 직경 1.85m 중량 3000관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종사 범종의 하대 문양 !

성종사가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신라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재현하는데 성공,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원광식대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종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 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함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도입함으로써 갈색, 구리색, 녹청색, 금색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聖鐘社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www.soungjou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대표 : 범산 원 광 식(인간문화재 112호 • 대한민국 명장)

상표등록 : 614981호

수제화로 제작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망사 단화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최고의 선물

건강 슬리퍼


• 가격 : 60,000원
• 규격 : 225-285mm
• 색상 : 회색, 흑색

좋은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품을 받아보시고 구입결정 송금하세요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참마음 챙기며 부처로 살아가세요



대원 스님은 늘 생활속에서 실천하고 회향할 것을 강조한다.

대원 스님의 가르침

산승이 말없이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입으로 말하고 글자로 보여주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무엇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것은 바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을 때 전해진 뜻을 알아야 합니다.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설법을 청하는 대중 앞에서 아무 말 없이 공양을 드시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중은 부처님께서 그런 연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사리불존자만은 뜻을 알아차리고 "부처님께 진실로 귀의합니다"라며 절을 하였습니다. 오직 사리불존자만이 말 없는 법문의 뜻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도 소리 없는 법문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법문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법문이 어느 곳에는 있고, 또 어느 곳에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귀머거리, 눈먼 소경입니다. 우리는 참 진리가 철철 넘치고 있음을 보고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의 부모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인사를 안 해도, 쓰레기를 버려도 바르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정이 무너져 이 사회가 무너졌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해라' '놀지 마라' '좋은 일 해라'고 말해도 자식은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입니다. 공자 같은 좋은 말을 해도 자식에게는 그저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푸른 허공과 같고 맑은 물처럼 의식이 깨끗하면 누가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말로 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집안에서 가부좌를 틀고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자식은 그 속에서 알아차립니다. 부모가 참선수행을 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49년 동안 전법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첫 걸음을 내디딜 때 이미 할 말을 다 했습니다. 뜻으로, 마음으로 다 했는데, 다만 중생이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해 설법을 한 것입니다.

(주장자를 들며) 제가 주장자를 들어 보입니다.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알아차리는 이가 있다면 그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가정은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지혜 속에 자신은 물론 가정의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손톱만큼이라도 숨기는 것이 있으면 진리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오로지 깨끗하게 비어있는 마음이라야 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온 국토가 청정해지고, 국토가 청정해지면 중생이 청정해집니다. 더운 여름에 시원한 가을바람이 부는 것과 같고, 추운 겨울에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요즘 정수기 없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냥 물을 먹지 못하고 정수기 물을 먹게 되었습니까? 먹을 것은 물론 땅이며, 공기까지 오염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생각이 깨끗하지 못한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정하지 못해 바로 보지 못하고, 자신이 사는 땅을 더럽히고 물을 더럽힙니다.



공부해라 놀지마라 잔소리일뿐
부모가 가부좌 틀고 앉아보세요
가정이 바로 서고 세상이 달라져

그런데 환경오염만이 공해는 아닙니다. 의식의 공해는 더한 공해입니다. 결국 환경오염도 마음의 공해에서 생겨났습니다. 한 생각 마음을 맑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세상을 맑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청정해져야 합니다. 또 수행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집안에서 참선수행을 하면 가정이 바로 섭니다. 그러면 세상도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살고있는 학림사에는 서양의 내로라하는 석학들이 불교를 배우러 오기도 합니다. 참선법을 가르쳐주어도 가부좌를 하지 못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다보니 가부좌가 될 리가 없지요. 그런데도 밤새 참선을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그들의 열정과 도전은 대단합니다. 불교공부해서 이 세상을 바로 잡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 절대로 하지 않고 거저 먹으려고만 합니다.

내면의 세계를 보는 사람이야말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 불자들이 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절을 합니까? 마음을 맑히기 위해서입니다. 참선을 하는 이유는 근본자리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눈에 보이는 면만 보지 말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다른 면까지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 혜안을 열어주는 것이 마음공부입니다.

참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본래 부처입니다. 흔히 듣는 말이지만 이해가 되지 않으니, 부처가 아닌 줄 알겠지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중생이 아니고 분명 부처입니다. 일체 중생을 자비심으로 보살펴야할 부처입니다. 앞으로는 꼭 부처로 살아가십시오.

정리=박봉영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77>



戒 지키며 삼가는 날 승가의 덕 기리는 날 부모·조상 보은의 날

우란분절에 '재'를 올리는 뜻

'제사'가 아니라 '재'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가정이 화목하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종교의 세계를 두드립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조상을 숭배하는 풍습이 생활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터라 세상을 떠난 조상님들을 좋은 곳으로 가시게 빌어드리면 대신 내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비용을 내어서 조상님의 천도를 빌면 내 정성을 조상님이 몰라라 하지는 않을 터이고 이런 마음이 절에서 7월 보름에 열리는 우란분재(백중)에 고스란히 쏟아집니다. 그래서 흔히 백중을 조상님께 제사 드리는 날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백중날 절에서 올리는 의식은 '제사'가 아니라 '재'입니다. 재(齋)는 '공손하고 삼가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깨끗이 몸을 씻고 종일 잡다한 일들을 피하고 출입을 삼갑니다. 그리고 가장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정신을 산만하지 않게 하고 근신합니다. '재'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조상과 아귀는 무슨 관계인가

경전에서는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살아 생전 남에게 밥 한 톨도 줄 줄 모르는 너무나도 인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귀(굶주린 귀신) 세계에 가서 났다고 합니다.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제하려고 도움을 청하자 부처님이 7월15일 하안거를 마치는 날에 승가에게 깨끗한 음식을 올리라고 방법을 가르쳐준 데에서 우란분재는 시작되었습니다.

아귀는 쁘레타(preta)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쁘레타'는 나보다 먼저 살다간 사람, 죽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조상이지요. 고대인도에서는 세상을 떠난 조상은 자손이 제공하는 음식물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고 여겼고 이것이 불교에 들어와서 저승에 간 조상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불교어대사전, 중촌원 지음, 162쪽).

살아서 선업을 잘 지었다면 굳이 남(자손)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아도 맘껏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천상세계로 가거나 또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 제 힘으로 열심히 살아갈 것이요, 살아서 악업만을 지었다면 지옥세계에 떨어져 배고픔을 느낄 사이도 없이 고통을 받거나 축생세계에 떨어져 천대를 받으며 제 힘으로 먹을 것을 찾아 종일 들판을 헤맬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생들은 선업과 악업을 적당히 섞어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제 힘으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 어쩌다 산 자의 공양을 받아도 욕심이 앞서 그만 죄다 잃고 맙니다. 배불리 먹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은 열망이야 남 못지않지만 욕심이 항상 그에 앞지르니 오직 고통 속에서만 신음하는 것이 아귀세계이며, 지금 살아 있는 우리의 다음 세상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 섬뜩합니다.

왜 하안거 마치는 날 천도할까

그렇다면 쇠털 같이 많은 날 중에 왜 하안거 마치는 날에 재를 올리는 걸까요? 기억할 것은, 조상에게 음식을 올리지 않고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없앤 청정한 승가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음력 7월15일은 하안거를 마치는 날입니다. 이날 스님들은 안거 기간 동안 자신의 몸과 마음에 티끌만큼이라도 그릇된 점이 없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거나 또는 도반의 지적을 달게 받고 참회하는 '자자'라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치열한 석 달의 용맹정진을 마치고 참회의 식까지 끝내었으니 7월 보름인 우란분절은 승가가 일 년 중에 지혜의 힘이 가장 깊고 강하며 윤리적으로 깨끗한 날입니다.

이렇게 상서로운 날, 깨끗한 믿음을 가진 재가자들이 승가에 '한 턱'을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한 턱'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소망을 담습니다. 바로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내 부모님과 조상님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현재의 부모는 백세가 되도록 병 없이 사시고, 모든 괴로움과 근심이 사라지며, 7세의 부모님은 아귀의 고통을 떠나서 천상이나 인간세상에 태어나 한없이 복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불설우란분경)

우란분절은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며 복을 비는 날이 아니라 계를 지키며 삼가는 날입니다. 승가의 높은 덕을 기리고 공양을 올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게 깊은 사랑을 베풀어준 부모님과 조상님이 진리의 세계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승가의 청정한 힘을 빌려 간절히 비는 보은의 날입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불교평론
BUDDHIST REVIEW

현대불교가 발행하는 대중학술 계간지 <불교평론>
2006년 여름호(통권 27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불교평론〉을 정기구독하시면 창간호부터 23호까지 6년간의
모든 내용을 고스란히 담은 '불교평론' 합본 CD를 드립니다.



특집
재가불교를 생각한다
재가자는 출가자에 비해 하열한가 ---------- 박경준
재가자의 해탈은 어디에 있는가 ---------- 허우성
수행과 삶은 둘이 아니다 ---------- 박영재
원불교 재가자로서의 삶과 수행의 조화 ---------- 최영돈
이상적인 재가불교를 위한 제언 ---------- 성태용
기획연재 ②
건축에 스며든 선의 정신 ---------- 김홍일

자료발굴
백제 성왕의 일본왕 겸임과 불교 포교 -------- 홍윤기
논 단
진각국사 무의자 선시의 미학 ---------- 학해 스님
불교출판의 현황과 과제 ---------- 홍사성
호탄불교, 접근을 위한 첫걸음 ---------- 한지연
섬 같은 불교, 피자 같은 불교 ---------- 이민용
강연중계
불교와 그리스도교, 그 소통을 말하다 ------- 서명원

자동이체 정기구독 방법
- <불교평론> 고객관리부 02)2004-8211~2로 전화 주시고 상담원에게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알려주시면 자동이체 정기구독자로 등록됩니다.
- 구독료는 매년 2월, 5월, 8월, 11월 말일에 1만원씩 이체됩니다.

계좌 입금 정기구독 방법
- 1년을 구독단위로 선납 4만원을 계좌 입금하시는 방법
- 계좌 은행(입금후 전화 확인 하셔야 합니다)
국민은행 : 038-25-0008-365 (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 100126-55-002417(현대불교신문사)

■ 불교평론 구독 신청 접수 : 전화 02)2004-8211~2 / 팩스 02)737-0697

우리 다악(茶樂) 세계로 세계로…

한국창작음악연구회, 캐나다 아트마켓에 초청 받아



'다악' 연주는 '다도' 시연과 한 무대에서 열린다. 사진은 한국창작음악연구회의 '다악' 연주회.





국내 국악창작음반으로 드물게 인기있는 '다악' 앨범(위)과 '다악' 연주자들.

차를 마실 때 빼 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찻자리의 흥취를 돋우는 다악(茶樂)이다. 차를 마시며 들을 만한 조용하고 선(禪)적인 음악인 우리 다악이 세계 시장에 첫 선을 보이게 된다.

'차와 우리 음악의 다리 놓기'를 표방하며 오늘날의 정서에 맞는 다악을 창작 · 발표해 온 한국창작음악연구회(회장 김정수 · 추계예대 교육대학원장)가 오는 11월 14~18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트마켓 시나르(Cinars: Commerce international de s arts de la scene)에 공식 초청 받았다.

우리나라 작품이 시나르에 공식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 우리 다악을 세계에 알리는 한편 '상품'으로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시나르는 공연예술의 홍보 마케팅과 세계시장 보급을 목적으로 창설된 비영리 기구로 2년에 한 번 국제 아트마켓을 연다.

1998년 우리 고유의 음악언어에 뿌리를 둔 창작음악을 연구하기 위해 창단된 한국창작음악연구회는 다양한 창작 다악을 발표하고 이를 악보집과 앨범 등으로 선보임으로써 우리 다악 알리기에 앞장 서 왔다. 1998년 1 · 2집 '다악'을 시작으로 99년 3집 '그 푸른 날들의 찻잔-초의(草衣)' 2000년 '찻잔에 스미는 사계' 2001년 '차 마시기 좋은 때의 풍정(風情)' 2002년 '차로 이어지는 겨레의 숨결' 2003년 '박일훈의 동다송(東茶訟)' 등 지금까지 8장의 앨범을 발표했다. 이 중 '다악' 1 · 2집은 국내 국악 창작 음반으로는 드물게 1만여 장 이상 판매돼 다악 대중화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을 받았다.

초일향 · 동다송 등 공연 해외 진출 가능성 기대 차 정신까지 알릴 기회

매년 '다악 페스티벌'을 개최해 창작 다악을 일반인들에게 선보이기도 했다.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쳐온 한국창작음악연구회는 지난 5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육성지원 사업'에 선정돼 3년간 연간 5천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번 아트마켓에 'Korean Tea Music'으로 소개되는 다악 작품은 그간 음반으로 발표했던 '초일향(草日香)'과 '동다송(東茶頌)' 등이다. '초일향'은 차인회 '초일향' 회원들을 만난 느낌을 대금과 단소, 거문고와 양금으로 표현한 곡으로 서화(書畵) 시연이 곁들여진다. '동다송'은 가야금과 대금 연주로 차의 본성과 차 생활의 정성 · 중용 · 절제를 표현한 곡으로 한국화가 임현락(경북대 교수)의 설치미술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이 밖에 석문호흡 수련의 깊은 경지에서 보여주는 풍류인 현무(玄舞)를 곁들인 '달빛에 시냇물이 휘영청' 등 '다악' 앨범에 실린 대표작들도 공연된다.

김정수 회장은 "다악은 각박한 현대인들의 삶 속에 여백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음악"이라며 "이번 다악 공연을 통해 새로운 해외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악 창작에 매진해 온 작곡가 박일훈씨(국악연구실장)는 "다악은 차에 내재된 정신을 담아내는 음악을 추구한다"며 "다악을 통해 우리나라의 차 정신 나아가 민족 정신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창작음악연구회는 내년 3월 뉴질랜드 오클랜드 축제에서도 우리 다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02)2272-2152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강진군, 전통 떡차 재현 보급

전남 강진군이 전통 떡차 재현과 보급에 나서 눈길을 끈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석)가 지난 7월 5일부터 8월 3일까지 10회에 걸쳐 남도내림솜씨회원 20명을 대상으로 전통 떡차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떡차는 찻잎을 증기로 찌거나 가마솥에 덖은 뒤 절구에 찧어 떡 모양으로 빚었다 해서 단차(團茶), 병차(餠茶) 등으로 불리는 차다.

강진군은 "떡차는 삼국시대부터 제조 방법이 전해 내려와 강진 무위사와 백련사, 다산초당 등지에서 많이 만들어졌으나 일본 강점기를 거치며 그 명맥이 끊겨 오늘날 거의 사라지고 있다"며 "떡차 재현과 보급을 통해 잊혀져가는 우리 떡차 문화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떡차 제다체험 및 시음회 등의 행사를 통해 떡차 알리기에 나설 계획이다.

도예가 김선식씨 초대展 대구 예송갤러리 19일까지



도예가 김선식(관음요 대표)씨가 대구 예송갤러리에서 '신지식인상 수상기념 사은전'을 8월 9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한다.

김씨는 장작가마의 문제점인 나무 소비와 도자기 굽는 시간을 20%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건조 기술 개발로 지난해 문화예술부문 '대한민국 신지식인상'을 수상했다. 8대를 이어온 도예 가문의 후손인 김씨는 경명주사를 이용한 새로운 진사유약을 개발해 지난 4월 '도자기진사유약조성물' 특허를 받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관음댓잎다기'를 비롯해 다기와 다완, 헌다기, 촛대 등 300여 점이 선보일 예정이다.

瑞榮普洱
보이차 전문점
진년보이 · 진년오룡 · 철관음 · 오룡차
대홍포 · 화차 · 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4. 신비의 음료

영국의 커피하우스

유럽에 커피가 유입되기 전 포도주와 맥주 등 알코올 음료는 유럽인의 음식인 동시에 음료였다. 커피가 유입될 당시 영국은 술이 일상음료가 되어있었다.

특히 1650년대 영국은 내란(청교도 혁명)으로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으며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술을 폭음(暴飮)하였다. 선술집이 있는 거리는 취객들의 소란으로 무질서와 폭력이 난무하여 알코올이 심각한 사회적인 병폐가 되었다.

커피는 이러한 사회적인 폐단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의사들에 의하여 알코올 중독을 치유하는 약품의 일종으로 지지를 받는다. 우울한 사람에게 활기를, 다혈질의 사람은 온화한 성품을 주는 만병통치약으로 선전되기도 한다.

영국은 혼돈의 음료인 알코올에서 정신을 각성(覺醒) 할 수 있는 이성적 음료인 커피로 전환하면서 전반적인 생활의 변화가 왔다.

이 사회적 변화는 '파스카 로제'라는 커피하우스를 시작으로 반세기 동안(17세기 후~18세기 초) 커피하우스가 3000여개나 양산되었다. 이러한 커피하우스는 문학과 정치, 경제 등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토론의 장소요, 사교의 장소로 혼자서 사색과 독서를 좋아하는 영국인의 습관을 바꾸었다. 영국의 커피하우스는 몇 가지 독특한 규정이 있다. 대화를 할 때 흥분해서는 안 되며, 건배하는 행위를 금한다.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모두에게 커피 한 잔을 사야하는 벌칙도 두었다. 슬픔에 잠긴 연인들은 커피하우스 안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등 분위기에 많은 신경을 썼다.

한편, 정치인과 상업인, 지식인, 해상인 등 그들이 선호하는 커피 하우스마다 색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정치인들은 정치 세력을 확장하기위한 당원들의 접대와 집회장소로 이용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윌리엄 존스 법무장관에 의해 커피 하우스를 폐쇄하는 조치가 내려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인들의 반발로 커피하우스 안에서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뒤 다시 문을 열기도 하였다.

상업적 장소로 이용되면서 선박과 화물경매를 위해 선장, 선주, 상인들의 모임장소가 되며, 보험회사 대리인들의 아지트가 되었다. 최초의 근대적 신문 <스펙테이터(spectator)>가 발간되기도 하였으며 문인들에 의한 잡지가 만들어지는 등 정기 간행물의 편집소 역할을 한 곳도 바로 이 커피하우스였다.

결과적으로 커피하우스는 지식인들의 대화 장소와 사교장, 정치가의 사무실, 상인들의 상업적인 거래소

'파스카 로제'를 시작으로 3000여곳 양산 지식인들 사교장 등 근대 사회 형성 모태



영국의 커피하우스는 지식인들의 사교장 등으로 사용됐다.

일 뿐만이 아니라 근대사회의 중요한 모태가 되었다. 이 커피 하우스가 극장과 살롱과 비교되어 자유로운 공동의 오락 장소인 문화와 상업적 공간으로 발전되어 시민들의 생활중심의 문화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 것은 18세기 이후부터이다.

이 당시 사람들은 커피하우스에서 커피나 차를 마시는 형식에는 관심을 없었다. 커피는 처음에는 공적인 장소에서 마실 수 있는 음료였다. 차와 코코아도 판매를 하였으나 여자들의 출입이 제한되어 차의 소비가 많지 않았다.

가정의 일상음료가 되면서 친숙한 부인들의 커피 모임이 만들어지고 매주 또는 매번 만나 커피를 마시는 놀이 문화가 형성된다.

19세기에 이르러 차와 커피를 마시는 장소가 커피하우스에서 조간신문과 모닝커피가 있는 집으로 장소가 바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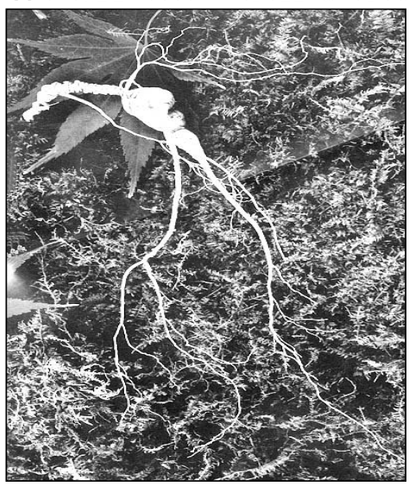
커피는 한 때 알코올에 지쳐있는 영국인을 각성시키는 새로운 음료로 합리적 사고력을 만드는데 기여하였으나 차(茶)처럼 영국인의 일용품이 되지 못하였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삼사순례 및 소원성취
기도도량 동해사
매년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밤, 낮없이
사리탑위에 법비가 내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해있어 중생들의 어떤 소원도 이루어 지는 곳
기도영험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기도의 참 맛을 느껴 보세요

법비오는곳 사리보탑
※ 대형주차장, 방생기도 5분 소요
낙산사 10분소요
후휴암 15분소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법비오는 곳 동 해 사
033)672-2900



元 · 氣 · 回 · 復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 마 당 長腦山蔘

자르고 붙이고 우유팩이 목어 됐네!

방학이라고 텔레비전과 컴퓨터에만 빠져 있는 우리 아이. 모처럼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싶지만,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이럴 땐 잠시 짬을 내 '사물(四物) 만들기'에 도전해 보면 어떨까? 〈어린이에게 부처님 말씀 어떻게 전할까〉(조계종 포교원 펴냄)에서 소개하는 '범종각 사물 만들기'는 종이컵과 우유팩 등의 재활용품으로 목어 운판 법고 범종을 만들어 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아이와 대화도 나눌 수 있는 놀이다. 만들기를 하며 사물에 담긴 의미와 사찰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설명해준다면 자녀가 불교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도 될 것이다.

자녀와 함께 재활용품으로 四物 만들기

▷목어(木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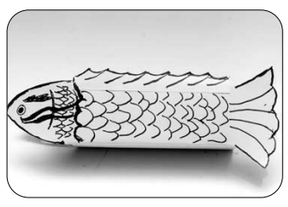


● **준비물** : 빈 우유팩(1ℓ) 1개, 색종이, 색도화지, 가위, 풀

나무를 깎아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고 속을 비게 해 두드리면 소리가 나는 법구다. 대개 아침저녁 예불 때 사용하며 물 속 생물을 제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또한 물고기가 항상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수행자도 졸지 말고 항상 정진하라는 뜻에서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① 우유팩의 입구를 벌어지지 않도록 붙인다.
② 상자를 색도화지로 예쁘게 포장한다.
③ 색종이로 물고기의 머리와 꼬리를 만들어 양쪽으로 붙인다.
④ 색종이로 지느러미와 비늘을 만들어 붙인다.





▷운판(雲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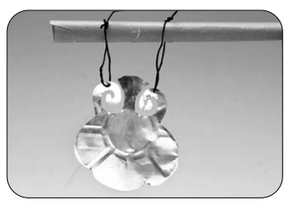


● **준비물** : 은박지 접시, 가위, 송곳,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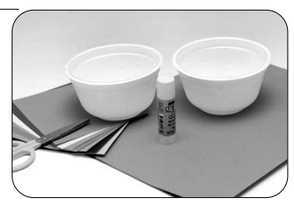
운판은 청동 등의 판에 구름 모양을 새긴 조형물로 새 등과 같이 날아다니는 짐승을 교화 · 제도한다는 의미가 있다. 예불을 드릴 때 사용하며 공양간 앞에 매달고 대중에게 공양 시간을 알릴 때 사용하기도 한다.

① 은박지 접시 위에 운판 모양을 그린다.
② 가위로 운판 모양을 오려낸다.
③ 운판 윗부분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실로 묶는다.





▷법고(法鼓)



● **준비물** : 컵라면 통 2개, 색도화지, 색종이, 가위, 본드, 풀

나무로 몸통을 만들고 소의 가죽을 대어 만드는 법고는 그 소리로써 모든 축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기쁨을 만끽하도록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주로 법당의 동북쪽에 달아 놓고 아침저녁 예불 때와 법요식을 거행할 때 법고를 친다.

① 컵라면 용기 입구를 색도화지로 막는다.
② 본드로 컵라면 통 2개를 바닥끼리 마주 붙인다.
③ 맞붙인 컵라면 통을 색도화지로 둘러싼다.
④ 색종이로 다양한 장식을 오려 붙인다.





▷범종(梵鍾)



● **준비물** : 종이컵, 색종이, 가위, 실, 송곳

〈석문의범〉에 따르면 종은 지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중생을 그 소리를 듣고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도록 일깨운다고 한다. 또한, 단체생활을 하는 절에서는 기상 · 식사 · 의식 · 취침 등을 알려주는 신호로 쓰이기도 한다.

① 종이컵을 색종이로 싼다.
② 색종이로 다양한 문양을 만들어 붙인다.
③ 종이컵 바닥 부분에 구멍을 뚫어 실로 묶은 후 매단다.





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28〉

바나나소스 찹쌀떡과 바나나 맛탕





아마 지금 나이가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보살님들께서는 '으름'이란 우리나라 고유의 과일을 본 적이 있고, 또 직접 먹어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가끔 우리의 고유 과일인 으름의 맛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다래나 머루 등 우리나라 고유의 천연 과일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나라의 바나나'라 불리는 '으름'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으름을 맛보았을 때를 생각하면 입안에 시커먼 씨만 가득 남았다는 기억뿐입니다. 하지만 으름이 익어서 껍질이 딱 벌어질 때의 모습은 바나나를 연상케 합니다. 바나나 껍질을 벗겨 내리듯 부드럽게 벗겨지는 그 풍성한 씨알! 정말 부드러운 맛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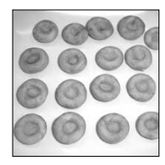
옛날엔 절에서 이렇게 맛있는 으름을 간식으로 많이 먹었습니다. 산에서 손만 내밀면 쉽게 딸 수 있는 산 속의 바나나였기 때문이죠. 그때 으름을 짓이겨서 미음같이 마신 적이 있었는데, 최근 전 그 맛을 재현하기 위해 새로운 요리 한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의 작은 공양간에는 강원도에서 공수해 온 다래를 효소로 만들어 담아 놓은 것이 있고, 산딸기로 만든 딸기쨈, 오디로 만든 효소 등 사찰음식과 접목시킨 다양한 먹을거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통해 저의 먹을거리에 대한 추억을 남겨 주고 싶습니다.

지금도 산과 들에는 우리의 자연음식으로 사용할 천연의 먹을거리가 아주 많습니다. 눈만 돌려보면 얼마든지 건강한 먹을거리를 찾을 수가 있지요. 비록 예전만큼 건강한 먹을거리를 많이 구할 수는 없다고 해도, 길을 걷다가 혹은 시장에서 이런 음식들을 본다면 꼭 사서 부처님 전에도 올려보고 자녀들에게도 맛을 보게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만드는 법**

〈바나나 소스를 곁들인 찹쌀떡〉 ● **재료** : 찹쌀가루 반 컵, 야콘가루차 1작은술, 뜨거운 물 약간, 죽염약간 ● **소스** : 우유 5큰술, 설탕 1큰술, 바나나 2/1개, 마 5×5 1조각, 검은깨 2/1큰 술, 죽염 약간, 야콘가루차 1작은술



①찹쌀가루와 야콘가루차는 섞어서 채에 한번 내려준다. ③반죽을 조금씩 떼어서 작은 경단으로 만든다. (가운데를 눌러 이쁘게 한다) ④믹서에 소스 재료를 넣고 소스를 만든 후(이때 검은깨와 야콘가루차는 뺀다) 검은깨를 섞어준다. ⑤만들어진 경단을 뜨거운 물에 데쳐내고 찬물에 헹구어 물기를 뺀다. ⑥그릇에 담아 소스를 뿌린 후 야콘가루차를 고명으로 뿌려준다.

〈바나나 맛탕〉 ● **재료** : 바나나 2개, 전분가루 적당량, 계피가루 약간, 포도씨기름 적당량 ● **소스** : 조청 2/1컵, 설탕 2큰술, 식용유 1큰술



①바나나는 한 입 크기로 잘라 전분가루를 묻혀준다. ②소스를 만들어준다. ③전분가루를 묻혀서 180도의 기름에서 빠른 시간에 두 번 튀겨준다. ④튀겨낸 바나나를 소스에 버무린다. ⑤접시에 담은 후 계피가루를 뿌려준다.

※바나나 맛탕은 냉장고에 차게 식혔다가 먹는 것이 훨씬 부드러운 맛과 달콤한 맛을 맛볼 수 있다.

▶다음 주에는 연자육 차와 연자육 경단을 만들어 봅니다.

■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011-264-3439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일곱 번째 완성자
우리 곁에 오신 미륵
해조음 刊 원통 저
신국판 390쪽
참제의 신간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있는가?
- 내가 깨닫는 공(空)은 대공(大空)이 아님이요, 공(空)이 오셔야 진공(眞空)이 된다.
- 이는 후오백세(말법시대)에 이루어질 불가사의한 대 성취이다 〈금강경〉

※ 진정으로 현생에 대성취를 원하시는 분만 읽어 보십시요!!
※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불서보급 총판 운주사 02)3672-7181~5

◆ 생활속의 수행 ◆
부산법기불교대학 제9기 모집
불교 수행단계와 수행방법을 실습과 점검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법기불교대학이 다음과 같이 개강합니다.

· 개강 : 〈야간반〉 2006년 8월 24일(목요일)(저녁 07:00-09:00)
〈주간반〉 2006년 8월 25일(금요일)(오전 10:00-12:00)
· 접수 및 문의 : 부산법기선원(051-516-9104) www.bubkisa.or.kr
· 수강료 : 총 80,000원(교재비 포함)

차례	강 의 일 정	비 고
1강	불교란 무엇인가? 예불의식, 불자예절	108배
2강	중생의 마음 – 무기심과 번뇌심	자기소개
3강	수행방법 – 관법 (결인관, 호흡관, 설관)과 염법	실수행 (좌선과 행선)
4강	불교교리 – 4성제 8정도, 3법인, 5온, 연기법	수행문답
5강	산행–요처수행	사찰의 장엄
6강	초발심자경문	호흡점검
7강	철야정진, 상기의 극복(멜로디)	선배의 수행경험담, 지식호흡과 반지식호흡
8강	삼매와 삼매관성, 수행과 업장소멸	도반의 수행담
9강	수행자의 자세와 건강관리	호흡점검
10강	수행단계와 수행방법	실수행 (좌선과 행선)
11강	유여열반과 무여열반, 무념과 반야, 삼신불	이근관, 안근관
12강	봉사활동	
13강	보현행원품–끝없는 대승보살의 서원	멜로디연습
14강	남방불교와 북방불교의 비교분석–소승, 대승, 최상승	설문조사, 발원
15강	수료식, 선지식 법문	

* 주,야간 중복수강도 가능합니다. * 서울법기불교대학 일정은 서울선원(02-854-1848)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선원 찾아오시는길 : 지하철 남산동역 7번출구 → 육교지나 → 20m직진 → 왼쪽 청룡빌딩 4층

바른수행 바른깨침 법 기 선 원

불교로 본 모차르트는?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미술 · 영화 · 요가 등을 접목한 테마연주를 기획했다. 사진은 6월 10일 한국불교미술박물관에서 열린 첫 번째 테마 연주 '이호신 화백과 함께 하는 니르바나 후원회의 밤' 연주 모습. 사진제공= 니르바나 필하모닉



니르바나 테마 연주 '월호 스님의 모차르트 이야기'

25일 서울 다보빌딩 다보원서

1756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마적' 등 명작 오페라 등을 남기고 36세로 세상을 떠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평생을 음악에 미쳐 지냈던 천재 작곡가가 불교와 만난다.

니르바나 테마 연주 그 두 번째 '월호 스님의 모차르트 이야기'가 8월 25일 저녁 7시 30분 서울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개최된다.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가 마련한 이번 음악회는 올해가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다. 모차르트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음악들을 들으며 <영화로 떠나는 불교여행>의 저자 월호 스님과 대화의 시간도 갖는다.

모차르트의 음악일생을 다룬 '아마데우스'를 감상하며 월호 스님이 찾아내는 영화 속 불교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보는 것도 아름다운 한여름밤의 추억이 될 듯.

영화 '아마데우스' 감상하며 불교이야기 찾는 재미 '솔솔'
'반야심경' 시조창으로 연주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모차르트가 작곡에 몰두하는 장면.

영화도 보고 연주도 듣고, 월호 스님과 함께 영화와 불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클래식 연주회는 신선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피가로의 결혼' 연주로 문을 여는 음악회는 모차르트 음악을 한 곡 연주하고, 월호 스님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유기준씨의 대금 연주로 들려주는 '광명진언',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이수자 문현씨가 선사하는 시조창 '반야심경' 등 불교음악이 연주된다.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심포니아 콘체르단테는 알렉산더 페트로브일체브 부부가 연주를 맡아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올해 내소사의 봄 미황사의 여름 등 템플스테이와 클래식, 시조를 접목한 연주회를 펼쳤다. 앞으로 경주 남산, 폐사지 등에서 소규모 음악회를 열어갈 계획이다. (02)718-4599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서유기 인형극 수원화성연극제서



충젠피 감독이 인형극에 대해 강의한다.

한바탕 '사자춤' '용춤' '화살던지기' '모자던지기' 등 곡예쇼에 빠져보자. 단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 추는 춤이다.

8월 18~27일 수원일대에서 벌어지는 2006 수원화성연극제 가운데 '어린이연극제 상.상.놀.이.'에서 만날 수 있다.

인형극 '백마가 된 용'은 대만 최고의 인형극단인 신싱쿠(新興閣掌中劇團)가 '서유기'의 한 장면을 인형극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삼장법사가 제자와 함께 '수트라'를 얻기 위해 인도로 긴 여행을 떠나던 중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흰 용을 만나 겪는 일들이 인형들의 공연으로 꾸며졌다.

8월 22~24일 오후 2시 수원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세미나실에서 공연되는 '백마가 된 용'은 전세계에서 1000번 이상 공연돼 수많은 관객들을 매료시킨 작품이다. 인형극이 끝나면 75세의 인형극 감독 충젠피가 직접 인형극의 원리와 인형에 대한 소개 등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어린이연극제 상.상.놀.이.'는 인형극 외에도 비눗방울 마술과 연극놀이를 통한 자기표현개발 워크숍 등이 마련되어 있다. (031)238?6496

강지연 기자

LMB 싱어즈 중창단 단원 모집

LMB 싱어즈 중창단이 불교 중창의 대중화와 중창음악의 예술성을 승화시킬 참신하고 역량있는 신입단원을 모집한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등의 분야에서 음악대학 성악과 3학년 이상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만20세이상 만35세미만의 인재를 찾는다.

오디션은 8월 22일 저녁 7시 LMB 음악당에서 열린다. 찬불가 1곡과 오페라 아리아 1곡을 불러야 하며 반주자를 대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력서와 입단원서는 홈페이지(www.lmbsingers.com)에서 다운받으면 된다.(02)873-3676

예술단 '풍류' 英 페스티벌 초청

한국 전통 예술단 '풍류'(단장 이형환 중앙대 교수)가 8월 6~28일 열리는 제60회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Edinburgh Fringe Festival)에 공식 초청됐다.

'풍류'는 이 축제에서 7~8일 양일간 인간 · 생태 · 생명을 위한 소리와 움직임'을 주제로 궁중음악, 불교무용, 시나위 합주, 판소리, 승무, 창작 무용 등을 선보였다.

불자 힙합 가수

타이거JK, 패션계 '명함'

드렁큰 타이거의 타이거JK(본명 서정권)가 스트리트패션브랜드 룽타(Lungta)를 설립하며 패션 디자인 사업에 뛰어들었다. 7월 19일 쇼핑몰 룽타(lungta.co.kr)를 오픈해 휴가철을 겨냥한 티셔츠 15종류를 선보였다.

힙합 뮤지션으로 독특한 음악을 선보여온 불자 가수 타이거JK는 '부처님' '관세음보살' 등의 용어가 삽입된 노래를 발표하며 "노래가 곧 포교"라는 생각으로 작업해왔다.

이번에 만든 브랜드 '룽타'는 티베트의 풍습에서 따온 단어. 룽타는 티베트에서 달리는 말의 모습과 기도문을 써넣은 오색의 타르쵸들을 이어 달아서 높은 산 위에 매달아 행운을 비는 것을 뜻한다.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의 말(Lungta)이 달려가서 세상에 무병장수와 부귀 건강을 가져오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타이거JK는 룽타의 이미지를 바람의 깃발을 상징하는 것으로 힙합과 스트리트의 자유로운 정신 및 행운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한다.

룽타에서는 타이거JK가 직접 디자인한 의상들도 만날 수 있다. 친필 영문 가사는 티셔츠의 디자인이 됐다. 현재 룽타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류는 티셔츠와 모자. 앞으로 바지 등도 출시할 예정이다.

현역 남자가수가 디자인 사업에 직접 뛰어든 것은 이현우 이후 두 번째다.

타이거JK는 2004년 '음악을 공양하는 사람들'이 만든 '보현십원가' 앨범에도 동참해 작업하는등 불교음악 작업도 해왔다.

한편 타이거JK는 최근 신생 기획사인 정글엔터테인먼트와 프로듀서 및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강지연 기자

사진제공=노컷뉴스

'룽타' 런칭, 티베트와 스트리트 문화 접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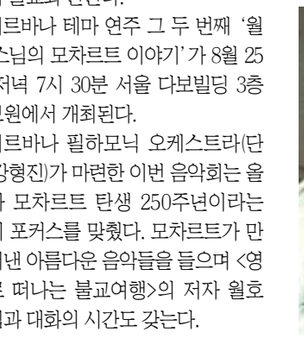


드렁큰 타이거의 '타이거JK'가 열창하고 있다.

교보문고 비소설부분 베스트셀러 선정

중국차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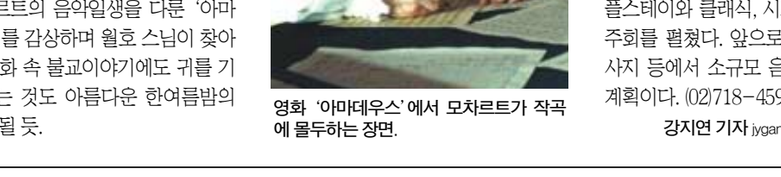
차문화가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우리 국내는 상당부분 중국차가 보급되어져 있다. 또한 우리가 중국을 여행 하면서 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선물을 받아 집에는 한두 종류의 중국차는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선물을 받았으나 이 차가 무슨 차인지 어떻게 우려 마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내용들은 필자가 현장을 직접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내용을 정리 하여 중국차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사호 제작과정, 차를 판매하는 시장 등을 소개하여 쉽게 중국차를 이해 할수 있는 책이다.



중국차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알고 싶으세요?
자사호(紫沙壺)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중국차 우리기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중국차의 이해를 보시면 이 모두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차의 현장을 현재 진행형으로 생생하게 기록한 중국차 지침서



• 컬러(183×235), 288페이지 • 저자 : 김경우 • 가격 : 24,000원

| 구입문의 : 월간 다도 Tel : 02)722-7777 |



동신대학교 차(茶)학과 안내

1. 학과소개
최근 '웰빙'이라는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갈망, 건강지향, 문화지향, 편의성추구의 소비자 트렌드에서 볼 수 있듯이 차 문화와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고 유망한 산업분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 유기농 농법에 의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품종 개량, 선진 가공기술, 글로벌 마케팅과 체계적 유통에 의한 명품 브랜드의 개발, 차 효능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여 2007학년도부터 차(茶)학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산학협력에 의한 실무 중심 교육과정과 중국 절강대학과의 학점교류에 의한 복수학위제(추진중), 국제 학술 세미나, 국제 차 문화 체험 행사를 통한 국제적 마인드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2. 교육목적
본 학과는 차(茶)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론과 실험실습을 통하여, 차의 품종을 개발하고 차 산업화를 선도하며 차(茶) 문화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을 지향한다.

3. 교육목표
- 차(茶)의 재배 및 차 문화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
- 차(茶)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체계 확립
- 육종개발을 통한 명차 생산 및 차(茶) 품종의 자원화
- 국제경쟁력을 갖춘 차(茶)전문 인재 및 지도자 육성
- 차(茶)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체계 확립
- 제다기술 개발 및 명차(茶) 생산과 품질관리사 배양

4. 교과과정
◈ 1,2학년 -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및 정보전산 교육, 차의 역사, 다도, 철학, 전통예절, 행다법 등 기본 교양교육
- 차문화 고전연구, 차 재배 및 제다 등에 관한 기초이론 교육
◈ 3,4학년 - 육종 및 생산, 유통, 마케팅, 차 문화기획 등 차에 관련한 전공교육
- 품질평가학, 제다학, 품종개량학, 다예학, 차나무재배학, 차문화사
- 중국 절강대학교 다학계(茶學系)의 교류 협력(추진중)

5. 교육환경
◈ 교내 : 삼매원(전통예절교육관), 산업용가속기이용생물연구센터(RRC),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BT)의 품종 개량실, 종자 은행, 의과대학, 한약재산업학과
◈ 교외(협력시설) : 영농조합지리산명차원, 초의선원, 초의선사기념관(무안군 삼향면 소재), 보성군차영농조합

6. 자격증 ◈ 다도사범증 기사 1, 2급(추진중), 제다사, 품종개량사, 품질평가사, 다예사

7. 졸업후 진로
◈ 기업체 및 학교 다도예절 전문강사 (유통업계, 백화점, 호텔 등의 매니저)
◈ 차 문화 행사 연출 기획가, 차 요리 전문가, 차 미용 전문가 ◈ 대학원 진학
◈ 국내외 관련기관 및 식품가공 연구소, 식약청 등의 공무원 취업
◈ 국제 차 전문가, tea 마케터, tea 매니저, 차 브랜드개발 , 차 비즈니스리더, 차 무역업
◈ Tea shop 운영, tea consulting, tea house ◈ 차 산업 전반에 대한 창업

◆ 입학안내 : 동신대학교 입학관리처 (☎ 061-330-3333) www.dsu.ac.kr



위 아래를 한 주먹에 쥐고 들이고 낼 수 있어야





그림 · 최주현

이고 하니,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다는 걸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이 생겨난 것만큼 먹고 살 수 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먹고 살 수 있고 많으면 많은 대로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분지복은 자기가 가지고 나온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듯이 우리는 그 씨를 무조건 의심을 하고 나가기 이전에, 의정을 만들어준다 이러기 이전에 무조건 자기 수박 속에 씨가 있다는 거를 미리 믿고 들어가야 한다 이거죠. 거기에 의정을 낼 때는 스스로 의정이 나는 거하고 만들어서 의정을 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를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 수박의 모든 것,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더라도 그 수박에 의해서 나고 드는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 내고 들이고 하는 거니까 하면서 거기에다 놓고 가는 게 첫째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침착하게 무심(無心)으로써 수박 씨를 싹 틔우는 겁니다. 그래서 무심도(無心道)로서 그 수박이 싹이 나가지고 길러져서 거기서 수박이 열려가지고 그 수박이 무르익어서, 여러분한테 그저 내주어도 줄지 않고, 또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 그러한 능력이 자라나게 되죠. 아마도 거기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청정(淸淨) 자재천궁(自在天宮)'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도리를 지금 이렇게 알고 또 거기다 놓고 갈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점수(漸修)나 돈오(頓悟)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또 내 씨가 진짜 있다고 믿고 거기 놓고 돌아갈 때, 스스로서 둘이 아닌 도리가 나오고 거기서 유(有)와 무(無)의 세계가, 이 세상이 우주가 그냥 벌어지기 때문에 그때서야 의정이, 대의정이 나는 겁니다. 그때 의정이 적든 크든 다 나는 거지, 내가 우정 의정을 내서 의심하는 것은 그거는 빈 맷돌에 물건 넣지 않고 그냥 돌리는 거와 마찬가집니다. 그러니 그 차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참으로 이 도리를 알아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우주 법계에 두루 할 때에 저런 화성에도 그렇고 딴 혹성에도 다 생명은 있지만, 생명이 남의 눈에 보이게끔 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자재 요건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또 그뿐이 아니죠. 지금 이 세계가 서로 왈가왈부하고 싸움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조절하고 조절치 않고, 떼어놨다 붙였다 붙였다 떼어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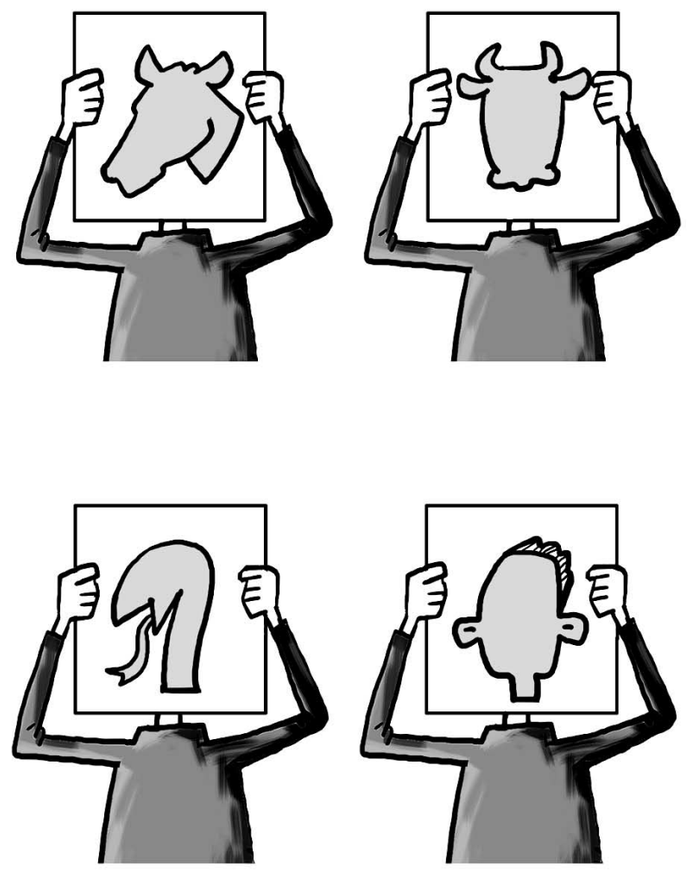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백지를 볼 줄 알아야 붓대를 굴릴 수 있고 붓대를 굴릴 수 있어야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

항상 여러분과 같이 공생(共生) · 공용(共用) · 공체(共體) · 공식화(共食化) 하고 있고 한자리를 하고 있지만 그 한자리를 하고 있는 까닭에,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나는 나로서 서로 헤어졌다가 만나고 만나고 헤어지고, 오늘도 한 장소에서 또 이렇게 만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분잡하게 다니고 있는지 잘 아십니까? 지금은 세계적으로나 만방에 다 도제양성(道弟養成)이 시급한 시대라고 봅니다. 타력신앙으로써 기복으로만 맹종하고 항상 그렇게 나아가기만 하는 사람이라면 광대무변한 인간의 도리 또는 법신(法身)의 도리, 부처될 도리로서 해나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더할 수 없는 고등동물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해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만이 이 세계를 볼 수 있고, 세계를 조절할 수 있고, 또 세계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화를 이루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체제에서도 살아나갈 수 있게끔 리드해가면서 세계를 조절해 나간다면 지금 공산주의니 중도니 왈가왈부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평화롭게 정상적인 체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와서 여러 가지로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공업도 발전하고 또 의학도 발전했지만, 여러 가지 문화 문명을 다 꽃피웠다고 볼 수 있겠지마는, 또 그런 반면에 뭐든 오염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이나 여러 생물이 오염으로 인해 그냥 스러져가야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친다면 인간다운 도리를 못하는 우리를 어디 인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비록 한 철을 지내다가 가지만 그 시기에 얼마만큼 인간답게 살아나가는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점이지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듯이, 이거는 아주 고고한 말이 아니라 무식하지만 순박한 얘기로서 한마디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여건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작년 씨를 심어서 올해 추수를 해 들이듯이 여러분이 다 수박이라면 작년 씨로써 수박이 된 거지 작년 씨가 없이 어떻게 수박이 됐겠습니까? 여러분은 작년 씨로 인해서 수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한테나 물어보십시오. 작년 씨를 바깥에서 찾을 수 있겠나? 바로 씨와 살과 껍질이 다 한데 합쳤습니다. 혼합이 돼서 수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씨가 있지 딴 데 씨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든, 저런 식물이나 또는 흙이나 바람이나 불이나 또는 공기의 생명도 다 이 씨로 인해서 나온 것이죠. 근본 원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가 원소를 발견하자 할 때는, 수박은 자기 안에 들은 씨로 인해서 생겨났고 그 수박을 일체 중생에게 다 먹이고도 그 씨가 되남아서 그 씨를 또 심고 또 먹이고 또 심고 또 먹은 그것을 리드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죠.

언젠가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이 세계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다고 말입니다. 이 세계는 여러분의 주먹 가운데에 딱 들어 있다 이겁니다. 옛날에 어느 사람이 "불법은 어느 것이 불법입니까?" 하니까 하늘 한 번 가리키고, 땅을 한 번 가리키고, 주먹을 한 번 쥐어서 보이고, 땅을 쾅 쳤단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한데 합쳐서 유의 세계, 무의 세계, 천지를, 삼라대천세계를 한데 합쳐서, 딱! (주먹으로 법상을 치시며) 한 군데 찍은 겁니다. 여기밖에는 없다 하고요. 여기에서 바로 들이고 내고 작용을 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 작용이 중용이며, 중용이 바로 이 세계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불국토를 만들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야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남의 흉내를 내서가 아니라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한번 할까요. 여러분도 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대로 편집을 해서 책 낸 걸 그냥 보고 한다면은 그건 의의가 없습니다. 당나라 때에, 거기 유학을 갔던 자장 율사(慈藏律師)가 당나라에서 길을 가다가 좀 쉬고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나서 턱 땅에 앉아서 주섬주섬 책을 꺼내서 보고 있는데 어느 스님이 길을 지나다가 하는 소리가 "별놈의 중 다 보겠네. 백지를 볼 줄 알아야 붓대를 굴릴 수 있고, 붓대를 굴릴 수 있어야 중생을 제도하지 않나." 하면서 "입으로만 조다가 몸 떨어지면 말도 떨어질 것을 말이야. 참 별놈의 중 다 보겠네."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 거기서 쇼크를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야, 이놈의 것!" 하고 그냥 책을 탁 접어서 넣고는 말입니다,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이러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별놈은 자기지 그 스님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별놈은 여기 있군." 그리고선 그냥 탁 놓고는, 그 종남산이라는 기슭에 문수사리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속상한 나머지 속을 가라앉히고서 그 문수보살상 앞에 가서, 천일을 작정하고선 관(觀)했더랍니다.

얼마를 지나서, 뭐 천일을 생각했지만 천일이라는 생각도 없이 관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나더랍니다. '야! 문수가 나고 내가 문수지, 문수가 따로 있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는 순간 옆에서 어느 노승이 말입니다, 지팡이 짚고 왔던 걸로 탁! 탁! 치더랍니다. 아, 그래서 보니까 "네가 나고 내가 너라면 나한테 내가 내 주장자를 전하노라." 하더랍니다. 자기가 자기 주장자를 자기한테 전하노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지팡이로다가 자기 머리를 탕 치더랍니다. 그러는데 그냥 소리가 요란하더랍니다. 그래 그 소리가 요란해서 쳐다보니까 아, 거기서 사리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사리를 받아들더니 하는 소리가 "이거는 석존의 그 사리요." 자기가 간직하고 있었던 사리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가사(袈裟) 한 벌은 부처님께서 입으시던 것이다. 이 유물은 바로 부처님께서 간직하시고 계시던 거니 너희 나라에 가서 절을 짓고 탑을 세우고 잘 간직하라." 하고선 주더랍니다.

참 아주 기쁘고 춤도 추고 싶은데 얼떨결에 공손히 받아서 놓고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그냥 절을 털퍽 하다보니까 아, 절을 하고 일어나 이렇게 고개를 쳐들어서 보니까 온데간데가 없거든요. 그래도 절 하던 거니까 삼배를 마치고서 그걸 공손히 들고, 문수보살상을 몇 바퀴 돌다가 보니까, 지팡이로 머리 때렸던 자리가 그냥 흠집이 나서 펑 뚫렸거든요. 그 머리 상처난 부위를 보니까 똑 같더란 얘기죠. 그래 혼잣말로 '허허, 문수보살이 화(化)해서, 화신으로서 이걸 전달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이 아주 당당해지고 그렇게 떳떳해질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서 신라로 와서 참, 월정사나 통도사나 마곡사나 저런 절을 짓고서 거기다 사리를 모셨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소리를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사리를 모시고 도제양성을 하기 위해서 참, 자장 율사가 마곡사에서 설법을 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골짜기마다 꽉 찼단 말입니다. 그냥 모두 모여들어서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삼 '마(麻)'자를 쓰고 골짜기 '곡(谷)'자를 써서 마곡사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이름 지은 게

☞30면으로 계속

내 마음 발견해야 당당하고 떳떳해질 수 있어

☞29면에서 계속

문제가 아니죠. 그 후에 고려 문종 때에 부처님의 불법, 즉 불교를 탄압하기 시작을 하는 운동이 생겼답니다. 그래가지고 마곡사의 스님들을 다 끌어가고 또 절을 부수고 이러니까 거기는 도둑 소굴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 소굴에서는 참, 도둑들이 수십 명이 아니라 때로는 수백 명에 가깝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뽑아 내보내는 관리마다 해를 입었고 그리고 그 도둑들을 어떻게 다 잡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랬는데 그 후, 그러니까 고려 명종 2년에 보조 국사(普照國師)라는 분이 왕명을 받고, 그 도둑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인연이 됐답니다. 그래 거기 와서 좋도록 말을 하니 좋도록 말을 하는 걸 듣습니까? 보조 국사를 외려 해치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깐 보조 국사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 이젠 군졸들을 몰고 와서 할 수밖엔 없구나!' 하고서 보조 국사는 바로 왕벌이 됐죠. 왕벌 속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왕벌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군졸들을 수십만 명을 모아놓고 창을 비껴차라고 했습니다. 창 말입니다. 허허허. 그래서 창을 비껴차고 왕벌 속으로 들어갔으니, 보조 국사는 군졸들이 수만 명이다 할지라도 다 인솔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군졸들을 즉, 벌 군졸들을 전부 이끌고 그 도둑떼들한테 가서는 그 비껴찬 창으로다가 그저 사정없이 그냥 찔렀죠. 찔러서 도둑들을 항복을 받았답니다.

보조 국사는 항복을 받고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말 하는 데로 가거라." 하니까 "저는 불법이, 부처님 법이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그렇게 묘한 줄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저희들도 불자가 되겠습니다." 하고서 거기서 항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도적들을 다 착한 불자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왕벌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도로 다 군졸들을 갖다놓고는 그 왕벌 속에서 다시 나와서 보조 국사한테로 들어가도 두드러짐이 없었다 이겁니다. 보조 국사한테서 보조 국사가 나와서 그렇게 군졸들을 데리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일처리를 했어도, 거기서 꺼냈어도 준 사이가 없고, 도로 가 보조 국사한테로 들어갔어도 두드러진 사이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것을 나라에서 듣고서 200석의 쌀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조 국사는 그 200석을 받아가지고 부서진 절을 고치고, 제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무척 애쓰고 있던 중, 어느 스님이 와서 묻기를 이렇게 물었답니다. "앞서의 석존의 사리가 문수 두상에 들어 있는 까닭은 무엇이며, 나왔다는 그 까닭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가사(袈裟) 유물을 보관했다더니 보관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이냐?" 하고 물었으며, 세번째 "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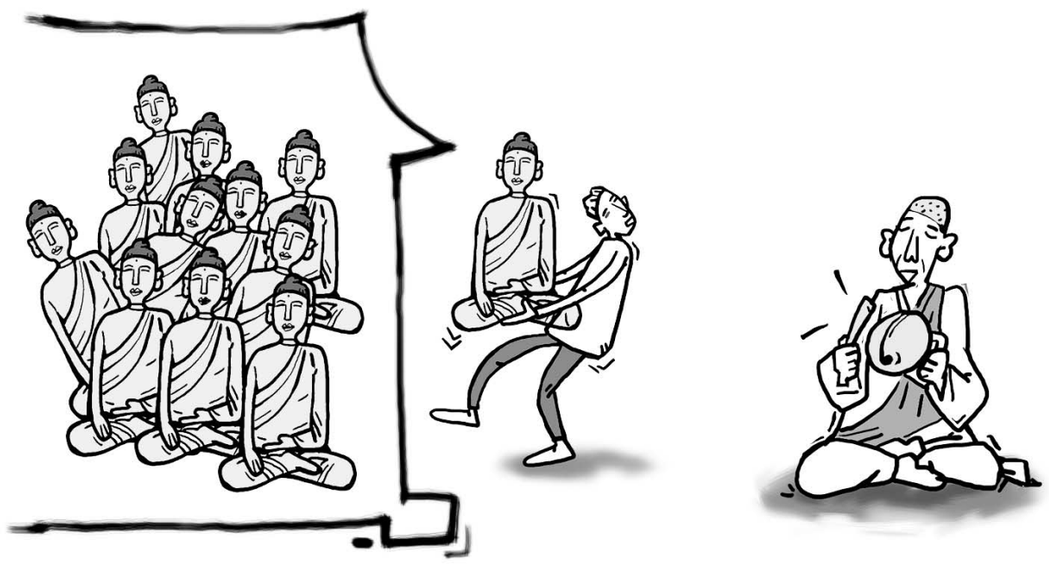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 禪도리라는 것은 생각을 요모조모 해서 대답을 하려면 이건 천리만리 떨어지는 겁니다!

보조 국사는 저 왕벌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보조 국사 안으로 들어갔다 하는 까닭은 무엇이냐?"고 물었답니다. 그때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여러분이 보조 국사라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는지, 그 세 가지를 말입니다. 왜 석존의 사리가 문수 두상에서 나왔으며, 왜 가사 유물을 그렇게 잘 보존하라고 그랬는데 보존한 사이가 없는 까닭은 무어며, 또 보조 국사가 왕벌 속에 들어갔다가 자기한테 다시 들어갔다는 거는 무슨 까닭이냐? 하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얼마나 그 걸로 인해서 수많은 선지식들이 또, 선(禪)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이렇게 부수고 온통 야단들을 쳤는지, 그때 시절에는 한창이었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대답을 어떻게 해야 옳을지, 만약에 보조 국사라면 말입니다. 우리가 시급한 것은, 도제양성에 시급한 것은 스님네들이 일차고, 이차는 여러분입니다. 스님네들이나 여러분이나 다 이 공부를 해서 누구든 위 아래를 한 주먹에 쥐고 베풀 수 있는, 들이고 낼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돼야만이 우리는 평화보다도 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 이겁니다.

보조 국사 안 계십니까? 허허허. 이 선도리(禪道理)라는 것은 생각을 요모조모 해서 대답을 하려면 이건 천리만리 떨어집니다. 요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고 맞춰서 하려고 그러면, 이건 맞춰서 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그대로 갖다 들이대면 맞아지는 것이 선도리입니다. 뭐 이거는 요것조것 찾아서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일상생활의 보이는 세계에서, 유의 법에서만 있는 거지 무심 속에서는 맞추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허공에 뼈다귀를 세워놓으면 세워놓은 대로 세운 거고, 허공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빼면 빼는 거고, 했다 하면 하는 거고, 그렸다 하면 그리는 거고, 대답을 했다 하면 하는 거지, 뭐 요 생각 조 생각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가슴을 두드리시고) 발견을 해야 당당해지고, 어느 거든지 갖다가 들이댈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조 국사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앞에 이렇게 앉았는 그 스님을 들고 있던 막대기로 어떻게 후려갈겼는지 "아이고!" 했습니다. "아이고!" 하고도, 그이도 참 가르치느라고 방편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번쩍 쳐다보니까, 아프단 소리 "어이구!" 해놓고는 번쩍 쳐다보니까 아이, 보조 국사가 말입니다, 휙! 돌아서 가는데 이 가사와 장삼이 착! 날리거든요. 그거를 보고선 무르팍을 탁! 쳤습니다. 그거를 보고 말입니다, "야, 자재천궁(自在天宮)이 어딨나 했더니 여기 있구나! 사리고 가사 유물이고, 들어가고 나가고 한 것이 다 이게 바로 무(無)로구나!" 그 무인 까닭에 바로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죠. 요거를 생각하고, 요렇게 (물컵을 옮겼다가 다시 제자리에 놓으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그냥 모든 일에, 일체 만법에 헛되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대로 법이다. 그러니 무슨 '한다 안 한다' 언어가 거기 붙을 리가 없죠. 그냥 쏜살같이 한 번 생각 일으키면 그대로 법인데 어떻게 무슨 '한다 안 한다'가 거기, 언어가 붙겠습니까.

그러니깐 거기서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이것이 다 무(無)로구나!" "야! 진기하구나, 자재천궁의(自在天宮) 그 묘법! 그 묘법이란 참 이렇게, 이렇게 광대무변할 수가 있나!" 하면서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아파도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이마가 닿도록 삼배를 하고 말입니다, "자재천궁의 부처님은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하고선 그냥 절을 하고는 그냥 껄껄거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손을 벌리고선 껄껄거리고 나가거든요. 그러니 보조 국사는 가만히 앉았다가 빙그레 웃고는 "참, 한 놈이 열 놈이고, 열 놈이 한 놈이 되듯이 만사형통이로군." 하고선 그냥 그렇게 멋지게 양성을 했답니다.

그 책에 써놓은 걸로 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마는 제자들을 기르려니깐 예전에 어떤 한 큰스님이 계실 당시에 그런 얘길 했습니다. 그것이 가만히 보니까 그 큰스님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책에 써있는 거를 그대로 하질 않고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법입니다. 그러면 그 책에 써놓은 걸로 봐서는 전부 누가 되게 해놨어요. 보조 국사가 뭐를 들고 주문을 외우고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가 되게 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멋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는 거거든요.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편집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주문을 외웠다고 할 수밖에요. 그렇게 누가 되게 해요! 큰 선사들을 말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0년 8월 19일 특별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1차분 완매로 인하여 2차분 한정제작. 인하된 가격으로 선착순 공급하게 되어 기쁩니다.」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사주통달책임지도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3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후 월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9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40만원, 한달후 30만원, 두달후 20만원) ※ 일시불은 80만원에 공급함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 (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 (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계룡산 대자암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

대승보살계(大承普薩戒) 십중대계(十重大戒)와 사십팔경구계(四十八輕拘戒)는 출가비구와 재가신도를 막론하고 다 같이 수지하여야 할 계법입니다. 계(戒)는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고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으며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계를 지키면 어두운 곳에서 불빛을 만남과 같고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음 같고 병난 이가 쾌차함과 같고 갇혔던 죄수가 풀려남과 같고 멀리 집나간 이가 돌아옴과 같나이다 (범왕경)라고 하셨습니다. 금번 대자암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계사 송광사 총림 방장 보성 대화상을 모시고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를 봉행하오니 무루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 법회안내
▷ 보살계 수계법회 : 윤달 음, 7월 25일 (양 9월 17일)
▷ 접수마감 : 윤달 음, 7월 15일 (양 9월 17일)

계룡산 갑사 대자암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번지
전화 041)857-5880 / 팩스 041)857-5215

부처님 가르침대로…

대도화 (충북 청원군 남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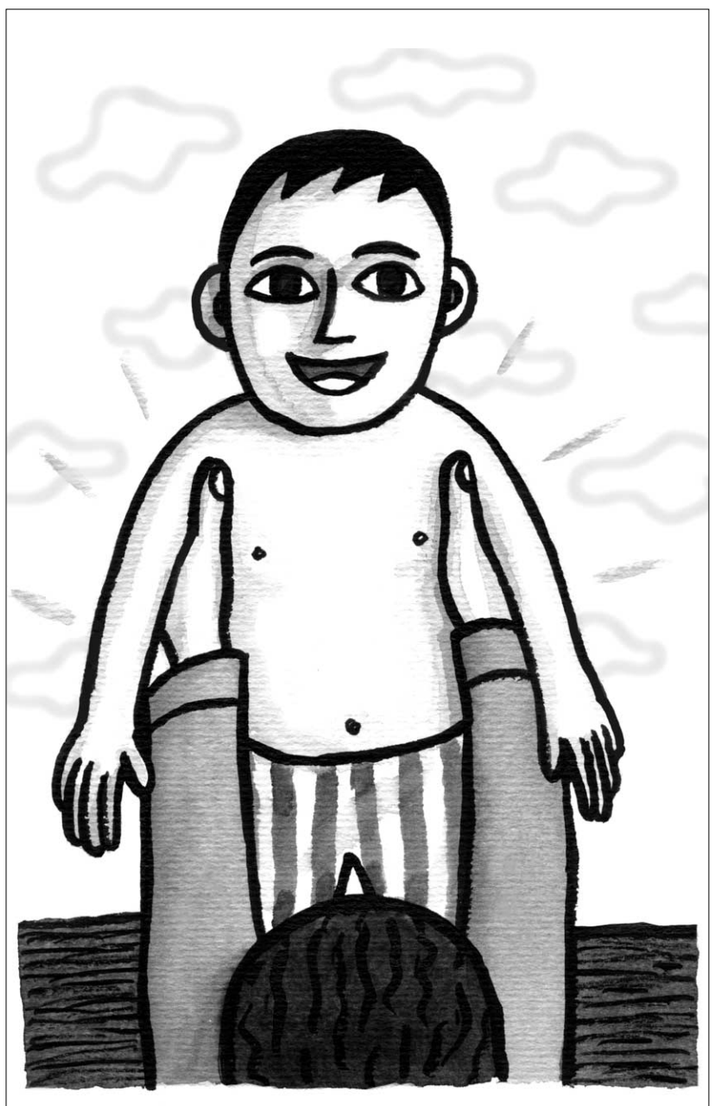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지천명(知天命)의 나이 오십에 이르러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 그저 하룻밤 꿈을 꾸고 깨어난 듯 허망하다. 바다 한가운데 던져진 채 갈 곳 몰라 표류하는 배를 타고 거센 파도와 싸우며 이리 저리 휩쓸리던 지난 날, 난 그것이 나의 운명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불교와 인연이 되어 불법을 이해하고 나름대로 정진을 하면서 거센 파도와 싸워 이기려 하기보다는 파도와 하나가 되는 삶의 지혜를 조금씩 터득하게 되었다. 지금 나는 더 이상 표류하지 않고 '해탈열반'이란 뚜렷한 목적지를 향해 당당히 항해하고 있다.

지금부터 11년 전 내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 한없이 평온하고 온화해 보이는 손님 한 분이 찾아왔다. 몹시 거칠어진 손과 발을 보면 고달픈 인생을 살아온 것이 분명한데 얼굴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안정되고 평온해 보였다.

당시 정신적 메마름에 지쳐있던 나는 부러운 마음으로 그 비결을 물었다. 그러자 그 분은 절에 열심히 다니며 <법화경>을 독송하면서부터 큰 힘을 얻었다고 일러 주었다.

그 보살님의 인도로 나와 불교와의 인연은 시작되었고 내 인생은 달라졌다. 불교에 대해 아는 것은 없었지만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모두 이해해주시고 감싸주실 것 같아 마음이 절로 평온해졌다.

마음 같아선 매일이라도 사찰에 가고 싶었지만 왕복 세 시간의 거리가 걸림돌이었다. 안타까워하던 차에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좋이 도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간 곳이 청원군 남일면 혜은사였다.

혜은사 도량에 처음 가던 날, 법당의 부처님과 정진하고 계신 스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몰래 눈물이 쏟아졌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내면에선 충만한 기쁨과 감사함이 느껴졌다. 스님은 삼천일 용맹정진중이셨다. 마치 친정아버지처럼 편안하게 대해 주시는 스님을 뵈니 크게 위안이 되어 이런 저런 인생문제를 말씀드렸다. 스님은 인연법, 연기법 등에 대해 설명해 주며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생활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철저히 실천하고 열심히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그 때 스님의 가르침이 뇌리에 와 박히는 듯 하여 지금까지 8년여 동안 스님의 뒤에 앉아 하루 두 시간씩의 새벽정진을 따라하게 되었다. 또한 스님이 직접 설하시는 '초발심자경문' '육조단경' '금강경 오가해' 강의를 들으며 불법에 대해 이론적으로나마 이해를 할 수 있었다.

매월 약사재일에는 모든 일을 뒤로 미루고 '아미타불' 염불로 용맹정진을 하며 부처님 진리와 하나 되기를 갈구한다. 평소에도 언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던 '아미타불' 염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다 번잡한 일에 부닥치면 염불을 잠시 놓치기도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점검하며 다시 염불을 시작하곤 한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일체가 마음이라 모든 것이 마음에 의해 생겨났다 머물고 변하여 사라짐을 생활 속에서 바라보기 시작하자 직업으로 하던 '피부 관리' '척추교정' 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모든 병은 마음상태에 달려 있기에 먼저 마음을 잘 살피고,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면 질병이 빨리 낫는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알았다. 그것은 우리가 악심을 내게 되면 그와 비슷한 기운들이 주위를 에워싸고 부딪치기에 건강도 나빠지고 불행한 일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며, 반면에 늘 자비심을 내면 명랑한 기운이 주위에 가득 일어나 건강도 좋아지고 하는 일도 잘 풀리게 되는 자연의 이치였다.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꾸준히 정진하다보니 본래 갖추고 있는 능력들이 근기 따라 인연 따라 드러나는 일도 자주 보게 된다.

실제로 나는 그런 경우를 직접 보고 경험했다.

4년 전 한 젊은 어머니가 여섯 살 난 아들을 데리고 내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 찾아왔다. 심한 아토피성 피부로 여러 병원에 다녀봤지만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증상이 심해진 상태여서 아이의 피부는 쭈글쭈글하고 손으로 긁어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다. 나는 그동안 배운 인과법을 생각하며 먼저 가족들을 모두 참회진언을 하도록 하고 인연된 영가천도를 올리도록 권유하였다. 나 또한 열심히 염불정진을 하면서 정성껏 치료를 시작했다.

부처님 진리와 하나 되기 위해 염불 정진
마음 잘 살피면 병 빨리 낫는다는 것 체험

그런데 치료 일주일째 세포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얼굴과 몸 전체가 신비하리만큼 팽팽해지면서 점차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실의에 차 있던 아이의 부모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도록 부처님께 대한 감사함을 느꼈다. 그 일 이후 아이의 가족들은 매월 지장재일 한번도 빠지지 않고 사찰에 나와 천도법회에 동참하고 있다.

도반의 소개로 찾아온 한 불자는 제대로 앉지도 서지도 못 할 만큼 허리의 통증이 심한 상태였다. 병원에서는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여서 환자는 고통과 두려움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런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며 대화를 하다 보니 환자는 병원에서 수술받기 이전에 내게 먼저 치료를 받고 싶어 했다.

이번에도 환자본인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정진하는 것과 함께 인연된 영가를 천도하도록 권유하고 일념으로 염불을 하면서 관리를 시작했다. 척추교정 아홉 번째를 맞자 멈추었던 생리는 다시 시작되었고 구부정했던 자세가 바르게 교정되어 통증도 완전히 멈추게 되었다. 지금은 다니던 사찰에 다시 나가며 봉사활동도 더욱 열심히 하고 있다. 며칠 전엔 자전거를 사서 타고 다녀야겠다며 즐거워했다.

이 모든 일들이 부처님과, 생전에 큰 힘이 되어 주셨던 청화 큰스님, 그리고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언제나 정진하는 모습을 잃지 않으시며 열정을 다해 부처님 진리를 가르쳐 주신 혜은사 주지스님 덕분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집안일보다 바깥일에 치중하는 며느리를 이해해주시고 함께 정진하시는 시어른과 가족, 언제나 희로애락을 같이하는 도반들에게도 감사한다.

오늘도 나는 새벽바람을 가르고 정진 도량 혜은사로 달려가며 발원한다.

"내가 본래 부처이건만 중생놀음에 끄달려 업력 따라 욕심내고 화내며 어리석게 살아온 지난 세월을 참회합니다.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음 생을 만드는 원인이 됨을 알고 성불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일체중생이 부처님 진리대로 살기를 발원하오며 제가 모든 이에게 도움 줄 수 있기를 발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화 고통받는 중생들의 소원을 성취 하다 !! 제
신비와 영험의 치우천황(붉은악마) 영험도량 지장사 출현



소승이 그 동안 치우신의 기도를 통해 얻은 놀라운, 영험을 많은 중생들에게 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 치우천황을 세상에 공개하니 치우신의 영험을 직접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현제 방송을 통하여 세간의 관심이 집중 되고 있는 SBS 연개소문, MBC 주몽에 나오는 치우천황(붉은악마)는 그자체로 승리를 상징 합니다.
한국팀의 2002년 월드컵 첫경기인 폴란드와의 결전이 있기전 치우천황께 정성껏 제를 올려 치후천황의 도술이 고강하여 한국팀을 돕고져 안개의 조화를 부려 한국축구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어느날 신도분이 땅과집이 매매가 되지않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상담중 치우천황을 발견하고 스님이 대단한 신장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머리관이 치우천황(붉은악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붉은악마 바로 치우천황입니다. 스님은 치우천황과의 고귀한 인연법을 깨닫고 치우신의 영험을 얻고져 제를 올리고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후 놀랍게도 치우천황이 꿈에 선몽되고 집과땅이 매매가 되었습니다.
스님은 치우천황의 신비한 영험을 세상에 알려 절망속에 빠져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 하고져 원을 세웠습니다 이곳저곳 어느곳에 가서 점을 보고 굿을 해도 소용없고 되는 일이 없으신분 큰일은 하늘이 도와야합니다.
지장사에 오셔서 신비의 영험을 지닌 치우천황을 친견하시고 영험을 받으셔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 위치 :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4번출구 하이마트앞 지장사
  치우천황을 멀리서 친견 못하시는분들을 위하여 지장사 치우천황의 기를 받은 치우신의 족자와 스님의 치우신께 올린 기도의 비법이 담긴 책자를 소장 하십시오
  치우도는 보물입니다 치우도를 소장하시면 반드시 영험을 보실것 입니다.
- 족자크기 : (가로 50cm × 세로 × 120cm) • 시주금 : 10만원
- 입금계좌 : 조흥은행 962-04-302262
- 문의 : 02)930-6052 지장사

※ 입시생은 치우신께 꼭 합격 발원을 하십시오 치우천황은 승리 입니다

베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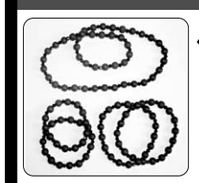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 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압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실기 훈련을 위주로 하는
설법 연수생 모집

● 교육목표
각 개인별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법의 실기 연수과정을 통한 능력배양, 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 시킬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내용
1. 정체성 확립(가치관&성격)
2. 단전호흡의 이론과 실제
3. 설법의 개념 및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제
6. 원고 작성법(자료의 재구성)
7. 표현상 修辭 및 논리상의 修辭
8. 상담&대화의 이론 및 실제
9. 회의진행법, 토론 및 각종 사회진행 요령
10. 인사말, 축사, 격려사, 주례사 등 요약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모집 : 종합반 - 수시접수 5명이내
※ 맞춤식 개인지도 - 총 8회과정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3,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하늘 땅 모든 상서로운 기운이 부처님 탄생 찬미

불화 속의 명장면 (13)

日 후쿠오카 혼카쿠지 소장 '석가탄생도' (상)

저 히마반트(雪山) 기슭
예부터 코사라국에 속하는 땅에
부와 용맹을 아울러 갖춘
한 단정한 부족이 삽니다.

'태양의 후예'라 일컬어지는
내가 태어난 이 부족의 이름은 사아캬(釋迦),
나는 그 집에서 나와 수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온갖 욕망을 좇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경집(經集)3 · 1 출가경(出家經)>



그림1 : 日 후쿠오카 혼카쿠지 소장 '석가탄생도' (부분). 룸비니동산의 석가탄생

탄생장면 '월인석보'의 비람강생 장면과 일치
'석보상절' 서문으로 보아 조선왕실 작품으로 추정
'태양의 후예'로 자부 석가 탄생을 '빛의 탄생' 묘사

일본 후쿠오카 도심 속, 높고 커다랗게 뻗어 올라간 빌딩 숲 사이에 혼카쿠지(本岳寺)라는 작은 전통 사찰이 있습니다. 이 사찰에는 전례없이 아름다운 '석가탄생도' (가로 109.5×세로 145.0㎝)가 한 점 전해져 내려옵니다. 석가 탄생의 무대가 되는 룸비니 동산은 마치 높은 월대와 같이 방형으로 구획되어 마련되어 있습니다(그림1). "좁던 동산이 넓어지고 흙과 돌이 다 금강이 되고 보배나무가 늘어서고 화만(꽃으로 엮은 늘어지는 다발)이 가득하며 보배로운 물이 흐르고 못에는 부용(연꽃)이 피고 천룡과 야차가 와서 합장합니다." (석보상절, 이하 작품 설명 인용문구 석보상절에서 발췌인용)"

이 무대에서 바야흐로 펼쳐지는 '석가탄생'이라는 퍼포먼스를 찬미하러, 하늘과 땅의 모든 상서로운 기운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오색구름을 타고 천룡팔부와 천인의 무리가 천상의 풍악을 울리고 향을 피우며 강림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에서는 영락과 꽃비가 내려와 룸비니 동산에 가득 흩뿌립니다." "지상에서는 동산 나무의 열매가 저절로 열리며, 수레바퀴만한 청련화가 나며, 시든 나무에 꽃이 피며, 하늘 신령이 칠보 수레를 이끌고 오며, 땅에서 보배가 절로 나며, 좋은 향내가 절로 두루 퍼지고, 설산의 오백 사자가 문에 와서 늘어서며, 흰 코끼리가 뜰에 와서 노닙니다."



그림2 : 무우수(無憂樹) 아래 마야부인의 출산

지금으로부터 약 2천 5백년 전(기원전 5세기경) 인도 북방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 기슭의 사아캬(釋迦)족이라는 부족의 왕자로 석가모니(사아캬 · 무니)는 태어났습니다. 석가모니의 본명은 고타마 싯다르타.

성(姓)인 고타마는 '최상의 소를 가진 자'라는 뜻이고 싯다르타는 '목적을 성취한 자'라는 뜻입니다. '사아캬'족의 왕자가 '붓다'가 되었다 하여, 존자(尊者, 높으신 분)라는 의미의 '무니'가 존칭으로 붙게 되었고, 이를 음역하여 석가모니(釋迦牟尼)가 된 것입니다. 즉 석가모니, 석가세존(釋迦世尊) 또 이의 약칭으로서의 석존(釋尊)은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붓다(Buddha, 佛陀)'라는 것은 범어(梵語 산스크리트어, 고대 인도어)로 '깨달은 자(覺者)'란 뜻이지요. 물론 석가 이전에도 (과거7불, 연등불), 현재에도(아미타불, 약사불), 또 이후에도(미륵불) 수많은 붓다가 존재하고, 또 나도 노력하면 내 속의 불성(佛性)을 밝힐 수 있다 하여, 모두 성불(成佛)을 향하여 석가모니의 역사적 실존 사례를 모델로, 또는 이를 스승삼아 정진에 정진을 거듭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붓다를 관통하는 본성, 진리(法) 그 자체를 이름하여 법신(法身, 비로자나)이라 하니, 수많은 붓다는 모두 법신의 화현(化現)에 지나지 않고, 또 그 어느 화현도 바로 최고 최상인 불성(佛性)의 표현이겠지요. 바로 이것이 대승경전 또 이에 의거하는 불교미술과 조형을 아우르고 관통하는 논리이겠지요.



그림3 : 황금빛 육신의 싯다르타탄생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즐겨 쓰는 '부처' '부처님'의 어원은 과연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요? 그 해답은 에다도 시오(江田俊雄, 일제시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며 불교학 발전에 기여한 일본 불교학자)의 짧은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고려초기 광종연간(약 10세기경) 찬술된 균여의 향가 <보현십원가>의 첫 구절, "마음의 붓으로 그려낸 부처 앞에 절하옵는 이 내 몸아"에서 부처는 '불체(佛體)'로 표기되고 '부텨'로 읽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선전기 간행된 <몽산법어언해> <능엄경언해> 등 불전언해류와 최세진이 생활에서 상용되는 실용한자 위주로 정리한 <훈몽자회>(1527년, 아동용 한자학습서)에도 '불(佛)'은 '부텨'로 음운 표기되어, 예로부터 한국의 고어(古語)로서 전래되어 내려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작품 중심부의 탄생장면(그림1)은 <월인석보>(1459년, 서강대도서관 소장)에 첨부된 목판본의 '비람강생(毘藍降生)' 장면과, 구도와 도상 내용 및 배치에 있어, 거의 일치하고 또 중국 일본에는 이와 같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듦으로, 본 작품은 조선전기 왕실에서 나온 작품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에 필자가 그 설득력을 더하자면, <월인석보>의 저본이 되는 <석보상절(釋譜詳節)> 서문에 "세존의 도를 이루신 일의 모양을 '그림으로' 그리고 또 '정음으로' 번역하여 새기니, 사람마다 쉽게 알아서 삼보에 나아가 귀의하게 되기 바란다"라고 쓰여있어, 이미 <석보상절>이 편찬(1447년 완성 1449년 간행)될 당시 글과 더불어 그림으로 병행되었고, 또 이것이 본도의 모본이자 조선시대 팔상도의 기원 역할을 했음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석보상절>은 세조가 수양대군 시절 세종의 명으로, 석가모니 씨족의 계보와 그 일대기를 엮고 이를 한글로 번역한 것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불경 언해본이라는 귀중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지요. 앞에서 본 작품을 설명하는 데 있어, 굳이 <석보상절>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이유는, 작품에 등장하는 다채로운 도상들과 명기된 도상명칭이 <석보상절>의 문구들과 구구절절 그대로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석보상절> 본문의 출처는 <월인석보> 서문에 의하면 양(梁)대 <석가보(釋迦譜)>, 당(唐)대의 <석가씨보(釋迦氏譜)>라고 하지만, 이들 역시 기존의 경전들에서 석가의 일대기와 행적으로 일종의 모듬 형식으로 엮어 편찬한 것입니다. 특히 본 작품 석가탄생장면(비람강생상)과 관련하는 대목은, 더 근본적으로는, <보요경(普曜經)> <수행본기경(修行本紀經)> <대화엄경(大花嚴經)> 등과 관계되니, 물론 수양대군이 이를 편찬할 당시 단지 <석가보>와 <석가씨보>를 참고하는 것을 넘어, 이들 석가 일대기와 관련된 다채로운 경전을 모두 아울러 우리에게 맞게끔 재편찬하여 새롭게 창조해 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석가의 전생인 선혜(善慧)비구는 그의 상서로운 꿈에 '한 손에는 태양을, 다른 한 손에는 달'을 잡았다고 합니다. 석가족은 '태양의 후예'라고 하니, 석가의 족보는 '빛의 계보'이고, 석가의 탄생은 곧 '빛의 탄생'이겠지요(그림3). 룸비니동산의 아름드리 무우수(無憂樹, 아쇼카나무)에 만발한 무우화(無憂華)의 아름다움에 끌려 이를 꺾으려 마야부인이 팔을 드는 순간, 그 겨드랑이에서 석가가 탄생했다지요(그림2). 로맨틱하고도 기이한 탄생. '아무런 시름이 없다'는 뜻의 이 무우수 아래에서 태어난 싯다르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극히 예민한 감수성과 침울한 우수로 가득 찬 태자로 성장합니다.

(계속)

강소연(미술사학자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머리에 쏙쏙!! 한문이 이제 쉬워집니다.

김광식 선생의 한문학습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 전수해드립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한문공부, 이제는 그만!!
체계없는 주먹구구식의 교육방법 등으로 긴 시간을 요하는 기존의 한문 교육을 배격하고,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은 흥미롭고 보다 능률적이고 요령있게 한문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40여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행하여 얻은 노하우를 이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초 · 중 · 고 · 대학생 · 일반 실무용 한자
(6급 - 1급까지 능력시험 대비)

영어를 모르면 세계의 고아!
한문을 모르면 아시아의 고아!
17억 한문 문화권의 당당한 도전!
한문을 알면 지구의 반을 정복한다!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

한자 고사성어 및 응용한자, 행정용어, 속담 등
1만여 문장 성어 수록

속담에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로 "사람도 공부를 하면 위인(偉人)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漢文書堂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현대불교신문** – <한문서당>에서는 딱딱한 사전적 풀이대신 쉬운 언어로 한자를 풀이하고 있다. 한자는 형성과정을 이해하면 저절로 외워진다.
◇**충청 투데이** – 체계적인 한문교육이란 무엇이며 예절과 충효문화교육에서도 상세히 알려준다.
◇**동양일보** –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한눈에 쏙 한맹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중부메일** – 한문교육 40년 경험과 최고의 경험과 최고의 결과를 후학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이다.
◇**이원종 충북도지사** – 한문책으로서 우리 도를 빛낸 또 하나의 쾌거이다.
◇**김종호 전 내무부 장관** – 한문문화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지름길을 제시해 주어 경제와 문화가 한층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주사 도공 스님** – 한문과 불교문화는 밀접한 관계다. 불자들의 필독을 권한다.



全六券 90,000원
明光文化院 www.mkmunhwa.com
- 본사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292-9 / 전화 043)222-2257
- 서울영업소 : 서울 종로구 당주동 145번지(롯데미도파 광화문빌딩 204호) 전화 02)720-0826